

공공성의 회복

: 일산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명철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Myungchul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Recovery of Publicness

: Tong Sermons on the Kingdom of God for Young Adult Group of
Ilsan Somang Church, Korea

Myungchul Kim

Ilsan Somang Church, Goyang, Korea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propose holistic sermons of the Kingdom of God based on the theology of the Kingdom of God for restoring the missionary publicness of the Korean church. For this purpose, this project conducted four studies. First, what does cause the church to lose publicness? Second, what is the nature of the church? What is Public Theology? Third, what kind of kingdom is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Old and New Testaments? What is the impact on the restoration of publicness when we see the Kingdom of God through such a way? Last, what is the result of the pastoral application to holistic sermons of the Kingdom of God?

First, what does cause the church to lose publicness? The author found that it was due to the lack of theology and lack of teaching about the Kingdom of God. The church has turned the Kingdom of God into the heaven, and came to think that God is of little interest in the world because God is in the heaven not in the world. Therefore, the church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Kingdom of God anymore. Being separated from the world, the church has become an organization and gathering for itself and gradually lost interest in others, neighbors, and the society.

Second, what is the nature of the church? What is Public Theology? The author examined four types of ecclesiolog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the church: Catholic ecclesiology, Reformed ecclesiology, Free Church ecclesiology, and the WCC's ecclesiology.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ssence of the church is not in institutions, beliefs, or communion, but in public character through the process of changes and developments of these four types of ecclesiology. Also, the author has introduced four models of public theology according to the church's public practice while taking a position to participate in the publicness of the society within a Christian identity among them.

Third, what kind of kingdom is God's one according to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a whole? What does affect the restoration of publicness when you see the Kingdom of God through such a way? The author proposes a theoretical alternative using Byungho Zoh's kingdom of priests and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priests represent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has five characteristics. The kingdom of priests was a country that started with a Passover lamb, led to the temples and the elders, had forgiveness and share resources with neighbors as well as peace between the nations. The Kingdom of God from the New Testament also has five characteristics. It was a nation which began with the Lamb of God, was realized through the cross, and led to the churches and disciples. And it is the nation where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world, and God is called the Father. This understanding of the kingdom of priests and the Kingdom of God strongly shows the intercession between the world and God which is the essence of the publicness that the church should possess.

Lastly, what was the result that preaching of the Kingdom of God applied to the ministry? The author gave sermons on the Kingdom of God to the young adult group of the church where the author worked for, and the young who heard the sermons responded that they learned the Kingdom of God biblically and God's love for the world, and the fact that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church lie in its publicness.

Researches carried out through this project can be very useful tools to restore the lost publicness of the church. The author hopes that this project will be a conduit to make the church the church in the truest sense and to make the church respond vigorously to God's will and purpose for the world.

국문초록

공공성의 회복

: 일산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연구

김명철

일산소망교회, 고양, 한국

본 논문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4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교회로 하여금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공적 신학이란 무엇인가? 셋째,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그렇게 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어떤 점이 공공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가? 넷째, 하나님 나라 통설교가 목회에 적용된 결과는 어떠한가?

먼저, 필자는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린 원인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 신학의 부재와 가르침의 부족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하나님 나라 신학의 부재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며, 이 땅에 관심하지 않는 분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고, 세상과 분리된 교회는 점점 자신만을 위한 모임과 기관이 되어 버리고 타인, 이웃,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둘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공적 신학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공공성과 교회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네 가지 교회론을 살펴보았다. 가톨릭의 교회론과 종교개혁의 교회론, 자유교회의 교회론과 WCC의 교회론이다. 이 네 가지

교회론의 변천과 발전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은 제도나 믿음이나 친교가 아니라 공공성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또한 교회가 공공성을 실천하는 모습에 따라 공적 신학의 네 가지 모델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 중에서 기독교적 정체성 안에서 사회의 공공성에 참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셋째,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그렇게 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때 어떤 점이 공공성 회복에 도움을 주는가? 필자는 조병호의 통으로 보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통으로 보는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며,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이며, 용서가 있는 나라이며,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이며, 나라와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도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며, 십자가를 통해 실현된 나라이며,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적 모습을 강렬하게 보여주며 이는 교회가 가져야 할 공공성의 본질이 된다.

넷째, 하나님 나라 통설교가 목회에 적용된 결과는 어떠한가? 필자는 통성경 하나님 나라 신학에 기반하 52주 하나님 나라 통설교를 필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청년부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알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공공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수행된 연구와 프로젝트는 교회가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이 아무쪼록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교회가 힘차게 응답하게

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x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과 의의	1
연구범위 및 방향	8
II.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11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공적책임	11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17
교회의 공적책임 실천의 역사	23
III. 통으로 보는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	35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제사장 나라	36
왜 제사장 나라인가	40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48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	56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75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83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87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징검다리 선지자	93
IV.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99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존	100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109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	117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	126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134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140
V. 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147
설교와 공공성	147
통설교 방법론	152
하나님 나라 52주 통설교	154
하나님 나라 설교 인터뷰와 평가	174
VI. 결론	196
요약	196
평가	204
결론 및 제언	207
참고문헌	211

표 목차

<표1> 하나님나라 52주 통설교	156
<표2> 1-5주차 설교의 기획 -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	158
<표3> 1-5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159
<표4> 6-22주차 설교의 기획 -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160
<표5> 6-22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161
<표6> 23-33주차 설교의 기획 - 제사장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166
<표7> 23-33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166
<표8> 34-52주차 설교의 기획 -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	169
<표9> 34-52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170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 논문을 완성하는 순간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였고, 기도하게 하였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감내해 낼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과정을 통하여 저를 다시 한번 연단하여 주셨습니다. 목회자로서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많이 배우고 준비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일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점입니다. 항상 좋은 목회자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는 최대석 담임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박사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저를 받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배려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지원과 배려가 아니었다면 부족한 제가 이 논문을 다 마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영희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은 제가 부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들을 잘 메워 주셔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으며 이 과정을 헤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소하와 소은이 그리고 아내 현슬 기에게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으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아내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논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아내는 언제나 변함없는 미소와 기도로 저를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아들 소하와 딸 소은이에게도 감사를 포함합니다. 아빠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른 형태의 지지를 보내 주었고 그것이 훌륭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논문이지만 최선을 다해 지도해주신 조병호 교수님과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무엇인

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훌륭한 연구와 지성으로 길 안내를 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예리한 지성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끝까지 논문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 세상과 말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세 분의 귀한 가르침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논문이지만 이 논문을 끝이라 여기지 않고 시작이라 여기며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김 명 철

제 I 장

서 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과 의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약 130년이 흘렀다. 한국교회는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대부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생겨났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개인적인 윤리만 지키면 그것이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된다. 이것은 신앙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까지 넓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나라와 민족”, “열방과 온 우주”에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복음이다.¹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며, 각 민족과 나라가 역사속에 등장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성되며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약성경에서도 나라에 대한 큰 주제가 이어진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¹ “한국 개신교는 죄와 죽음의 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가르치며, 사탄과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은 최후심판과 지옥을 향하여 내달린다고 보면서 이러한 세상과 단절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 주셨다.” 이형기 외 8명,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경기: 킹덤박스, 2010), 15.

가르쳤으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세상과 열방의 민족들에게 전파한다. 이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신 이야기뿐 아니라 열방을 경영하신 모습까지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신 내용부터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²

성경은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개인과 가정을 넘어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개인과 가정,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바르게 성경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가정을 넘어 나라에까지 시야를 넓힌다는 것은 복음을 개인화, 기복화 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고 온 세상과 피조물과 더불어 사는 세계를 향한 “공공선”과 “공공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제사장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이유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한다.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해질 만큼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고 개교회주의³와 교파주의와 같은 가족주의⁴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큰

²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5), 7.

³ “하나의 믿음에 근거한 ‘보편 교회’가 동방 교회, 서방 교회, 개신교회 등 ‘개기독교화’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결과 개신교회는 내부에서 ‘개교파화’로 이어지고, ‘개교파화’에서 ‘개교단화’가 이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위기는 교인이 감소하는 데 있지 않다.⁵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현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

필자의 이러한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부족”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학문적으로 다루어져서 신학자들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 버리거나 혹은 신약성경의 한 부분 안에서만 다루어져서 부분화 조각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필자도 오랫동안 신학공부를 해 왔지만 제사장 나라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매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공부도 거의 해 본적이 없었다. 단지 매우 신학적인 제목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접했을 뿐이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지고, 이런 과정에서 ‘개교회화’ 또한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분리 이면에는 ‘보편 교회’가 추구해 온 가치의 상실, 즉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를 뒷받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임무를 따르는 교회 표지가 약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강웅섭, “한국 개신교회의 ‘개교회화’에 관한 소고,” *한국조직신학논총 제50집*(2018), 23.

⁴ “역사상 기독교의 시작은 가족중심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직자를 아버지와 같이 여기는 가족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가족중심성은 결코 ‘가족주의’는 아니었다. 교회가 점점 제도화 조직화되면서 가족중심성이 가진 개방성과 평등성은 사라지고 ‘가족주의’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곳이 되어 버렸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93/> (2019년9월22일 접속).

⁵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6/> (2019년9월22일 접속).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유발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의 주제로 다루고 성경 전체와의 관련아래에서 다루어 줄 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병호는 성경을 통으로 살펴보면 “성경 전체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⁶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한다.⁷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어느 날 예수님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안에 수렴되고 완성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개념이 너무 박약하였고 너무 추상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숲으로 보는 조병호의 “통성경-통신학적 접근”⁸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호는 수많은 성경통독을 통하여 꾸준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연구해 왔고, 그가 제시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매우 성경중심적 접근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⁶ 하나님 나라는 좁은 뜻과 넓은 뜻으로 함께 쓰인다. 좁은 뜻은 신약의 예수님이 증거하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이며 넓은 뜻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을 조병호는 A, The, His kingdom으로 구분한다.

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37.

⁸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22-69.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극단적 이해” 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피안의 세계에 있는 “천국” 이라고 여기는 극단적인 이해가 성도들에게 있다. 천국은 개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죽어서 가는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동일하다면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된다.⁹ 그러면 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동일시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지연과 관련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고, 그 기다림의 지침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먼 “미래의 나라” 가 되었고 결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영적인 천국” 으로 대체되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 에 대한 설교도 “천국” 에 대한 설교로 대체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이 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후 세계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¹⁰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세속적으로 이해한 극단적 이해도 문제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세상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이 땅 위에 건설될

⁹ “한국 개신교는 영혼구원을 강조하면서 복음전도를 ‘구령사업’이라 가르쳤다. ~ 영혼만의 구원을 강조했다. 영혼과 몸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신앙을 지배한 결과 ~ 교회의 공적인 책임수행을 방해했다.”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16.

¹⁰ “게르스호름 솔렘(G. Scholem)은 내면화된 구원론, 통전성을 잃어버린 구원론을 비판한다. ‘유대교에게 메시아는 구원을 가져오는 자로서, 그 구원의 개념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공동체의 매개체 안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수행되는, 말 그대로 공공성 가운데 수행되는 구원이다. 이에 비하여, 기독교는 구원을 영적인 영역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각 개인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J. Moltmann,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균진, 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54에서 재인용.

유토피아로 이해함으로 더 이상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극단적 세속 이해는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의 “천국” 과 이 땅의 “세속의 유토피아” 로 분리(이원화)시키고 말았다. 세속화된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게 되면, 개인의 육체를 위한 피난처는 이 땅이 되고, 개인의 영혼을 위한 피난처는 하늘의 천국이 된다.¹¹ 이러한 이해는 몰트만이 지적한 대로

“후천년설” 과 관련되어 있다.¹²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됨으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교회를 지키는 천년왕국의 나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로 수없이 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였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고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유토피아적인 천년왕국만을 기대하게 되었다.¹³ 결국 천년왕국론은 교황이나 황제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신학적 기반으로 사용함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많은 폐단들이 있었다.¹⁴ 지나친 하나님 나라의

¹¹ “제도화된 기독교 교회들은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역사적인 미래의 희망을 추방함으로써 그 자신의 희망의 한 부분을 저주하여 버렸고 이리하여 그들 속에는 영혼을 위한 하늘의 피난처 희망만이 남게 되었다.” J.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61.

¹²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의 이론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역사의 종말)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며 이 천년왕국은 초림의 예수님 이후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의 시대”라고 말한다. 몰트만은 이러한 역사적 천년왕국론이 1. 물론교도, 여호와의 증인 2. 교회의 파송의식(정복적 선교) 3. 기독교 제국주의 4.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5. 종교적 교회적 정치적 메시아니즘에서 나타난다고 말한다. Ibid., 260.

¹³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왕국을 기다렸고, 로마인들은 ‘황금시대’를 기다렸으며 근대인들은 갈등이 없는 세계의 상태 속에서 일어날 역사의 종말을 기다렸다.” J. Moltmann, “종말론 지구촌화 그리고 테러리즘,” *콰미숙 역 (기독교사상 522호, 2002)*, 204.

¹⁴ “천년왕국론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기독교 희망의 필연적 차안성이 대한 암시이다”, “그러나 모든 희망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현재를 새로운 힘으로 채울 수도 있고, 현재로부터 힘을 빼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은 저항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정신적 도피(휴거, 세상 부정과 폐기)로 이끌 수도 있다” 천년왕국의 세속화는 이러한 “현재로부터의 도피적 폐단”을 일으켰다.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270.

피안성만을 강조하는 “영적화” 나 차안성만을 강조하는 “세속화” 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고, 이분화시킴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적이고 과편적이며, 극단적 이해를 수정하고, 성경 전체안에서 증거되어지는 바른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되고 통치되는 나라이며, 이 땅위에서 시작된 나라이며 이 땅안에서 완성된 나라이며 이 땅의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나라임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에 기반한 “용서와 나눔과 평화와 희생적 사랑” 의 공공성을 본질로 가지는 나라인 것을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통성경 해석 방법론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 동시에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가진 공공성을 말하고 이것을 목회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별히 목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교에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52주 설교”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회적 적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 교육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과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극단적 이해를 수정하게 될 것이고,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는 시각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성경이 개인, 가정을 넘어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를 세워가는¹⁵ 일에 관심을

¹⁵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개념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 이루다, 증거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위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를 위임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 위임하신 예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

가지게 될 것이며,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의 “선교적 공공성”¹⁶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 범위 및 방향

본 논문은 하나님 나라 신학을 목회현장에 접목하는 시도로서 이론적 문헌연구와 목회적 실습을 함께 병행한 연구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조병호의 통성경 해석 방법을 적용하여 이론을 연구하였다. 통성경 해석 방법론은 구약과 신약을 별개의 책으로 보지 않고 한권의 책으로 보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신약 안에서만 연구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까지 살핌으로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 이해를 추구하였다. 물론 성경 전체를 살폈다고 해서 성경 66권의 본문 전체를 빠짐없이 살폈다는 말은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와 관련된 본문은 모세 오경을 메인 텍스트로 참고하였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는 사복음서의 내용을 메인 텍스트로 참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편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성경의 대부분의 텍스트를 참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서론, 결론을 포함하여 총 여섯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가는 내재적 나라는 아니다.

¹⁶ 교회의 공공성의 측면은 매우 광범위하다. WCC(World Council of Churches)의 JPIC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에서는 매우 광범위한 공공성의 측면을 강조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협소한 의미의 공공성의 의미에서만 사용하고자 한다. 즉 개인화(사사화), 영적화, 내세화, 피상화, 내부 지향성, 교회 지향성 등의 반대적 개념으로 공동체적, 실천적, 외부 지향성, 하나님 나라 지향성 등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선교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공공성이 일반 사회에서 추구하는 공공성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공공성은 언제나 선교지향적(하나님나라지향적)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법에 기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는 논문의 취지와 이유를 밝힌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안에서 천국의 개념으로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극단적 신학 이해가 수정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하여 통성경적 접근을 추구해야 하며 신앙의 내면화, 교회의 개교회주의, 교단의 교파주의를 넘어 교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교육의 절실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II장에서는 교회와 공공성의 관계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네 가지 교회론을 살피고, 최근에 대두된 공적신학이란 용어와 함께 공적신학의 종류에 대하여 살핌으로 교회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로마 제국하의 기독교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났던 교회의 공적인 모습을 살핌으로 역사속에서 교회가 보인 공적인 측면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구약성경을 통으로 보는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살핀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응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선택되는 이유와,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세워진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떠한 제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용서, 나눔, 평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끝으로 제사장 나라의 위기 상황속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에 의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가 고대되어지는 과정에 관하여 살핀다.

IV장에서는 신약성경을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핀다. 하나님 나라가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고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방식으로 수렴되고 성취됨에 대하여 살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논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제사장 나라가 종료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논하고, 제사장 나라의 종료를 통해 새로운 형식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와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남에 대하여 논한다. 또한 예수님의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한 가치의 공공성에 대하여 논한다.

V장에서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해석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설교는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함께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는 설교 형식이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에 설교의 평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으며,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VI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평가함으로 논문의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 장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공적책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경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세워진 교회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본질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교회의 본질 문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에 간략한 교회론의 역사와 함께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처음에 시작된 교회는 초대교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에클레시아”(교회)라고 불렀다.¹⁷ 이 용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을 “시나고게”(회당)로 부른 것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교회는 세워졌고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에클레시아) 받은 공동체이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였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점차 제도화되면서 교회론이 등장하게 된다. 앵거스 던(Angus dun)은 모든 교회를 세

¹⁷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경북: 분도 출판사, 1987), 84.

부류로 나눈다. 카톨릭교회, 고전적 개신교회, 자유교회이다.¹⁸

첫 번째 카톨릭교회의 교회론은 교회의 “제도적 성격과 신비적 성격”을 강조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제도(조직)이며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카톨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이며 성례전이 된다. 성도는 성례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통하는데 이것은 오직 베드로때부터 내려오는 성직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은 왕권, 제사장권, 예언자권을 모두 물려받았다. 교황은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려야 하고, 제사장으로서 성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 수 있으며, 예언자로서 말씀을 무오하게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카톨릭교회는 죄 없는 순결한 기관이며 개혁되어질 필요가 없는 교회이다. 381년 콘스탄티노플회의에서 채택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네 가지의 교회 표지가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제도이며, 카톨릭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로 고전적(종교개혁주류) 개신교회의 교회론은 “구원론(말씀과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 구원은 교회의 제도나 성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제도적인 교회론을 비판했고 교회의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섬기는 곳이지 제도를 섬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과 일치하느냐?

¹⁸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53-55.

하는 것의 정도가 결정한다.¹⁹ 그래서 교회도 두 개의 교회가 존재한다. 하나의 교회는 제도적으로 보이는 교회이며 또 하나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보이는 교회의 역할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외적 도움을 주는 곳이다. 또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성례는 다 없앤다. 카톨릭의 칠성례 중에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인정하는데, 이유는 세례와 성찬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화된 말씀, 농축된 복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론에서 교회는 무오한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개혁되어야 할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믿음”이다.

셋째로 자유교회의(재세례파) 교회론이다. 자유교회는 종교개혁 바깥에서 좀 더 강력하게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며 제도와 국가와의 관계를 거부했던 교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자유교회의 교회론은 교회의 제도적 기능에 대하여 훨씬 강력하게 거부감을 드러낸다. 자유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의 친교”로 본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초점은 성례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며, 친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이며 거듭난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교인들의 친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친교”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하거나 유아세례를 통해 교적부에 이름을

¹⁹ "교회가 분명히 하나로 있는 동안에는 표지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단들이 일어나게 되자 '참 교회'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지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 종교개혁 시대에는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로 있던 교회가 두 개의 큰 교파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교 자체가 여러 종파로 분리되어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별을 위한 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 그들은 교회가 순응해야 할 진리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였다." 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576.

올린 것으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성도는 자신의 인격에 의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엄격하게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유교회는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영적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여전히 제도에 의지하게 하는 교회론이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밖에 없으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친교 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며, 성도들이 인격적인 믿음으로 이 친교안에 들어오는 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보았다.

위의 세 가지 교회론외에 또 하나의 교회론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교회론은 WCC(연합)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론은 1차, 2차 세계 대전으로 전 세계가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교회의 역할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인하여 출발한 교회론이다. 하나에서 출발한 교회가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너무나 많이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있었고 교회의 본질보다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국가의 종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WCC의 시작은 1925년 공식 출범한 Life and Work(삶과 봉사) 운동과 1927년 공식 출범한 Faith and Order(신앙과 직제)운동이 1948년 하나가 됨으로 WCC(세계교회협의회)로서 시작되고 1961년 IMC(국제선교협의회)가 합류함으로써 “신앙과 봉사와 선교”를 통합하는 연합체가 완성되게 된다.²⁰ WCC의 교회론은 위에서 제시된 교회론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의 교회론을 옹호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필자가 WCC를 하나의 교회론으로 추가한 것은 수없이 많은 세계의 교회들이 각각 다른 교회의 본질과 표지를 가지고 나뉘어져 있을 때에 연합을 통하여 어떤 일치의 교회론을 정립해 보고자 하였기

²⁰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84-86.

때문이다. 이러한 일치와 연합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함께 공존한다. 참여하는 교회와 교단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교리에 대한 변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WCC의 공헌은 그러한 불일치 가운데 일치와 종합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00년전 하나의 교회로 출발했던 교회의 의미를 가장 잘 종합해보려고 했던 시도였고 또한 이때부터 교회의 본질을 “정통”(Orthodox)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그 정통을 “행함”(Ortho-praxis)의 문제까지 연결하여 교회의 본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²¹

WCC는 그 시작부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기관의 연합이었기 때문에 교회론도 이 두 개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신앙과 직제 운동의 문건들에 나타난 교회론으로서 이것은 “에큐메니칼 교회론”(이론)을 정리한 것이며, 또 하나는 삶과 봉사의 문건들에 나타난 교회론으로서 이것은 “에큐메니칼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실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문서들과 정리된 내용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고 매우 압축된 형식으로 교회론과 공적책임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에큐메니칼 교회론은 크게 6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²² 이 정리는 이형기의 정리를 요약 발췌한 것이다. 첫째는 화해의 복음이다. 모든 교회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둘째는 칭의와 성화이다. 이 복음의 요체는 칭의와 성화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의 불가 분리한 두 측면이다. 셋째는 기독교적이고 삼위일체적인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기초한 복음과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²¹ Alister McGrath, *기독교 교리이해*, 정진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82.

²²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87-102.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통일성의 근거가 된다. 넷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교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현존과 형상으로서 이 땅 위에 존재한다. 다섯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목적은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징표와 도구로서의 교회이다. 복음서의 내러티브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며 약속이기에 종말론적인 그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탄생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예언적 징표이며 도구로서 교회는 존재한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교회론에 근거한 에큐메니칼 교회의 공적책임은 70여년간 7번의 대총회를 거침으로 JPSS(Justice-Participation-Sustainable Society)에서 JPIC(Justice-Peace-Integrity of Creation)로 확정되었다.²³

교회의 본질은 믿는 자들만의 거룩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공성에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신²⁴ 예수님을

²³ Ibid., 103-12.

²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증거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원형’이라고 표현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에덴동산’이라고 말하지만(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54) 필자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과 그의 행하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여긴다.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²⁵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공적신학(public theology)²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회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양적인 수축의 문제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상을 유발하는 한국교회의 질적인 문제이다. 장신근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사회를 향한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부족현상, 세상과의 소통의 부재, 신앙과 실천의 분리, 신앙의 개인주의적 경향, 교회의 이기적인 정치 세력화”²⁷라고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대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적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 공적신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장에서는 공적신학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몰트만은 신학의 본래적 기능이 공적신학이라고 말하며 공적신학이 신학의 본질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신학은 교회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학이 될 때 신학이 공적신학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²⁵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의하여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제자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 교회는 공교회이다. 여기서 ‘공’은 공(共)이 아니라 공(公)으로 표현된다. 공교회가 공(共)교회라면 그것은 모두를 위한 교회, 모두를 위한 하나의 교회의 의미가 된다. 그러나 공교회가 공(公)교회라면 그것은 공식적인 교회, 공무를 행하는 교회가 된다. 여기서 ‘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공무(公務)와도 같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에, 교회가 행하는 일의 성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공무에 준한다.” 강웅섭, “한국 개신교회의 ‘개교회화’에 관한 소고,” *한국조직신학논총 제50집*(2018), 38.

²⁶ public theology는 공적신학 혹은 공공신학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같은 뜻으로 함께 병용하기로 한다.

²⁷ 장신근,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28.

신학은 하나님 나라의 기능으로서 사회안에 있는 삶의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및 생태학적인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정치신학과 문화신학, 생태신학과 자연신학에서 보여 질 수 있다.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사회의 공적인 일들에 참여하는 공적인 신학이다. 바로 이 신학은 공적인 일들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그리고 예언자적으로 참여한다.²⁸

그러면 공적신학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공적신학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마틴 마티(Martin Marty)이다.²⁹ 마티는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신학의 특징을 지칭하면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 이후에 공적신학은 니버와 같은 신학적 성향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곧, 종교를 사회적 삶과 유리된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섬이 되려는 신학에 반대하는 신학이 공적신학인 것이다. 또한 마티는 공교회(public church)³⁰라는 용어도 처음 사용하였는데, 본인이 1981년에 쓴 그의 저서 *The Public Church* 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므로 마티에 의하여 니버는 공적신학자가 되고 공적신학의 아버지가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만을 살펴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니버로부터 공적신학이 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적신학의 기원에 대하여 이형기는 니버 이전에 이미 선구자들이 있었다고 말한다. “19세기 영국의 킹슬리와 모리스, 미국의 라우센부쉬, 19세기말 스위스의 쿠티와 라가츠,

²⁸ J. Moltmann, *A Passion for God's Reig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51-52.

²⁹ Martin Marty, *The Public Church: Mainline-Evangelical-catholic*, (New York: Crossroads, 1981), 122.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5에서 재인용.

³⁰ "마티에 의하면 공교회는 '공동의 삶에 대하여 초월적 가치를 붙어넣어야 한다는 책임을 가진 일련의 종교'라고 하였다.", 마티가 주장한 "공교회"는 공적신학을 지향하는 종교(카톨릭, 유대교 등), 교파, 교단을 초월한 모든 교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Ibid.

블룸하르트와 같은 사회복음주의자들이야 말로 오늘의 공적신학의 선구자들이다.”³¹ 또한 장신근도 공적신학의 기원을 살피면서 그 기원은 종교개혁자들을 넘어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나 교부인 어거스틴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바울과 예수님에게까지 그 기원은 올라간다고 말한다. 이처럼 공적신학이 언제 시작되었다 혹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공성 자체만 두고 보았을 때에는 단정짓기 어렵다. 여하튼 니버로 인하여 출발한 공적신학에 대하여 알아보면, 니버에게 공적신학이란 그의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라는 책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적인 개인의 개인주의와 공적인 국가의 비도덕성이 대립할 때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교회나 시민단체를 공적 단체라고 불렀고 그러한 일에 기여하는 신학을 공적신학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니버가 국가안에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곳은 국가나 일반 시민이 아니고 제삼의 단체 곧 교회임을 드러내었기에 중요한 통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니버 이후로 현대의 미국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공적신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상관관계 모델” (데이빗 트레이시, 단 브라우닝)이다. 여기에서 공적신학이란 교회와 세상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질문들 혹은 인간과 세계 가운데 근본적인 질문들, 발생한 문제들을 두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트레이시는 이를 “신학의 공적 담화 기능의 회복” 이라 말하고, 공공성의 다리로서 “고전(전통)” 을 제시하고, 브라우닝은 “실천신학의 공적사명” 이라고 말하고 공공성의 다리로서 “보편적인 실천도덕” 을 말한다.³²

³¹ Ibid., 115.

³² Ibid., 47-49.

두번째 “비판적(실천적) 상관관계 모델” (메튜 램, 레베카 찰)이다. 이 모델에서의 공적신학이란 한 마디로 사회 해방이다. 램은 “공적이라는 용어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소외와 왜곡을 비판하면서 인간 해방을 지향하는 바른 실천”³³이라고 말한다. 찰은 램의 이론이 백인 중산층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좀 더 실천적인 공공성을 강조한다.³⁴

세번째 모델은 “절충적(ad hoc) 상관관계 모델” (로널드 씨먼, 찰스 캠벨)이다. 이 모델은 가장 기독교적 입장의 전통을 지키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씨먼은 “기독교적 확신과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콘텍스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³⁵이라고 말한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인 캠벨은 설교학의 공적인 사명을 강조한다. 캠벨에게 있어 설교학의 목적은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설교의 목적은 개인을 실천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회전체를 공동체화 하고 그 공동체가 정치적 공동체에도까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³⁶ 여기에서 설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로부터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야 하며 설교의 언어는 상징적이기 보다는 실천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설교는 담론의 세계를 형성하여 공동체를 그 세계의 중심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어를 어떻게

³³ Matthew Lamb, *Solidarity with Victims: Towards a Theology of social Transformation* (New York: Crossroads, 1982), 14.

³⁴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9-51.

³⁵ Ronald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21.

³⁶ 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349.

사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청중을 양육시켜 갈 수 있다”³⁷ 필자의 논문은 캠벨의 이러한 접근과 유사하다. 교회의 공공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교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신학에 대한 다양한 적용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세계와의 관계안에서 다양한 접촉점들이 있기에 공적신학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의 어떤 하나를 “공적신학의 모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 신학의 역사속에서 교회가 보여준 공적 역할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변증적 기능, 정치적 기능, 비판적 기능, 사회변혁적 기능, 해방적 기능, 대화적 기능”³⁸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 모두를 넓은 의미에서 공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공적신학의 범위를 확장했을 때 나타나는 공적신학의 역할을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신근은 “공적신학이란 무엇인가?” 에서 신학의 공공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신학의 공공성을 변증적인 측면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경우이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톨리히, 트레이시, 브라우닝 등과 같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공공성의 영역은 기독교 신앙의 이해 가능성, 문화와의 대화 가능성, 인간의 보편적 이성, 일반 은혜, 창조의 규칙성 등이다.

둘째, 신학의 공공성을 사회 변혁적인 측면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경우이다. 카이퍼, 라우센부쉬, 본회퍼, 바르트, 해방신학, 몰트만, 포레스트, 드그루시, 램, 찰, 김경재가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공공성의 영역은 사회적 약자들의 옹호, 사회적 불의에 대한 심판의 선언, 정의로운 공동체의 구현이다.

셋째, 신학의 공공성을 기독교적 정체성과 연관하여 이해하는 경우이다. 씨먼, 캠벨, 한스 프라이, 조지 린드백, 스탠리 하우와스가 여기에 속한다. 먼저

³⁷ Ibid., 233-34.

³⁸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27.

기독교적 정체성이 확립될 때 공공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신학의 공공성을 시민사회와 연관된 공공 영역에 대한 공헌에서 찾는 경우이다. 라인홀드 니버, 스텍 하우스, 도모아키 후카이 등이 여기에 속한다.³⁹

이렇게 공적신학은 여러가지 입장을 가지고 세상과 접촉하며 세상에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시영은 “공적신학은 시민 사회속에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에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통한 소통의 노력이다”⁴⁰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형기는 간단하게 “공적신학은 교회밖에서 일어나는 공적 이슈들을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⁴¹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좀 더 과격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어떤 이들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인식하는데서 이 모든 논의가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의 신학적 논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라는 것이다. 몰트만도 “하나님 나라는 이 세계의 공공복리를 위한 성서의 희망에 대한 포괄적 지평이다” 라고 말한다.⁴² 장신근은 결론적으로 공적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를 시도해 보면 아래와 같다고 말한다.

공적신학이란 성경과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실천의 사사화 현상에 직면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하에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공적 신앙 양육과, 공적 공동체로서의 공교회 형성을 통하여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여러 차원의 공적 삶을 형성하고 변형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이 확고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³⁹ Ibid., 70-73.

⁴⁰ Ibid., 148.

⁴¹ Ibid., 118.

⁴² J. Moltmann,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351.

여러 차원의 공적 삶에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가치관을 다른 전통이나 학문과의 대화를 통하여 제시하고 이를 변형시켜나가는 데 기여하는 신학이다.⁴³

필자는 이러한 정의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사사화” (privatization)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라는 용어라고 본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제시와 바른 이해가 기독교의 사사화를 막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저수지와 같은 원동력을 제공하리라 여긴다.

교회의 공적책임 실천의 역사

로드니 스타크의 책 「기독교의 발흥」은 예수님 부활이후 탄생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이로운 성장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하여 소개한 책이다. 서기 40년 로마제국의 기독교인 수는 대략 1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300년이 지난 후에 3천 3백만명이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되어 있었다. 당시 로마제국의 전체 인구가 5천 6백만명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는 매년 40%에 해당하는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하여 스타크는 사회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 이유를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김영래의 요약을 토대로 필자의 관점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⁴⁴

첫째, 스타크는 기독교가 당시 로마의 종교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면서도 차별적인 신론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르침에 기반한 독특하고 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한다. 기독교의 교리와 말씀들이 기독교인들을 이교들과는 다른 공동체성과 윤리와 공공성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교도의 신은 인간의

⁴³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79.

⁴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25910> (2020년 3월 1일 접속) 참고.

일에 무관심하고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진 사랑과 자비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해야만 하는 근거가 되었고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이웃과 타민족까지 품어 내는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다.⁴⁵

둘째, 스타크는 기독교의 독특한 신학과 가르침에 기반한 신앙 가운데서 외형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공동체 안에서의 실천적 돌봄과 나눔과 구제였다고 말한다. 서기 165년에서 180년까지 로마제국에는 로마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역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인의 생존율이 이교도인의 생존율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서로를 돌보아주고,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⁴⁶

셋째, 스타크는 기독교의 부흥의 원인으로 기독교가 가진 여성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지적한다. 당시 로마에서는 미성년 결혼이 의례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성을 상품화하고 노예화 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기독교 여성들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을 뿐 아니라 빈번한 낙태로부터 보호받았으며, 여자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죽이지 않고 키울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이 순결하게 유지됨으로 이혼율이 낮았고 출산율도 높았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내의 여성의 지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차별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⁴⁵ Rodney Stark, *기독교의 발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318-91.

⁴⁶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기적을 행하여서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가 성장해야 한다고 천명해서도 심지어 순교자들이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도 아니었다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치열한 공동체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Stark, *기독교의 발흥*, 311.

모습이었다.⁴⁷

넷째, 기독교는 인종차별이나 민족차별, 신분차별이 적었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를 가졌다는 점이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로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이는 국제 도시가 되었고, 문화적, 민족적 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심한 갈등과 분열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는 유대교나 타종교들이 보이는 배타성보다는 개방성을 보여주었다.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민족적 유대를 단절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고유한 민족의 문화나 식습관 등에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종을 하기 용이했다. 또한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가진 열린 수용성으로 인하여 누구나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나중에 세계 시민적인 규범과 관습을 요구하는 로마 제국의 국가종교로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다섯째, 기독교는 높은 수준의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로마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기독교인들은 동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형 경기장 유희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칼과 무력과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생명을 존중히 여겼고 인간 경시 사회에서 인간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였다.⁴⁸

스타크가 보기에 기독교는 당시 로마의 타종교들보다 공동체성이 강했고, 거룩한 문화를 가졌고, 이웃에 대하여 관대하였고,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있었다.

⁴⁷ Ibid., 195.

⁴⁸ Ibid., 321-22.

그렇기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안에서 매년 40%의 성장을 이루었고 로마 제국의 국가종교가 될 수 있었다. 스타크는 이러한 사회학적 연구를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기독교 부흥의 최종 원인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기록하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 발흥의 궁극적 요인 ~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매력적이고 해방적이며 효과적인 사회관계의 조직을 촉발하고 지탱했다 나는 이 종교의 독특한 교리가 기독교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재활성화 운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 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기독교의 발흥은 이 교리가 실제로 삶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조직과 개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 결과다 ~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회심자에게 선사한 것은 그들의 인간성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되었다.⁴⁹

스타크는 기독교 발흥의 궁극적 원인은 “교리” 곧 “말씀”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교인들의 삶에서 “미덕” 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스타크의 통찰은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서 공적인 말씀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또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희생과 나눔과 평화,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일 때 교회가 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음도 보여준다.

두번째로 필자가 살피고자 하는 교회의 공적 실천에 대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안에 나타난 공공성이다. 한국기독교회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특별히 미국으로부터 장로교와⁵⁰ 감리교⁵¹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선교사들이 당시 쇄국정책의 한국에

⁴⁹ Ibid., 317-23.

⁵⁰ 언더우드, 로버츠, 마펫, 베어드, 리, 스왈튼, 아담스, 클라크. 김승태, 박혜진,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⁵¹ 아펜젤러, 데밍, 노블, 스웨어러, 웰치. Ibid.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고종이 서양 문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학교와 병원 등 공적인 영역에서의 봉사를 요구했고 선교사들은 그 요구에 응하였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 갈 수 있었다. 이후로 한국 기독교는 사회의 공적 기관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기독교 성장에 매우 중요한 기저 효과가 되었다.⁵²

구한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두 가지 방향에서 교회의 공공성을 드러내었다. 하나의 방향은 “윤리차원의 개혁운동”이며 하나의 방향은 “정치(민족)차원의 개혁운동”이다.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받아들인 사람들(서상륜, 백홍준, 김청송 등)은 교회를 통하여 윤리 차원의 사회개혁에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를 개화 운동을 위한 사상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사람들(서재필, 윤치호,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등)은 국가 정치 차원의 개혁에 영향을 미쳤다.⁵³

먼저 윤리차원의 개혁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한국교회는 기독교로 인하여 “종교윤리 차원의 사회 개혁운동”을 경험하게 된다.⁵⁴ 당시 한국 사회는 우상과 미신이 만연하던 사회였다. 유교 국가라고 하지만 유교가 채워주지 못하는 종교적인 영역은 무속신앙이 채우고 있었다. 복주와 토주 및 심신 향아리를 가지고 있었고 무당과 관수, 풍수지관을 의지하였다. 이 모든 우상과 미신의 문화가 기독교의 교리(십계명의 제 이계명)에 근거한 믿음에 의하여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로

⁵²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27-29.

⁵³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송길섭, *한국기독교사상사*,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연구*는 기독교 초기부터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고 본다.

⁵⁴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385-87.

조상제사 거부의 운동이다. 한국은 유교를 500년 동안 섬겨오던 나라였기에
 집집마다 조상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조상을 잘 모시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조상숭배를 우상숭배적 측면이 있다고 반대했고
 제사 폐지를 가르쳤다.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의 반대였지만 결과적으로 반봉건적
 사회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지는 역할도 하게 된다.

“개인윤리 차원의 개혁운동” 도 일어난다.⁵⁵ 술, 담배, 아편은 기독교가
 수용되기 이전부터 나라의 큰 폐단이었다. 기독교의 교리는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
 문화를 죄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변화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술, 담배, 아편을
 죄로 여기는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둘째, 혼례 문화와 장례 문화의
 개혁이 일어났다. 조선시대의 오랜 구습이었던 조혼과 부모에 의한 타의적 결혼
 제도가 조혼 금지와 자의에 의한 결혼과 남녀 평등에 입각한 결혼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당시 교회는 혼인 연령을 남자는 17세, 여자는 15세로 정함으로 조혼
 문화를 개혁하고자 했다. 또한 교회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머리를 풀고 크게 울고
 허례허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3년이나 부모의 무덤을 지키던 것을 금하고, 목회자에
 의하여 장례를 진행하되, 장례 절차를 간소화하고, 큰 울음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였다.

“사회윤리 차원의 개혁운동” 도 일어나게 된다.⁵⁶ 교회는 여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선다. 남존여비의 유교적 가정윤리가 지배하던 시대에 교회는
 남녀가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가르쳤고, 가정안에서도 여성을 업신여겨서는
 안된다고 가르쳤다. 또한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교육의 기회도

⁵⁵ Ibid., 388-91.

⁵⁶ Ibid., 391-95.

제공하였다. 둘째, 교회는 신분제도의 타파에 앞장섰다. 사농공상이 뚜렷하던 시기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가르쳤고, 이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노비를 해방시켜 주는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다. 또한 당시 가장 천하게 여김을 받던 백정을 전도하여 교인이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는 일들도 교회안에서 일어났다. 셋째는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이다. 기독교인들은 지방의 관리들이 불의 하게 세금을 징수할 때에 중앙정부에 상소를 올리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지방관이 파직되는 일도 일어난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방관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 부임하기를 꺼리게 된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사회와 국가의 공적인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매우 파격적이고 해방적이고 개혁적이어서 자연스럽게 삶과 마을과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두번째로 기독교를, 개화를 이루기 위한 사상적 동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의하여 일어난 정치적 차원의 “민족 운동”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민족 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기관중 하나는 “독립협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독립협회는 서재필에 의하여 세워진 단체였는데, 서재필은 개화파 인사로 당시의 사회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 갑신정변 이후 외국 망명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서재필은 귀국 후 독립신문을 통해 백성들을 계몽하는 일에 주력하고 조선이 처한 정치적 어려움과 외세에 대한 정보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역할을 감당한다. 중국의 사신을 맞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건립함으로써 자주 국권에 대한 애국의 마음을 가지게 하고, 독립협회를 통하여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독립협회의 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한다. 독립문을 세울 때 대표적 기독교 학교인 배재학당 학생들이 축가를 하고 선교사 아펜젤러가

기도를 하였다.⁵⁷ 자주, 민권, 내정개혁의 문제로 모인 만민공동회가 열렸을 때에는 강사로 백정 출신 기독교인 박성춘 장로가 강사로 참석하여 연설하기도 했다.⁵⁸ 독립협회에 참여한 많은 저명한 정치가들과 개혁 세력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이승만, 이상재, 박승봉, 이원궁 등이 있다.⁵⁹ 독립협회 활동은 한국 초기 기독교회가 반봉건, 반외세의 민족 운동에 참여한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교회는 가장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적책임에 참여한 많은 예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교회의 공적책임과 공공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을까? 1990년부터 교회의 성장은 멈추기 시작했고, 뚜렷한 정체현상이 나타난 2000년대에 조사된 설문 조사들에 따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공공성의 전통이 100여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계승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으로서 임희국은 한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매여 있었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중 하나로 1930년대 농촌운동기간(1928~37)에 장로교 총회의 농촌부가 추진한 농촌운동에 대하여 말한다. 당시 총회는 농촌교회를 돕고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농촌운동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고, 결국 농촌운동은 실패하고 총회의 농촌부 자체가 폐지되게 된다. 반대자들의 주장은 단순했다.

⁵⁷ 독립 신문, 1896년 11월 24일.

⁵⁸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142-43.

⁵⁹ 주진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의 구조와 전제,” 학림 8 (연세대사학연구소, 1986), 69-105.

“교회는 영적 사업을 하는 곳이므로 농촌문제에 절대로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⁶⁰는 주장이었다. 교회는 기도와 전도와 예배를 하는 곳이지 세상일과 사회일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이분법적인 신앙 양태가 1930년에 이미 교회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김인서는 농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신앙과 밥의 문제를 따로 구별하고 신앙과 농촌운동을 따로 떼어 놓고, 신앙을 우선적으로 앞세워야 하며, 기도하여야 할 예배당에서 도야지 기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으면 교회도 망하고 농사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소수의 교인과 다수의 불신자가 예수교적 협동조합을 함께 할 수 없다.⁶¹

이렇게 한국교회는 초기 한국교회가 가졌던 공공성을 상실하고 점점 세상과 분리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후 일제 통치하의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 교회는 신앙과 거룩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었고, 교단 분열과 분쟁이 시작됨으로 바깥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였고, 신학과 신앙의 관심은 종교적 순수성과 거룩의 문제에 국한되었다. 6.25 전쟁 이후 교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반공, 반자본, 반미, 반소의 대결 구도의 문제에 천착하여 교회의 분열은 더욱 격화되었다. 남한의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신학은 급진적이며 사회주의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것이 되어서 배척되었다. 교회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파도를 피해 점점 더 세상과 분리되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초기 한국 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공적책임을 계승하는 방향으로 교회는 나아가질 못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⁶⁰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45.

⁶¹ 김인서, “농촌부폐지론,” (*신앙생활: 제4권1호*, 1935), 1.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봉사과 구제와 시민단체와 사회적 공공성을 위하여 헌신하는 단체들은 불교도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이다. 교회가 공적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부인할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내리고 있는 평가이다. 많은 설문 조사에서 교회는 아주 나쁜 점수를 받고 있다. 이것도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임희국은 교회가 많은 공적인 일들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사회의 공적책임에 대한 분명한 의식(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그때 그때마다 임기응변식 프로그램으로 사회봉사에 나섰기 때문이고 분석할 수 있다 ~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까닭은 교회의 존재방식에 대한 의혹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물량적 성장에 몰입해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의혹이다.⁶²

교회가 존재 방식, 그 내부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 교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보여주기 식의 공공성을 아무리 나타내어도 그것은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임희국은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와 근원적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회의 공적책임 수행은 분명한 신앙고백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공적책임은 신앙의 문제이자 신학의 주제이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는 교회 자신이 먼저 그 말씀으로 깊이 성찰하며 교회의 현존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⁶³

임희국은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이며, 신학의 문제이며,

⁶²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50.

⁶³ Ibid.

말씀(설교)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장로교 선교사 찰스 클락(Charles Clark, 객안련)은 초기 한국 교회가 적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첫번째 이유로 “선교사들이 신학적으로 보수주의적 견해를 견지했다는 점”⁶⁴ 때문이었다고 분석한다. 찰스 클락이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심과 순종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를 따르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한국 상황에서 문자적이고 보수적인 말씀의 가르침은 오히려 가장 진보적인 말씀들이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였고, 그 헌신과 결단들은 종교적, 윤리적 차원의 많은 사회 개혁을 이루었고, 정치적 차원의 민족 개혁에까지 동참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명배도 이러한 초기 한국 기독교가 교회의 공적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신앙이라고 말한다.⁶⁵

한국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의 회복, 신앙과 신학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러한 강조는 앞에서 살핀 로마 교회의 부흥 분석과 일맥 상통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공공성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달려 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루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가르침이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교회는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⁶⁴ Charles A. Clack, "Fifty Yeares of Mission Organization, Principles and Practitice" (in Rhodes and Baird), 56.,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93에서 재인용.

⁶⁵ 이형기,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402-11.

되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론에서 성경 전체의 큰 주제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피고자 한다. 교회의 본질과 공공성의 회복은 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너무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되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이해되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하나로 오해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좀 더 성경적인 접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바들이 무엇이며, 교회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 알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대 위임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III 장

통으로 보는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의하여 가르쳐지고 증거 되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의하여 성취된 나라이고 또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선취한 나라이다. 여기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은 그 앞의 불완전한 어떠한 것을 완성했다는 말이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 예표 된 어떤 나라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도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전에 먼저 구약성경의 제사장 나라를 말하고자 한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구약성경의 제사장 나라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의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약이라고 하면 율법이나 외식, 저주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다. 구약에도 신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안에 담긴 진리가 다를 수 없으며 연속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통으로 보는 작업이 가능하며, 이러한 통일된 관점을 통해 성경 전체를 살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용어적 고찰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출발한 나라인지를 살피고, 이어서 제사장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외형적인 형태를 살핌으로 제사장 나라가 왜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추구한 가치와 목적을 세가지 측면에서 살핌으로 제사장 나라가 가진 공적인 측면을 말하고자 한다. 끝으로 제사장 나라의 위기속에서 등장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신약성경을 펼치게 될 때 비로소 많이 발견되는 말이다.⁶⁶ 네델란드 신학자 헤르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신구약 중간기 후기시대의 유대 문헌들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관용구가 된 때는 신약시대라고 말한다.⁶⁷

이렇듯 하나님 나라라는 관용구가 성경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곳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이다.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증거한 말씀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용구에 대한 개념 정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대부분 일상

⁶⁶ 복음서에 113회가 나타난다. 그중 예수님이 직접 언급한 것은 72회이다. 그 외 신약성경에서는 29회 나타난다.

⁶⁷ Herman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35-39.

생활과 관련된 비유로 이루어져 있거나 혹은 종말론적인 비밀이나 결단과 연결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대하고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된다. 만약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이해와 그림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기본적 설명” 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은 기본적 설명 자체가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무의미 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통적 사고들이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⁸ 구약성경을 통해 이미 제시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과 청중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정체성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은 구약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 래드(G. E. Ladd)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고 말하며,⁶⁹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구약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약의

⁶⁸ Norman Perrin,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훈영, 조호연 역 (서울: 솔로몬, 1992), 69, J. Bright, *하나님 나라*,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5), 251, Ridderbos, *하나님 나라*, 38에서 재인용.

⁶⁹ G.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성수 역 (서울: 개혁출판사, 2017), 147.

전반적인 계시와 일치한다고 말한다.⁷⁰ 또한 김성수는 하나님 나라는 족장들에게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⁷¹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곧 구약의 하나님 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⁷²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 나라 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용어는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첫째, “여호와와 나라” (말쿠트 야웨)라는 용어가 대응될 수 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5절에 여호와와 나라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와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새.” 또한 역대하 13장 8절에도 여호와와 나라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와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이 두 구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와 나라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와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다윗 왕가가

⁷⁰ Geerhardus Vos, *하나님의 나라*, 정정숙 역 (서울: 개혁출판사, 2017), 27.

⁷¹ 김성수,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학정론 제21권*, 1993), 336.

⁷² 김세윤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4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창조 사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나라이다. 역사를 넘어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나라이다. 둘째는 “타락 사상”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운 아담이 타락함으로 대리자적 역할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다. 셋째는 “언약 사상”이다. 모든 왜곡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약으로 나타난다. 특별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은 특권과 사명으로 작용한다. 이 언약 체결후 모든 죄의 척도는 언약의 율법이 된다. 네 번째는 “종말 사상”이다.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며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공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룬다. 김세윤,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222.

통치하는 남왕국 유다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까지도 “여호와와 나라” 기원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주의 나라” (말쿠테카), “내 나라” (말쿠티), “그의 나라” (말쿠토)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응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나라” (말쿠트)라는 단어가 “하나님” (야웨)을 뜻하는 인칭대명사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용어들이다. 시편과 다니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⁷³

셋째, 하나님을 “왕” (멜렉)으로 표현한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개념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응하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본문들은 구약성경에 매우 편만 하게 나타난다.⁷⁴ 이처럼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의 하나님 나라에 대응하는 동일한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미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용어들이 지시하는 역사적 실체(realization)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한 나라가 야곱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고(창32:28, 35:10), 애굽에서의 400년을 지난 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⁷³ 시 45:6, 시 145:11-13, 대상 17:14, 단 4:34, 단 7:27, 시 103:19.

⁷⁴ 137. 출 15:18, 민 23:21, 신 33:5, 삼상 8:7, 삼상 12:12, 사 6:5, 사 24:32, 사 41:21, 사 43:15, 사 44:6, 사 52:7, 렘 10:7, 렘 48:15, 렘 51:57, 겔 20:33, 미 4:7, 습 3:15, 습 14:9, 4:16, 4:17, 말 1:14, 시 5:3, 시 10:16, 시 29:10, 시 45:5, 시 47:3, 43:7, 43:8, 43:9, 시 48:3, 시 68:25, 시 74:12, 시 84:4, 시 93:1, 시 96:10, 시 97:1, 시 99:1, 시 145:1, 시 149:2. W. Willis, *하나님의 나라: 20세기의 주요해석*, 박태규, 안재형 역 (서울: 솔로몬, 2004).

된다. 이스라엘이 곧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실체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의 모든 제도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어 하나님의 나라로서 출발한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그 출발을 이렇게 증거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19:5)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매우 특별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사장 나라” 라는 말이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19:5~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고 계신다.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라는 별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어떠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며, 이스라엘이 세계속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과 다른 특별한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진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였다.

왜 제사장 나라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는가?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샘플로서 크고 강하며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나라는 이 세상의 많고 많은 나라와 다를 바가 없는 나라였는가? 하나님께서도 크고 강대한 제국적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가 되지도 못하였고 큰 민족으로 성장하지도 못하였다. 단지 중동의 작은 땅을 차지한 채 오히려 수없이 많은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조병호는 「성경과 5대제국」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은 제국적 나라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⁷⁵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던 다윗도 130만의 상비군이 있었고 제국이 되기에 충분한 경제력 또한 갖추고 있었지만 제국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한다.⁷⁶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 나라의 첫 출발이 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속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대한 말씀이었다.

⁷⁵ “제국은 민족을 계급화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동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합니다. 레위기법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공급받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국은 경제와 국방 문제를 축으로 주변 온 나라를 흔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열한 정책이 바로 제국의 본질인 것이지요.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키워드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28-29.

⁷⁶ Ibid., 350-5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12:1~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자신만 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나라였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나라는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빼앗는 제국적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의 나라였던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약속안에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있음을 잘 보여준다.⁷⁷ 조병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안에 제사장 나라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질 한 민족,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펼쳐지는 성경의 거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의 복의 통로인 ‘제사장 나라’ (A Kingdom of priests)를 그때부터 이미 꿈꾸셨고,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⁷⁸

복의 통로이며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의

⁷⁷ “이스라엘의 해방(바벨론으로부터)은 모든 민족들의 구속을 포함하고 있다. 이 주제는 아브라함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장차 자신이 받을 복을 양보해야 하는 이야기가 담긴 이스라엘의 서사시(창12:1~3)에서 이미 선언되었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창조주로서 광범위하고 세계를 포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하고자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야훼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Bernard W. Anderson,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노항규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576.

⁷⁸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4.

역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두 번째 그림은 시내산에서 제시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신다(출19:6).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속에 압축하여 표현하심으로 이 나라의 존재 이유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신다. 제사장 나라는 히브리어 “맘멜레케트 코하님”이다. 이 어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만 나타난다. 이 어구는 두 단어의 조합이다. “다스린다”는 의미를 따라 “왕” 혹은 “나라”, “통치”를 뜻하는 “맘멜레케트”와 “제사장들”을 뜻하는 “코하님”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제사장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며, 둘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며, 셋째는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해석이 출애굽기 19장 6절의 해석이며, 둘째 해석은 칠십인역의(LXX) 헬라어 번역을 거치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고 있다.⁷⁹

첫 번째, “제사장 나라”로 번역한 해석은 “맘멜레케트”를 “코하님”에 연결된 연계형으로 읽는 해석이다. 그러면 “제사장의 통치” 혹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번역이 된다. 이 해석을 따라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도출되었다. 스코트(Scott)는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바는 뒤이어 나오는 문장인 “거룩한 백성”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직분 같이 “거룩히 구별된 나라”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며,⁸⁰ 갈링(Galling)은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들 중 가장 중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예배하는 행위에 비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라는 의미로 제사장 나라를 해석해야

⁷⁹ 한성천, 김시열,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2*(서울: 제자원, 2006), 357.

⁸⁰ John I. Durham, *WBC성경주석3 출애굽기*, 손석태,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1), 441.

한다고 말한다.⁸¹ 카일(Keil)과 델리취(Delitsch)는 제사장의 중재자적인 역할에 비중을 두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인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땅 위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구원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⁸²고 해석한다. 카일과 델리취는 제사장 나라는 “중재적 나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해석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제사장의 역할과 다양한 직능에 따라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실재적 “세력”으로 해석하여 제사장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해석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해석과 관련된 해석이다. 이 해석은 “맘멜레케트”를 “코하님”의 연계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절대형으로 읽는 해석이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나라” 혹은 “제사장들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라는 의미가 된다. 이 해석에 따라 바우어(Bauer)는 “여호와와 왕권”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제사장 나라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란(Moran)은 이스라엘이 왕국의 형태를 이루기전에 제사장들이 왕의 권한을 가진 나라를 표현한 것이 제사장 나라라고 해석한다.⁸³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제사장 나라가 주는 의미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직책에 의미를 둔 해석으로 제사장이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이며, 또 다른 의미는

⁸¹ Ibid.

⁸² C.F. Keil and F. Delitsch, *Commentary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Eerdmans, 1973) 98. 김희권, “제사장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0), 63에서 재인용.

⁸³ Durham, *WBC성경주석3 출애굽기*, 441.

제사장이 가진 직능에 의미성을 둔 해석으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필자는 위의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전자를 제사장 나라의 외형적인 형식을 결정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며 후자의 해석을 제사장 나라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규정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의 직능적 역할 가운데 어떤 기능을 제사장 나라에 적합한 해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위에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제시되었다. 거룩의 측면, 예배 공동체적 측면, 중재적 측면, 이 세 가지의 측면 모두가 다 제사장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중에서 특별히 카일과 델리취가 주장한 제사장이 가진 “중재적-중보적-대리적 의미”에 주목한다. 이것은 조병호가 통으로 본 제사장 나라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 해석은 제사장 나라의 밑그림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도 가장 부합하는 해석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급한 세계 열방 가운데 부르심의 의미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 분리와 선택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분리와 선택은 필연적으로 “대리적-대표적 성격”을 가진다. 다수를 대표하는 단수로 선택되었던 것이지 다수를 소외시키는 단수로 선택되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언제나 특별한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선택의 이유인 것이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도 그들을 열방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거룩한 제물로 구별된 “고르반” (제사 예물)들도 범죄한 타인을 위하여 선택되었던 것이며, “레위 지파”를 거룩히 구별하여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신하여

선택한 것이다.⁸⁴ 제사장 나라의 용어를 “왕같은 제사장들” 이라고 번역한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러한 선택의 이유가 “대리적-대표적-선교적” 인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2:9)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며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이다. 제사장 나라는 제국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는 오직 “아름다운 덕” 곧 “복음” 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신 나라이다. 조병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정리한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복 주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 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레위 지파 한 지파가 헌신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과 소통하게 했듯이, 이스라엘 한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헌신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⁸⁵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두 그림을 함께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나라인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함으로

⁸⁴ 김희권, “제사장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63.

⁸⁵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5.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⁸⁶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참된 본질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통하여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역사속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웃 나라들에 동화되어 갔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웃 나라들의 거센 공격 앞에 자신을 방어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기 중심적 거룩의 측면이며, 하나는 타인 중심적 중재적 측면이다. 거룩의 측면은 마치 달걀의 껍질과도 같이 그 안에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중재적 측면은 그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껍질은 세상으로부터 신앙의 생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생명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족에 동화됨으로 혹은 이민족의 침략으로 자신들만의 신앙의 생명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거룩의 껍질을 단단하게 하고 그 거룩의 껍질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였다.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사명에 실패하게 만들었다.

⁸⁶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4), 19.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 나라라고 말한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넷째,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섯째,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⁸⁷

조병호가 제시한 이 다섯 가지 특징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병호가 제시한 이 다섯 가지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제사장 나라의 용어 정의에 따라 구분해 보면, 첫째와 다섯째는 “제사장의 직책에 방점을 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둘째와 셋째와 넷째는 “제사장의 직능에 방점을 둔 해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와 다섯째는 “제사장 나라의 외형적 형태(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해 주는 것이며 둘째와 셋째와 넷째는 “제사장 나라의 내면적 내용(의미)”에 대하여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느 한쪽만을 제사장 나라라고 여기고 한쪽을 버리게 되면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제사장 나라는 그 형식을 통해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내용을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나라이다. 제사장의 직책과 직능적 관점을 통합하여 이해하고, 한 나라가 가지는 외형적인 형태와 내면적인 내용 모두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⁸⁸ 먼저 제사장 나라의 외형적 형태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고 이후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⁸⁷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47-48.

⁸⁸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9-90.

우선 “나라” 라고 하면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때 나라가 구성된다고 말한다.⁸⁹ 이 세 가지 외형적인 모습을 이스라엘의 시작에 적용해 보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부터 제기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언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나라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유념하여 구약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최초의 형태를 갖추고 출발한 때가 출애굽 부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낸 때였다. 이스라엘은 20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적 집단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럴 때에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한 나라의 출발이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국민이 준비되어진 나라로서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나름대로 통치 지배 구조, 곧 정부 형태를 결정한다. 이것이 주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만의 영토를 갖게 됨으로 이스라엘은 온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었을 때 국가라고 부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출발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병호는 이스라엘의 출발을 출애굽의 시작이 되는 유월절 밤부터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이스라엘의 첫 시작으로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출12:1~2) 하나님은 출애굽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모든 왕조나 나라가 시작될 때 연호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⁸⁹ 대한민국의 헌법도 제 1조는 주권을 다루고 제 2조는 국민을 다루고 제 3조는 영토를 다루고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019년 12월 27일 접속).

또한 유월절 사건이 가지는 결정적 중요성은 “독립”과 “주권의 회복”에 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로 출애굽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는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 의식으로서 내재화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말한다.

이제 제사장 나라 백성의 탄생 과정에서 아주 관련이 깊은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양에 대하여 고찰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라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가게 하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땅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삭을 자녀로 주시고 막벨라 굴이라는 작은 땅도 소유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크고 광대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적 상황은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미약한 가운데 시작된 “큰 민족과 넓은 땅”에 대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안에서는 그 모든 언약들이 현실이 되어갔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400년이 지난 후에는 남자만 60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집단이 된다. 이렇게 히브리민족이 거대한 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동안 거주하게 하신 이유는 나라를 구성할 만한 큰 인구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충분한 인구가 형성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울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리되는 일이 빵을 쪼개 듯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독립은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힘겨운 사투는 열 가지 재앙의 이야기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열 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분리를 일으키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 유월절 밤에 일어난 장자의 재앙 사건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날은 유대력 1월 14일 밤이다.⁹⁰ 이 날이 유월절(pass over, 페사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지나쳐 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 어린양을 잡아 피를 집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들의 장자를 모두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애굽 왕은 승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독립을 쟁취하게 된다. 이처럼 유월절은 외세의 압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된 독립의 날이며 동시에 건국기념일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유월절이 가지는 본질적 의미의 중요성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이다. 유월절 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뼈를 꺾지 아니한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과 그 피의 표시”라는 점이다. 누구든지 그날 밤에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 단순한

⁹⁰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1월 14일 밤은 유대력 1월 15일이며 유월절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사실을 믿고 이 대속적 죽음의 표시에 동참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되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어린양의 죽음과 장자의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 내실 때 꼭 장자의 죽음이라는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애굽의 바로왕의 의지를 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택하셨고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도피하는 방법으로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조건을 내어 거셨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에 있었다면 이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매우 특별한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부터 이러한 장자의 죽음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출4:21~23).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것과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계획되어진 출애굽의 청사진이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열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 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내 장자인데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기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장자를 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처럼 유월절에 장자의 죽음이 준비되어지고,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이 준비되어진 것은 “죽음” 과 “생명”, “옛 삶” 과 “새로운 삶” 에 대한 뚜렷한 구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 로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생명” 을 가진 “새로운 민족” 으로 출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디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나라로서 연장에 서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퍼포먼스(유월절)가 준비되어졌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으로 시작된 나라이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 곧 “은혜의 나라” 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다.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이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 유월절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 이후라면 그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혈통적 요인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동질적 사회 문화적 배경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의 피를 묻히고 있느냐? 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나 거류인이나

노예와 같은 전혀 다른 혈통(피)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월절에 참여하여 어린양의 대속적 피에 관계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좀 더 분명한 사실적인 측면도 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유월절 밤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12:38) 이 “수많은 잡족” (예레브 라브)의 원어적 의미는 “섞인 다수, 혼합된 다수” (mixed multitude)를 의미한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도 출애굽에 동참하여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한 이 잡족의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의 첫 번째 유월절 식사에 같이 참여하였던 사람일까? 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들은 이 첫 번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바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켜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으로 인정하고 이 민족적 공동체의 탈출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방인들이 첫 번째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유월절 식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유월절과 무관한가? 라고 했을 때 그렇치 않다는 것이다. 엄연히 이들도 큰 그림의 유월절 밤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다. 이 잡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을 했고 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금하거나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출애굽한 큰 무리의 사람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섞인 무리들이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유월절의 대속적 죽음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필요가 있었기에 유월절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게 하여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다. 이 말씀은 출12:43~49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스라엘의 첫 출발이 되는 유월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의 대속에 있다. 태어날 때 어떠한 피를 물려 받았느냐? 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며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오직 어린양의 피가 있는 백성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유월절 구원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과 피가 구원을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직 은혜로 선택되어진 백성이다. 자신만의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에 대한 해석은 나만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기는 선민의식에 빠질 수 없게 만들고, 세상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할 수 없게 만든다. 제사장 나라는 율법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기초한 나라인 것이다.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의 기초이자 출발이다. 이것을 알 때에 율법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적 의미를 깨닫기까지 1000여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양의 은혜는 한계를 가진 은혜였다. 이후에도 이 어린양의 피는 매일, 매달, 매년 필요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뿌려졌기 때문이다. 이 어린양의 피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 지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 어린양을 수렴하고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올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 “성전과 장자가 중심이 되어 이끄는 나라”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무엇을 가장 신성시하고 중요시하였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스라엘은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국가 운영 체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장자”인 것이다.⁹¹ 본 장에서는 성전과 장자를 나라의 3 요소 중에서 “영토”와 “주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펴서 그 의미속에 어떠한 공공성의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의 3 요소 중에서 주권에 대한 부분을 장자와의 관련성에 비추어 살펴보자. 그런데 장자가 이끄는 나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성이 모호함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장자는 고대 사회로부터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다.⁹² 한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장자였고, 한 부족을 대표하는 대표자도 씨족의 대표자도 장자였다. 이것은 장자가 그 전체 무리의 주권을 대표하는

⁹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83-90.

⁹²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창25:31).

“지도자” 라는 의미이다.⁹³ 또한 장자는 영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나 부족의 종교적인 “제사장” 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재산도 다른 자녀들보다 두배나 더 받았다.⁹⁴ 결국 장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단위의 왕과 제사장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족장들과의 언약 관계에서도 장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는가?” 이다. 이 이야기에서 장자의 명분이 더욱 특별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장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곧 나라와 땅에 대한 상속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⁹⁵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나라와 땅에 대한 상속권은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동생 이삭에게 승계된다. 또한 이삭에게 넘어온 나라와 땅에 대한 상속권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승계된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이 됨으로 야곱의 열 두 아들 모두에게 장자권(상속권)이 승계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의 나라와 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⁹⁶

그런데 장자에게는 경제적인 “상속권” 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통치권” 과 “제사권” 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 마다 이 통치권과 제사권이

⁹³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창49:3),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창48:18), “내가 또 그를(다윗)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시89:27~28),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대하21:3).

⁹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신21:17).

⁹⁵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엘리에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창15:4),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17:19).

⁹⁶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창4:22).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 통치권과 제사권은 인구가 적을 때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권력의 핵심이 된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급속히 인구가 늘어났고 비록 애굽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는 통치권과 제사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을까? 그때 이스라엘은 “장로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장자들 중의 장자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장로 연합체를 통하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장로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한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를 마중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장로들이었다.⁹⁷ 그런데 이러한 장로들이 가진 통치권이 출애굽 이후에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일에 큰 공을 세운 모세에게 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혈통적인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소명)을 받은 사람에 의하여 통치권이 이어지기 시작한다.⁹⁸ 모세는 출애굽 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장로들 외에 뛰어난 인재들을 발탁하여 수령들⁹⁹을 세우고 그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돕게 한다.¹⁰⁰ 이후에

⁹⁷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출4:29),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출24:1).

⁹⁸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하에서 지도자가 되고, 사사시대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며 다윗과 왕들의 시대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어지는 자가 세워진다.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17:15).

⁹⁹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아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민36:1),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신1:15).

이 통치권은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과 왕들¹⁰¹, 메시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장자가 가졌던 제사권”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실제로 “성전과 장자”에서 장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다. 출애굽 후 이 제사권은 누가에게 넘어가고 어떻게 제도화되었는가?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출28:1) 아론을 포함한 모든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민3:6). 이 과정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근거가 유월절과 관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유월절 밤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성전보조자들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¹⁰²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장자의 제사장권”은 한 지파 전체,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한 지파에게 너무 큰 기득권과 지도권을 준 것이기에 매우 위험한 제도처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모세가 제도를 설정하자 이에 대하여 큰

¹⁰⁰ 지파 장로제도는 출애굽전부터 세워져 있었으며 신약의 산헤드린 공회까지 연결된다. 사사 시대에는 장로의 지방 자치권이 매우 강하였고 왕정시대에는 약화되었다. 장로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재판하는 역할이었다. 장로는 재판장과 유사(관리)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장로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과는 구분되지만 재판장이나 관리와는 중복되었다. C.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9), 136-37, R. de Vaux,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141-44에서 재인용.

¹⁰¹ “왕의 요청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그 요구의 부적절성은 왕을 위한 요구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게 된 반신정적 태도와 그러한 요구의 때 이름에 있었다”, 왕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치되는 행위로 나타나지만 곧 하나님에 의하여 허락되어진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가와 관련된 인물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Eugene H. Merrill, *제사장 나라*, 광철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235. “왕권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치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했다.” Walter C. Kaiser, *구약 성경 신학*,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96-203.

¹⁰²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니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3:41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족을 내게 돌리라” (민3:13).

불만이 제기되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지휘관 이백오십명이 시위를 벌였다(민16:1~50). 고라는 레위 자손이며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다.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는 “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불만을 제기하였고, 육체적 장자의 권한을 가진 르우벤 자손들은 “왜 레위인들이 모든 지도권을 가지느냐?” 는 것이었다. 모세가 세우는 제도가 모세 가족들의 권력 독점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모세는 반기를 든 지도자 이백오십명에게 각각 향로를 준비해서 회막 앞으로 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막문 앞 시비를 가리는 자리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지 않았고 모세가 그들의 장막을 찾아갔을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장막과 가족을 삼켜 버린다. 그리고 분향하기 위하여 모인 이백오십명의 지도자도 하늘의 불에 의하여 불타 죽게 되고 향로만 남게 된다. 모세는 이 향로를 얇게 펴서 제단에 기념으로 붙이게 함으로 이 시위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한 지파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지파로 세우는 것이 인간적 관점으로는 매우 불합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권력 분산을 이루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장자를 대신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모든 권력을 주시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 을 하나님이 회수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은 장자를 구원하심으로 장자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거두어 들이신다. 그리고 그 권한을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출발하는 시기에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 이 나라의 통치 구조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오직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진 왕” 이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¹⁰³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왕을 세우고 그 아래로 신분의 질서를 두고 수직적인 명령 전달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왕을 세우지 않고 그 아래에 어떠한 신분의 질서를 두지 않으며 모든 백성이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아래 수평적인 의사 수용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방식이다. 전자의 통치 방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제 왕권” 이라고 하고 후자의 통치 방법을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라고 말한다. 이 두 정치 체제 사이에 “대의 민주주의” 라고 하는 “의회 민주주의” 혹은 “대통령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 체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주권” 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라는 점이다. 전제 왕권에서는 모든 주권은 “왕” 에게 있다. 왕이 죽거나 왕이 잡히게 되거나 왕이 항복하게 되면 그 나라의 주권도 사라지게 된다. 반면에 직접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모든 주권이 “백성 개개인” 에게 있다. 개인이 국가라는 조직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이다. 국가 정치 체제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넘어오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이 주권의 이양이었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운동은 왕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역사적 사건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적인 국가 개념이 기원전 1400년경 가나안 땅에 정착한

¹⁰³ 대한민국 헌법 1조 1~2항도 주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그 나라의 “정치 형태”를 결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2019년 12월 27일 접속).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당시 가나안과 그 주변 나라들은 하나 같이 “왕정”을 채택하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국가 체제를 따르지 않고 “제사장 중심적 율법 국가 체제”를 채택하고 율법 아래 모두가 평등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1400년경에 이러한 놀라운 국가 통치 체제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주권”이 바르게 행사될 수 있는 “제사장 나라” 체제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부터 장자들이 가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자의 죽음에서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되었다는 점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위대한 선언인 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 아래에서 12지파가 동등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다. 이들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 분산의 상징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자신들의 땅을 분배 받지 못한다.¹⁰⁴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거주하게 된다. 이들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는 성전 제도 외에 율법 제도안에도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도록 하고, 그 정해진 지파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¹⁰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수13:33).

지파가 가지지 못하게 함으로 나중에 왕이 세워지더라도 많은 땅을 사유화 할수 없게 하였다. 이 율법이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켜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함부로 차지하지 못하는 이야기이다(왕상 21:1~4).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땅의 사유화와 권력 집중화를 철저히 막았다. 혹 어떤 사람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50년이 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년 제도도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율법이었다.¹⁰⁵ 또한 제사장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역할을 제사, 교육, 종교에 국한시켰다.¹⁰⁶ 행정적, 사법적 통치권은 때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카리스마적 감동(charismatic leaders)을 통해 선택된 자들에게 주심으로 권력의 세습화와 사유화를 막았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 임시적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들 지도자들은 세습적 왕권을 강하게 거부했다.¹⁰⁷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시적으로 주어진 통치권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통치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다윗왕 이후로는 카리스마적 선택이 아니라 왕위의 세습이 일어나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심과 언약안에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심으로 그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였다. 또한 아무리 왕이라도

¹⁰⁵ 조병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서울: 통독원, 2018), 58.

¹⁰⁶ 제사장은 지도자가 될 수 없었고 왕이 될 수도 없었다. 단지 지도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임명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워진 후(모세와 아론의 역할 분리) 약 1000년 동안 지켜져 왔다. 이 두 직분을 침범하고 통합하고자 한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포로 귀환 이후 다시 성전은 세웠지만 나라는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주도적 지도자 역할은 주로 제사장(사독 계열)이 하게 되었고 하스몬 왕가에서는 제사장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었다.

¹⁰⁷ 조병호, *7가지 질문* (서울: 통독원, 2016), 15-42.

제사장 직분을 침해할 경우에는 반드시 왕권에서 물러나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심으로¹⁰⁸ 제사장 나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다.

결국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일 뿐, 결코 제사장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제정일치의 나라가 아니다. 제사장 나라가 “장자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 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나라라는 의미이고 다시 이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을 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 라는 의미이다.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제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이와 같은 해석은 교회로 하여금 개교회주의, 교파주의에 매이게 하는 풍토에 대한 경종이 된다. 제도는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제도를 신격화하여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제도주의가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도 이러한 제도주의자를 몹시 경계하셨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진정한 뜻이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아래 복종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세 번째로 국가의 3 요소 가운데 “영토” 와 관련하여 제사장 나라의 “성전” 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제사장 나라에서 왜 성전이 그토록 귀중한 대접을 받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온전한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주권과 함께 반드시 영토를 가져야 한다. 영토가 없는 나라를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대한

¹⁰⁸ “사울의 실패는 특별한 신적인 인가가 없이는 그 또는 이스라엘의 어떠한 왕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이교도의 왕권과 관련된 제사장직의 특권을 활용했다는 데 있다 사실 그 당시 왕의 제사장 역할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Merrill, *제사장 나라*, 260.

소유권들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때 그 땅에 대한 주권도 가지게 되며 그 주권의 범위를 영토로 규정할 수 있을 때 국가로서의 외형적인 틀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소유하는 이야기는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이 된다.

짐멀리(W. Zimmerli)는 오경의 많은 신앙고백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오래된 전승은 조상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전승이며 땅의 언약이 구약 전승 중에서 최고의 줄기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¹⁰⁹ 폰 라드도 가장 오래된 전승으로 여겨지는 신명기 26장 5~9절의 신앙고백속에 담긴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폰 라드는 이 신앙고백을 기초로 하여 성경을 읽으면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¹¹⁰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성취되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는데 이 “세겜”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체결한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브루그만(W.Brueggemann)은 자신의 저서 *The Land* 에서 구약 성경 전체는 3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땅으로 이끄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 둘째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야기, 셋째 다시 주어질 땅을 기다리는 이야기” 라고 하였다.¹¹¹ 이처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¹⁰⁹ Walter Zimmerli, *세계 기독교 사상 대전집10*, 문희석 역 (서울: 신태양사, 1977), 127-64.

¹¹⁰ G. von Rad, “*The Theology of Israel's Historical Traditions*,” *Old Testament Theology*, vol. I 34.

¹¹¹ Walter Brueggemann, *성서로 본 땅*, 강성렬 역 (서울: 나눔사, 1992), 9.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모세오경을 넘어 구약성경 전체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편만하게 나타난다. 가나안 땅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도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¹¹²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후로 이삭, 야곱,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나 애굽에서 40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과 고난의 무게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기억하게 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¹¹³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은 덩치만 큰 겁쟁이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꿈만 같았던 가나안 땅으로의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후에 그들이 1차 목적지로 삼은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이끌었다. 하나님은

¹¹²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벨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벨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 12:7~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15:18).

¹¹³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헛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출3:17).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 혹 그들이 전쟁을 만나면 감당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출13:17).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출17:1) 따라 노정대로 먼저 시내산으로 이끄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을 먼저 들르게 하셨다. 이것은 우연히 애굽 군을 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도 아니며, 단지 가나안족들과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3:12)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셨을까? 이 이유에 대한 대답이 “성전”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볼 때에 충분히 이러한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출29:46).¹¹⁴ 먼저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출19:16~18, 20:18),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출25:8, 40:33).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을 보좌인

¹¹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29:46). 조병호, *통하는 레위기* (서울: 통독원, 2018), 15.

시은좌(속죄소)¹¹⁵를 만들게 하신다(출26:10~20, 37:6~9, 40:20~21). 그리고 그 시은좌 아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게 하신다(출26:21, 40:20). 이 모든 절차가 다 준비되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임재하시는(40:34~38)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내산에서의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침공을 위하여 군대 조직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유의미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을 거친 후에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빌려 이렇게 선언하신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 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25:23) 가나안 땅의 참 주인은 가나안 부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선언하신 말씀이다. 왕대일은 “가나안 땅은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삶과 신앙에 중대한 역사적, 사회적, 신학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¹¹⁶ 라고 말한다. 가나안 땅이 특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거주지이며 자신들이 세울 나라의 영토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¹¹⁵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시은좌로 이해하며, 시은좌는 하나님의 지상적인 보좌(God's earthly throne)를 의미한다. Gregory J. Polan, “*The Rituals of Leviticus 16 and 23*,” BT 36 (1998), 7. 김호관, “구약의 ‘속죄’에 대한 개념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09), 49에서 참고.

¹¹⁶ 왕대일, “땅에 대한 구약 성서적 이해,” *기독교사상* 20(1984), 312.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부터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속에 드러난다.

가나안 땅은 “주의 기업”이며,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출15:17~18).¹¹⁷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로서의 거룩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구별되고 차별된 곳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성소”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나안 땅이 어떤 주술적인 혹은 환경적인 특별함(젖과 꿀이 흐르는)을 가지고 있기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특별한 땅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에 거룩한 땅이 된다는 신학적인 사고가 가나안 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사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는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당연히 “성전” (성막)이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며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¹¹⁸

이러한 성전과 가나안 땅에 대한 관계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때부터 이어온 전통속에도 잘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찾아 떠나 올 때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거쳐오지만 제단을 쌓은 곳은 가나안 땅 밖에 없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창12:7), 벧엘과 아이 사이(창12:8), 헤브론(창13:18)이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단을 쌓았고(창26:25) 야곱은

¹¹⁷ Durham, *WBC성경주석3 출애굽기*, 362.

¹¹⁸ 광야의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실로에 안착한다. 실로에서의 400년이 끝나락에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성막은 훼파된다. 다시 오벰에돔의 집으로 돌아온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간다. 왕조 500년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하시게 된다.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48.

세겜과(창33:20) 벧엘에(창35:7) 단을 쌓았다. 이 지역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중요한 이스라엘의 거점 도시들이 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 장소들에 제단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다. 제단이 땅에 대한 소유를 표시하는 깃발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제단으로 이미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시해 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처럼 “제단과 성전과 가나안 땅”은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선택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땅으로 선택되어진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들과의 평화로운 공존이나 그들과의 협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거부되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 내야 하며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민33:52~53, 신7:1~2, 20:16~17). 이 진멸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나 학자들은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진멸(헤렘)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이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구별 되어진 땅임을 강력하게 반증한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땅은 어떠한 이유이든 죄와 악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창15:16, 레18:28, 신8:20, 9:4~5).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상실한 이유도 그들의 죄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죄로 가득 차게 하였기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관계가 없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길 때에는 모두 이 땅에서 진멸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민35:33~34).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에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이 되는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 땅은 그 사람을 토해내게 된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레18:28) 그러므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가 중요하게 된다. 만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고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정한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비전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폰 라드도 그의 논문 “*Promised Land and Yahweh’s Land*” 에서 “가나안 땅 정착으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약속과 성취의 긴장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보다 새로운 형태의 신앙으로 가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말한다.¹¹⁹

새로운 신앙으로 가는 길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기시대를 거쳐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며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오직 하나님의

¹¹⁹ 장미옥, “오경에 나타나는 ‘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대학원, 2009), 19.

말씀을 따라 제사장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은 것에 안주해 버리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우상에 동화되어 버린다. 가나안 땅을 얻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거주할 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지만 완성(finish)은 결코 아니었다. 이러한 오해가 수정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의 교육 시간을 다시 가져야만 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지만 결국 가나안 땅은 그들을 타락시키는 유혹과 올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땅 자체가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가나안 땅과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거룩의 방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것으로 절대화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화 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둘의 차이점을 깨닫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며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이 영원불멸의 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과 성전을 신성시하였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과 벳케와 예루살렘 성전을 신성시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벳케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면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여겼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패하고 벳케 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다(삼상4:1-11).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신성화에 대하여 비판했다(미가5:1, 3:11-12). 여호와가 성전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유다의 산당들 중의 하나로 만들었다. 예레미야도 성전 문 앞에서 성전을 신성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백성들을 책망했다.¹²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소였던 실로가 완전히 파멸되었듯이 두 번째 성소인 예루살렘이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은혜의 방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화, 절대화함으로 오히려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었다.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잘못된 성전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게 되시고 성전을 떠나게 되신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잘 묘사해 준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과 그 땅을 상실하는 역사로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는 그 땅을 지키고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역은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곤욕을 치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사시대는 이러한 신명기의 율법을 따라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땅을 잃었고 외세의 침략을 당해 곤고 해졌으며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다시 땅을 찾으며 외세를 몰아내었다. 그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¹²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애가 7:11~12)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렘7:4).

백성들은 왕조 500년 동안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인간의 제사장 나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인간의 제사장 나라에 갇혀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죽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버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히 파괴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이 거룩하였던 이유는 그 자체가 어떤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전이 파괴된 후 깨닫게 된다. 그들의 눈에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보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후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구약성경을 통으로 살펴볼 때에 제사장 나라의 땅과 성전이란?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함을 받는 지역 곧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아무리 가나안 땅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땅은 버림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느냐? 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과 계명과 율법으로 통치하신다는 상징이 바로 “성전과 제사장”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곳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의 땅이며, 그 땅 한가운데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이다.¹²¹

이러한 성전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 교회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배당과 예배와 구별됨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상화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¹²¹ Vos, *하나님 나라*, 20.

않게 된다. 가장 거룩한 것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우상으로 빠지게 할 수 있고, 공적인 교회로 부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본래적인 목적과 뜻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가 제사장중심주의, 성전제일주의, 제도주의,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러한 직제와 제도와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제사장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도가 되어 버리고 만다. 이러한 외형적인 제사장 나라의 제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적인 힘과 파워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임을 보여준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과 은혜의 백성으로 출발되게 하시고,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분명히 하셨다면,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도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 613개의 율법들이다. 이 율법안에 제사장 나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병호는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볼 때 크게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¹²²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는 핵심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다.

첫째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조병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하여 시작된 나라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¹²² 조병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50.

추구하는 나라라고 말한다.¹²³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애굽인 이든 히브리인 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의로운 백성” 이기 때문이 어린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용서” 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¹²⁴ 이처럼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용서로 시작된 나라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제사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거룩한 제사법에 대한 율법을 주셨다. 레위기 1~7장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소개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다. 이 다양한 제사의 방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이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면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왜 놀라운 일인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용서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의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여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다.

¹²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57-74.

¹²⁴ Ibid. 6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서 생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 낸다. 이것이 첫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대면이 불가능하게 된 이야기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숨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두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증거 되어지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뿔 모습만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여겨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금송아지를 주조한다. 이 모습에 대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모세는 간곡한 기도로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리지 못한다. 계속되는 모세의 기도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약속하신다. 이때 모세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구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 위에 올라오게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 전체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등” 만 보여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33:20)고 말씀하신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 밖에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자는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깊은 영적 단절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깊은 영적 단절이 영원한 것도 아니며

¹²⁵ 출 33:11, 민 12:8, 신 34:10.

하나님과의 대면이 다시 재계 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제사장나라-하나님나라-영원한나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용서를 통하여 이러한 깊은 단절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가는 방법은 막혔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다가오는 길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소통과 교류가 가능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와 주신다.

성전-제사장-제사라는 방법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은 “꿈이나 환상”¹²⁶ 혹은 “천사나 사자”¹²⁷를 보내어 메시지를 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와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그 만남이 매우 간접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한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바로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다. 이 5대 제사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될 “용서의 모형”이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장 중심되는 율법으로 제사법을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신다. 5대 제사를 통해 인간은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조병호는 5대 제사를 통으로 볼 때 하나님앞에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 말한다.

¹²⁶ 창 15:1, 19:1, 민 12:6, 겔 8:3, 11:24, 43:3, 단 2:28, 8:1, 행 2:17, 9:10, 10:3, 16:9, 고 후 12:1, 계 9:17.

¹²⁷ 창 16:9, 21:17, 22:12, 31:11, 출 3:2, 14:19, 23:20, 민 22:22~35, 삿 6:21, 13:13, 삼하 24:16, 왕상 19:5, 단 6:22, 스펀 1:9, 2:3, 3:1, 4:1, 5:5, 6:4.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용서이다.¹²⁸ 레위기 1장 1~2절을 보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바로 “누구든지” 라는 단어이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1:1~2)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용서를 받는 일은 어떤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앞에 용서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등한 “차별” 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고 하여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물에 차등을 허용하신다. 누구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만일 그 제물이 너무 값비싼 것이 되거나 혹은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면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은 빈말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상당하는 제물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의 힘이 닿는 정도의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레5:11). 제사장 나라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자나 소외된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누구든지”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아담” 이다. 이 아담은 “이취” (남자)와 “잇샤” (여자)를 포괄하는 말이다.¹²⁹ 여자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차별을 해서도 안된다는 말이다. 또한 “아담” (누구든지)이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단어라면 이 제사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까지 차별이 없어야 하는 제사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¹²⁸ 조병호, *통하는 레위기*, 12.

¹²⁹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레위기1*, 44.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안에서의 누구든지” 까지만 한정하여 제사의 특권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한계라고 보여 진다. 성전시대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성전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막힌 제사의 차별성이 깨어져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예수님은 단 한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제사 제도안에 들어 있던 완전한 용서의 의미를 실현하신다.

둘째, 5대 제사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피흘림과 대속적 죽음”이다.¹³⁰ 5대 제사 가운데 “동물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이며 “소제”는 “곡물 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대 제사 모두가 피흘림의 대속적 죽음이 있는 제사는 아니다. 그러나 소제가 보통 단독으로 드러지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러지는 제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¹³¹ 이 5대 제사의 핵심은 동물 제사이며 피흘림과 대속적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와야 한다. 이때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 제사의 예식이 매우 거룩한 것임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제사 제도가 가지는 구별성이 강조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하지만 그가 가지고 오는 제물은 반드시 구별된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제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기 전에 반드시 제물의

¹³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62.

¹³¹ “민하”(소제)는 거의 매번 “올라”(번제)를 수반하며(삿 13:15~16.19, 왕하 16:13.15, 렘 14:12, 대상 21:23), 또한 자주 “제바흐 쉘라뎀”(화목제)도 수반한다(레 7:12~13, 민 6:17) 흔히 “나짜크”(전제)가 소제물과 함께 드러진다(민15:1~21:28~29장). *WBC성경주석4 레위기*, 154.

머리에 손을 얹고 직접 안수를 행해야 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제사가 가지는 용서의 의미가 드러난다. 죄를 지은 제사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임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제물은 신의 식사가 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대속적 죽음의 제물인 것이다. 이렇게 죽임을 당한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받아 제단에 쏟거나 바르고 그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움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제사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제물의 피흘림과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³² 그래서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가 가지는 의미를 요약하면서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고 기록하고 있다.

세 번째, 5대 제사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서 드러지는 제사는 제사자와 제물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직접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제사의 모든 의식이 거행되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중재자가 있어야 제사가 가능하였다(레1:5,2:2).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히9:7). 그것도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레16:29,34).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죄 없는 자의 중재가 필요하였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죄 없는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장은 죄인 된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죄가 없는

¹³²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61.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제사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죄를 씻은 사람으로서 죄 없는 자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부터 용서함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이 레위기 8~9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집례에 잘 나타난다. 첫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죄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다(레8:34~35).

이렇게 먼저 제사장들이 죄를 씻고 용서를 받은 자가 된 후에 그들은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의 본질성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 레위인이라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무죄성이 더욱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를 종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왜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는 무죄하신 예수님밖에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용서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용서가 있는 나라로 열방 가운데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온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될 “모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용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공성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용서는 용서받은 개인을 통해 이웃과 세상으로 퍼져 나간다. 용서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용서받은 개인은 다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용서하시는 이유이다. 용서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며 교회가 행해야 하는 공적책임이다. 교회가 이방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자신들만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의 피값을 성도들에게 찾으시려고

하실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두번째, 제사장 나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웃과 이웃 사이의 나눔”이다.¹³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배와 제사를 받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제사와 예배에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는 종교의 나라가 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기 만족과 자기 거룩과 자기 정결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기 개방”이다. 자기를 개방하여 자기의 거룩함을 나누고 자기를 개방하여 자기의 복을 나누고 자기를 개방하여 용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자기 폐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 제도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은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와 “화목제”를 지시하셨다. 5대 제사의 핵심은 죄의 용서에 있지만 이 용서가 하나님과의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의 실천이 되게 하기 위하여 속건제를 행하게 하셨다. 속건제는 속죄제에 “민사상의 보상”을 추가한 제사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그 피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의미로 피해액의 1/5을 추가하여 지불하도록 하였다. 제사자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했다.

¹³³ Ibid.,73.

또한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를 두신 것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이웃과의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지를 보여준다. 화목제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달리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고기를 제사자의 가족이나 초대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였다.¹³⁴ 화목제는 엄숙하고 심각한 제사이기 보다는 축제 같은 공동체의 식사이며, 기쁨의 제사이며 감사의 제사였다.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이룬 용서와 화목이 이차적으로 이웃들과 나눔으로 이어지는 화목제는 제사장 나라가 이웃과의 소통과 나눔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스라엘이 예배만을 위한 나라가 아닌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나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는 “십계명”이다. 제사장 나라의 “헌법” 과도 같은 십계명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십계명(출20:1~17)을 언약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이 십계명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어진다. 1~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계명이며, 5~10계명은 이웃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다면 5~10계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백성이 아니라 자기 개방적이며 이타적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모세 오경에는 제사장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 외에도 “실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다.¹³⁵ 이러한 율법들은

¹³⁴ WBC성경주석4 레위기, 169.

¹³⁵ 613가지 율법 조항에는 ‘하다’라는 긍정형의 율법이 248개이고, ‘하지 마라’라는 부정형의 율법이 365개이다. 제사장 나라를 위한 법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기본법(십계명)과 세부법(출 21~23)이 주어졌고, 이후에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더 보강되고 갱신되었다.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69.

십계명을 삶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3500여년 전에 만들어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와 신명기의 법들 가운데 상당수의 법들이 “복지”와 “인권”과 “사회 윤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이 613개의 모든 율법을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22:36~40)이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613개의 실행법들은 “이웃 사랑”을 강조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 중에서 하나만 취할 수 있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둘은 매우 상보적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취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역사안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전달되었다. 선지자들의 신학과 가르침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있게 이해되고 실천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것이다.¹³⁶

몰트만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이타적이며 자기 개방적인 사랑과 나눔의 “신학적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¹³⁷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모든 능력과 무한함을 제한하고 세상에 대하여 자신을 개방하는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¹³⁸ 또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¹³⁶ 아모스 5:22-24, 미가 6:7-8, 예레미야 7:4-7.

¹³⁷ J.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11), 211-12.

¹³⁸ Ibid., 354-55.

페리코레스시스적(perichoresis) 개방과 사귀이 세상을 향한 개방과 사귀이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한다.¹³⁹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고 말한다(요일 4:8,16). 사랑은 필연적으로 개방을 동반하며, “개인”이 아닌 “타인”을 향하도록 만들며, 세상을 창조하게 하며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속성의 교류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웃과 사랑이 있고,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중심적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의 성결법전(레17~27장)¹⁴⁰에는 이웃과 이웃 사이의 나눔에 대한 훌륭한 법들이 자리하고 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9~10절에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배려의 법이 소개 되고 있다.¹⁴¹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하여 추수때에 떨어진 이삭이나 나무 열매를 줍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끝이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다. 롯기서에는 이러한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이웃을 돌보아 준 보아스라는 사람의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여인 롯이 자기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때 레위기 19장 9절의 율법을 따라 떨어진 곡식을 하인들이 줍지

¹³⁹ 몰트만은 이를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비하여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부른다. Ibid., 79.

¹⁴⁰ 제사법에 제사장위임식을 포함시켜서 1~10장으로 묶고, 정결(clean)과 성결(holiness)를 구분하였다. 정결법안에 대속죄일(16)을 포함시켜서 11~16장으로 묶고, 성결법전에 절기법(23~25)과 부룩(27장)을 포함시켜서 17~27장으로 묶었다.

¹⁴¹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19:9~10).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많이 흘리게 명령한다(룻2:1~23). 심지어 그 꺼져가는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이 친족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이방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룻4:1~22).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던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늙고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보다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백성의 체면을 세울 뿐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도대체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야고보는 거룩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약1:27) 거룩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아 주는 것이다. 레위기의 제사장 나라의 법도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해 주고 있다. 거룩법전은 제사법(1~10장)부터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성결법(17~27장)에서 이루어진다. 거룩은 나를 세상과 구별하여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삶에서 이루어진다. 특별히 이웃 사랑의 가장 실천적인 모습인 “나눔”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세 번째, 제사장 나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평화”(shalom)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바라본 비전이다. 조병호는 이를 “제사장 나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라고 표현한다.¹⁴²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약탈이 있고 지배와 착취가 있다면 그 나라안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는 곧 개인의 안녕과 평화가 된다. 나라와 개인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개인적 관심에만 머문다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름 받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¹⁴³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평화의 나라에 대한 교육을 가장 먼저 애굽에서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의 압제와 착취 아래에서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다. 태어난 자녀마저 나일강에 버리게 만드는 폭압적인 정권의 무서움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억압하는 제국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가는 평등과 정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평화의 나라에 대한 교육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때 배우게 된다. 40년만에 다시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에돔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에돔 나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 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하는 편지였다. 그 길을 평안히 지나가도록 해 주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불필요한 분쟁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에돔왕은 모세의

¹⁴²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48.

¹⁴³ *Ibid.*, 76.

제안을 거절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한다. 에돔에게 이스라엘은 위험한 세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기 400년 전에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으며 비록 서로를 대적할 때도 있었으나 결국은 화해하며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던 그 아름다운 형제의 모습을 나라와 나라로 만났을 때에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이스라엘과 에돔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다. 에돔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에돔보다 더 큰 민족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둘만큼 충분한 실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해 있었다.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난 이유는 형제의 나라 에돔과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신2:4~5).¹⁴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은 훌륭한 교육을 시키신 것이다.

세 번째 교육도 이어진다. 에돔을 지나서 만나게 되는 나라는 “모압”이다. 하나님은 이 모압족과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2:9).¹⁴⁵ 모압과도 싸우지 말라는 것은 모압족속이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주신 땅을 너희가 함부로 침입하고 빼앗고 약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제사장 나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나라이지 결코 다른 나라의 기업까지 빼앗아

¹⁴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2:4~5).

¹⁴⁵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2:9).

자신의 소유로 삼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되는 나라이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와 대조적인 나라가 앗수르라고 할 수 있다. 조병호는 앗수르 제국의 특징을 “경계를 허무는 나라” 라고 말한다.¹⁴⁶ 앗수르는 각 나라들을 침략하여 무너뜨린 다음에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 을 통하여 그 민족의 경계를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킨 정책이다. 앗수르의 이주정책과 혼혈정책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인이 되고 말았고, 남유다의 유대인들로부터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¹⁴⁷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경계를 함부로 침략하고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세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모압과도 싸우지 말고 그 길을 우회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네 번째 평화의 나라에 대한 교육이 또 이어진다. 이번에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2:19).¹⁴⁸ 암몬 족속도 모압족속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롯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는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세운 나라이다.

¹⁴⁶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118.

¹⁴⁷ Ibid., 91.

¹⁴⁸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신 2:19).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는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다. 가나안족들은 셈족이 아니며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도록 하셨는가? 만일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셈족의 하나님만 되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살펴보면 바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가나안땅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땅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땅으로 선택되었다(창12:1).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거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러 나라들은 거룩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다.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창15:16)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주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여 두셨다. 죄악이 관영한 곳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 앞의 에돔, 모압, 암몬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에 가나안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은 민족적 유대관계나 외교적 친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셈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도 아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 평화를 세우지 않았다는 죄목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평화를 세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나라는

아니었으며 제국적 나라가 되고자 하지도 않았다.¹⁴⁹ 그러나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요나는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곳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적 소명을 받았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해 도망친다. 앓수르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성에 사는 십이만명의 사람과 그 육축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욘4:11) 타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제사장 나라 백성을 대표하는 선지자조차 타민족과 나라에 대한 이러한 큰 적대감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 백성들은 더욱 심각한 국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가져야 할 사명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정체성을 제공해 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의로움으로 인식될 때 아주 무서운 독이 되어 버린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이 부분을 잘 지적해

¹⁴⁹ 다윗왕은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등을 정벌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다. 이후로 다윗은 제국적 나라에 대한 욕망으로 군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러한 제국적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상을 접고 그 징계와 회개의 자리를 “성전터”로 삼으면서 “제사장 나라”안에 머물게 된다(대상18:1~22:19). 다윗왕 이외에 이러한 거대한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왕이 없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씨로 오는 “메시아”가 이러한 거대한 왕국을 다시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9:4-8).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행위와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인간적인 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게 된다. 그럴 때 자신을 붙잡고 있던 선민의식의 유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제사장 나라는 개인과 이웃을 넘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나라로 출발한 나라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를 세우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가진 공공성의 측면을 잘 보여준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징검다리 선지자

제사장 나라는 구약과 신약을 통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며,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성막)을 그 중심으로 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율법과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거룩한 모습으로 출발한 제사장 나라가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였을까?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기록이 “사사기 이후 말라기”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 프로젝트는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⁵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의 기록은 제사장 나라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멸망하게 되었는지? 를 보여주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들”은 제사장 나라가 실패한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진단해 주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포로 후기 말씀들”은 첫 실패를 반성으로 다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노력들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제사장 나라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일까? 여기에서 “실패”라는 용어의 조심스러운 사용을 권한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를 그렇게만 본다면 제사장 나라는 역사속에서 한번 발흥했다가 사라지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 중의 하나와 같아지고,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도 실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제사장 나라의 실패라는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제사장 나라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나라로 인식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성경의 모든 것들을 낡은 것 취급하며, 구약성경에 대하여 몰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읽기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성경의 “일점일획도 버려서는 안된다”(마5:18)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마5:17)이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전도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다(롬3:21).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안에 존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하는

¹⁵⁰ “예언자와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언약백성으로서 실패했다는 의식이였다.” Anderson, *구약성서 이해*, 641.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의 열심이나 인간들의 실패에 의하여 성취되거나 좌초되는 나라가 아니다. 만일 그러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바벨의 나라라고 불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장(chapter)에서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과 같은 “선지자” 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제사장 나라를 실패한 프로젝트로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기 위한 준비된 프로젝트로 바라보고자 한다.

BC 8세기부터 6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집중적으로 “선지자들”¹⁵¹을 보내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북이스라엘은 성전을 버리고 벤엘과 단에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으며, 남유다는 성전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율법을 잃어버림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면 왕정시대에는 왕이 있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 가지 종류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회개의 메시지”였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증거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멀어졌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¹⁵¹ 북이스라엘에 “엘리아,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앗수르에 “요나”, 남유다에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오바다”, 포로기와 포로후기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내신다.

환상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앗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무서운 환상을 선지자들은 보았고 그 본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평안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였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희망과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 였다. 바로 이 부분이 선지자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징검다리로 보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곤란을 당하거나, 인간들이 망친다고 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여호와¹⁵², 열심히 유별나신 여호와¹⁵³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희망의 말씀, “메시아” 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¹⁵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¹⁵²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렘33:2).

¹⁵³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사37:32),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9:7),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렘39:25).

¹⁵⁴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72.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사11:1~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미5:2).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렘23:5).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슥9:9).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7:13~1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말3:1).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제시되는 희망은 언약의 사자와 메시아의 나라이다.

이 메시아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글에 예언된 분이시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분이며 새로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다.¹⁵⁵

¹⁵⁵ “예언서에서 메시아 표상은 주로 언약 전승의 맥락 안에서 제시된다.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중재할 이상적인 미래의 인물을 기대한다 ~ 셋째, 메시아 칭호의 대중화와 표상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메시아의 칭호는 특별한 개인(다윗)을 지칭하는 왕적 인물에서 ‘임마누엘(사 7:14), 여호와와 중’(52:13-53:12)으로 대중화된다. 메시아 표상은 주로 왕적 혹은 제사장적인 특수한 표상에서 ‘중’과 같은 일반적인 표상으로, 혹은 ‘인자 같은 이처럼 천상적인 표상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넷째, 메시아의 기원과 역할의 범위가 확대된다. 메시아의 기원은 이제 다윗 왕조를 초월하여 묘사되며, 묵시적 차원에서 선재하는 천상적 존재로 표현된다. 또한 메시아의 역할은 전쟁과 정복 위주의 통치에서 정의와 평화 보존의 통치를 지향한다. 그의 통치 영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세계 만국, 더 나아가 우주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초 민족적 혹은 초 인종적 통치를 하게 된다. 다섯째, 이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서 실패하였기에 선지자들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 나라”로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메시아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안의 나라”라면 이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인간이 그 피안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된 메시아의 나라는 그러한 피안적 나라로 소망되지 않는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역사적인 불의와 억압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고 그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희망”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오늘의 교회들에게 주는 공공성의 메세지이다.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희망”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비관적인 종말론이 만연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희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희망으로 세상에 공적책임을 다하고 이 희망의 이유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3:15)

상적인 메시아적 인물을 통해 여호와와 새롭게 체결된 언약의 형태는 물리적 측면보다는 영적 측면이 강조되며, 집단적 측면보다는 개별적 측면이 강조된다.” (렘 31:33) 윤효심, “마태복음의 ‘인자’ 메시아 표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119-20.

제 IV 장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

통으로 성경 읽기의 가장 큰 장점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한권의 책처럼 읽기 때문에 성경의 몇 부분을 발췌하여 공식처럼 교리를 만드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특정 진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성경을 부분화하고 과편화한다. 교회를 다니는 기존의 신자들은 이러한 이단의 교리를 접하게 될 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매혹된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읽으려고 하지 않고 이단들이 제시하는 구절에 한정하여 성경을 보게 된다. 이것이 그들을 점점 더 이단에 빠지게 하고 주입된 진리 체계를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막아 버린다. 통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바라보게 하고 전체를 읽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균형과 통전성을 가지게 한다. 구약은 신약의 빛 하에서 읽어야 하고 신약은 구약의 안내를 따라 읽어야 한다. 이 둘은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는 “하나의 진리” 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도 하나의 진리로서 서로를 밝혀주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IV장에서는 이러한 통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나치게 “신학적” 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부분적” 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의 스토리와 사건 중심으로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세 번째 성전은 이전의 어떠한 성전보다 화려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고 있었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에 의하여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성전뜰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돈으로 환전을 하고 제물을 사기 위하여 이리 저리 제물을 살펴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다윗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는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제사장 나라” 는 지배자가 누가 되었든¹⁵⁶ 관계없이 50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한 나라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폭풍이 몰아치는 세계 역사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대답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관점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고,¹⁵⁷ 자신들만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치권도 부여해 주었다.¹⁵⁸ 페르시아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가졌던 헬라제국 통치하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¹⁵⁶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하스몬왕조, 로마, 헤롯.

¹⁵⁷ “고레스는 자기가 점령한 여러 지방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있는 거룩한 도시들에 돌아왔는데 이 도시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구적인 성소들도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 도시들의 거민들을 모두 불러모아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 Anderson, *구약성서 이해*, 606.

¹⁵⁸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40-41.

있는 자치권을 허락받았다.¹⁵⁹ 그러나 시리아-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게 되면서 제사장 나라는 그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된다. 자신을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여긴 안티오쿠스 4세는 모든 율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유대인들이 헬라화 되도록 강요했다. 성전에 돼지를 몰고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성전에 제우스신상을 세우고 숭배하게 했으며,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다.¹⁶⁰ 이러한 정책은 유대인들이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가장 극심한 핍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모세에 의하여 제사장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처럼 제사장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 일은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되고 모데인이라는 작은 마을의 제사장이었던 맛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 마카비에 의하여 시리아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게 되고 성전을 다시 정화하여 봉헌하게 된다. 이후 하스몬 왕조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대제사장이 곧 왕이 되는 제정일치의 강력한 제사장 나라를 유지하게 된다.¹⁶¹ 그러나 독립의 기간은 그리 길지 못하였다. 80년의 독립기간이 끝나갈 무렵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성이 함락(BC 63년)됨으로 로마와 헤롯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다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스러운 점은 이스라엘을 차지한 로마는 유대인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고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었고¹⁶²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더욱

¹⁵⁹ A. B. Rhodes,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 문희석, 황성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284.

¹⁶⁰ 마카베오상 1:1-64. Anderson, *구약성서 이해*, 740.

¹⁶¹ Paul Johnson,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파주: 살림출판사, 2005), 236-48.

¹⁶²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7450&cid=62097&categoryId=62097>

크게 증축하기도 한다. 이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후 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다스린 제국들의 관대한 정책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바벨론 포로 이후 강력한 유대주의(율법주의)의 등장이다. 이스라엘은 멸망 후 바벨론 포로의 시간 동안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율법과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신학적 반성으로 태어난 말씀들이 포로기의 “에스겔서”¹⁶³와 “제2이사야”¹⁶⁴, “다니엘서”, 포로 후기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인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준다. 이후에 느헤미야-에스라에 의하여 율법을 중심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하스몬 왕조의 통치 아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유대교는 더욱 강력한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어떠한 통치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념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은 제사장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다. 500년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라본 소망은 하나님의

&expCategoryId=62097 (2020년 2월 28일 접속). cf. 유대전쟁사 1. 152-54.

¹⁶³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즉 거룩한 도시에 살며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견해를 수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Anderson, *구약성서 이해*, 552.

¹⁶⁴ “바벨론의 임박한 붕괴와 페르시아의 발흥은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정치적인 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2이사야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Ibid., 563. “그는 동방으로부터 승리자 고레스를 불러온 것은 바로 야훼였다고 단호하게 확신한다. 즉 고레스의 등장은 하나님의 미리 준비된 계획이었다.” Ibid., 571.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었다. 유대인들인 제국의 통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성전과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최종적으로 바라본 것은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으며 메시아의 출현이었다.¹⁶⁵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제사장 나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소망의 근원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제사장 나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막1:15, 눅10:9, 눅21:31)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마12:28, 막9:1, 눅11:20, 눅17:21)라고 선포하셨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¹⁶⁶ 예수님은 한 순간에 모든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실현”을 외친 인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믿기 힘든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 “반-성전적”이며 “반-율법적”이며 “반-제사장적”이었다는 점이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지극히 당연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주저함없이 하셨다(막2:1~12). 안식일에

¹⁶⁵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식민지 해방과 하나님의 제왕적 주권이 도래하는 날, 정치적 해방과 제국적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다윗의 때로 다시 모세의 때로이다.”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다층적 함의와 역동적 맥락,” (그 말씀 통권288호, 2013), 59.

¹⁶⁶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고유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언어로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은 구약 신학의 중심에 속한다.” 김세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222.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시장하여 이삭을 먹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다윗도 배고플 때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며, 안식일의 주인” 이라고 말한다(마12:1~8). 그 외에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과 어울리는 것을 거리끼지 않았고(마11:19) 자신을 신격화하는 언사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일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¹⁶⁷ “인자”¹⁶⁸와 같은 신적 존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성전적, 반-율법적, 반-제도적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제사장 나라를 폐기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율법적, 반-성전적 행동들과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제사장 나라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신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의 법에 맞추어진 삶을 사셨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태어난지 8일 만에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셨다(눅2:22~24), 예수님은 명절이 되면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다(요2:13), 예수님은

¹⁶⁷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둘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요10:30~36).

¹⁶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19:28).

나병환자들을 고쳐주신 후에도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준수하셨다(마8:2~4),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야 할 때에도 제사장 나라의 법을 따라 성전세를 술선수범하여 내셨다(마17:24~27).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반-제사장나라” 적인 모습도 있고, “친-제사장나라” 적인 모습도 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만을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제사장 나라와 예수님의 관계를 바르게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보여준 부정적인 역기능들을 비판하신 것이며 그러한 부분을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5:17)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그의 책 「구약성서 중심사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세 시대의 제사장 나라가 씨(seed in priestly kingdom)라면 신명기때는 싹(buds in priestly kingdom)이 난 것이고 포로 이후 기간은 꽃(blossom in priestly kingdom)이 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예수님과 사도시대, 교회시대는 열매(fruit in priestly kingdom)를 맺는 제사장 나라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⁶⁹

제사장 나라로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역사속에서 잠시 잠깐 뒤로 퇴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말씀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속에서 방황하기도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향하여 성장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작은 하나의 씨가 나중에는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제사장 나라는 점점 자라 예수님의

¹⁶⁹ Walter Brueggemann, *구약성서 중심사상*, 문희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31.

의하여 온전하게 열매 맺는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해 온전하게 열매 맺은 나라를 더 이상 “제사장 나라” 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는 좋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러한 유기체적인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한계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의 “업그레이드 버전” 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제사장 나라의 연장(extention)에만 머무는 나라는 아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는 측면도 가지고 계시지만 반대로 제사장 나라를 종료하는 측면도 가지고 계신다.¹⁷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초월적 측면이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 자체의 미완성일 수는 없다. 제사장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생각은 예수님 당시 “정치적 메시아니즘”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들을 단호히 물리치셨다(마16:1~4). 예수님은 “종말론적 메시아니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¹⁷¹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임한다” (come)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마12:28)는 말씀과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6:10)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막9:1)이라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눅22:18)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¹⁷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53.

¹⁷¹ “정치적 메시아니즘(천년왕국론)”과 “종말적 메시아니즘(천년왕국론)”에 관한 차이는 몰트만의 책 *오시는 하나님*, 233-441 참조.

자라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준다.¹⁷²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임한 나라” 가 되는 것이다.¹⁷³ 세례 요한은 죽기전에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물어본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마11:3)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자신이 행하는 일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마11:5) 하나님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를 뛰어넘는 “초월성” 을 지닌 나라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⁷⁴ 그리고 그러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지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기대를 성취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사장 나라를 종료하고 종말론적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 안에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를 수 있는 특별함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를 수 없는 나라이기에 이 나라를 “하나님

¹⁷²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9), 92-93.

¹⁷³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심과 더불어 현재 이 땅에 시작되었다.” N. T. Wright,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310.

¹⁷⁴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93.

나라” 라고 부르신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자리에 “제사장” 이 아니라 “하나님(예수님)” 이 자리하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 라고 부르는 것이다.¹⁷⁵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제사장 나라의 외형적인 국가 체제의 발전과 변화로서 출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의 “성취” 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에 의하여 완성될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의 “선취” 로서 시작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¹⁷⁶ 그래서 조병호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관계성을 완성(수렴)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하고 있다.¹⁷⁷

그러면 이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의 의하여 성취되고, 또한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병호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¹⁷⁸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¹⁷⁵ “우리는 정말 무엇을 희망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다.”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21.

¹⁷⁶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11:20).

¹⁷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12.

¹⁷⁸ Ibid., 220-21.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신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교사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합당한 이해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begin)¹⁷⁹ 나라인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을 위한 어린양으로 보내 주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다.¹⁸⁰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속에 이미 “하나님이 오셔야만” 세워지는 나라라는 뜻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의 순간부터 시작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요1:14),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마1:18), 누가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눅1:36).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하나님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completion)되고 온전히 실현된(realization) 나라라고 볼 수는 없다.

¹⁷⁹ “begin”으로의 “시작”과 “start”로서의 “출발”을 구분한다. begin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되고, start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출발된 하나님 나라에 적용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begin-completion(realization)-start-perfection(finish)로 사용한다.

¹⁸⁰ Ibid., 225.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역이 남아 있었다. 그 사역을 다 완수하신 후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것이다(행5:31, 엡1:21, 히12:2). 예수님은 먼저 때를 기다리셔야 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실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기에(빌2:7)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인간과 같이 지내시는 시간과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실 메시아로 지내는 공적 시간이 나누어진 삶을 사신다.

예수님은 30세를 기점으로 그 이후를 공생애로 사셨다(눅3:23). 그 이전의 삶은 메시아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로 사셨다. 복음서는 이러한 때의 구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했음을 알리는 최초의 사건으로 나사렛의 안식일의 한 회당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눅4:18)고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일어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다(눅4:18~21).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의 때”와 관련성에 특별히 강조하여 보도한다. 예수님이 나사렛 근처의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였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2:4) 예수님은 어떠한 예비된 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때에 맞추어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에서 “때” 라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요19:30)고 말씀하신 시점을 말한다.¹⁸¹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공생애의 시작은 오직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며 예수님의 어머니조차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임을 말해준다.¹⁸²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막1:1~2)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시절 유년기의 모든 과정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때는 예수님이 30세쯤이 되었을 때임을 알게 된다. 곧, 공생애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하여 눈으로도 보게 하여 주셨다. 하루는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12:28)는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¹⁸¹ WBC성경주석36 요한복음, 170.

¹⁸² Ibid.

치유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속에서 완성되어야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갈라지고 대립이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기대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의 3년째 되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마21:9).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시는게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신다(막10:45). 이러한 예수님의 뜻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 어린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병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출발(start)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만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본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1:29)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이겠지만 세례 요한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유월절 어린양으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듯 하나님

어린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린양이라는 표현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과의 관련속에서 좀 더 살펴보자.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다섯 가지의 스토리를 함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어린양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는 “출애굽의 유월절과 어린양” 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Ⅲ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라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순종했지만 그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안에서 해결되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죽음에 의하여 완성된다. 하나님의 어린양의 죽음이 없으면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지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유월절 어린양이 되시기 위하여 공생애 3년의 마지막 곧 자신의 죽음의 날이 유월절이 되게 모든 일정을 세밀하게 조율하신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절이 끝난 후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마26:5) 곧 그들은 그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롯 유다가 유월절 식사를 하던 중 마음이 변해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체포되어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¹⁸³ 더욱 놀라운 것은 유월절 어린양은 죽일 때 반드시 그 뼈를 꺾지 않아야 하는데(출12:46),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시체의 처리 과정에서 병사들은 예수님 옆의 두 사람의 뼈는 꺾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는다. 병사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¹⁸³ 조병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165.

어린양으로 죽으셔서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을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가장 값비싼 대속적 죽음을 치루어 주셨다. 이제 매년 반복되는 어린양들이 죽음이 필요 없어졌다. 과거의 어린양의 죽음과 피의 효력은 1년 밖에 되지 않아서 매년 갱신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효력은 영원하기에 갱신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된(start)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어린양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 백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을 것이며 그 죽음이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속적 죽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였다(사53:4~7).

세 번째 하나님의 어린양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죽인 숫양(어린양)”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목숨과도 같은 귀한 아들 이삭을 아무런 설명없이 번제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제물도 준비하지 않고 길을 떠난다. 그 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삼일길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산에 도착한 후에 종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들 이삭과 단 둘이서 그 산에 오른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왜 없는지? 묻지만 아브라함은 차마 이삭 네가 제물이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창22:8) 말만 한다. 산 위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 이삭을 지체없이 죽이려고 하였고 그 다급한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을 말려서 이삭은 죽지 않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이삭 대신 준비된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그 숫양은 아마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린양”이었을 것이다(창22:8). 이 어린양은 아브라함이 이 산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여 두신 양이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된다(창22:13-14). 이 숫양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점에서 이 숫양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로써 십자가에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하여 내어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동기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양”과 “이사야의 고난의 어린양”과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어린양”과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어린양”을 함께 통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셨고, 이사야의 어린양으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고와 고난을 대속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의 어린양으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이셨다. 그러므로 죄없는 하나님의 성육신과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가진 공공성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

첫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이유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양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그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세상과 피조 세계” 까지도 포함하는 구속을 이루시는 대속적 죽음이며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필요없는 영원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한다. 또한,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신 “세상”은 저 하늘에 있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차안의 세계라는 점이다. 예수님은 이 땅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 먼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목적이 이 세상이었다는 인식의 변화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발견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어린양처럼 세상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허물과 고난의 문제에 참여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길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허물과 죄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일어나게 한 허물이고 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허물과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오직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셨다. 교회는 세상을 멸망당할 존재로만 여긴다면 어떤 공공성도 회복할 수 없게 된다.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자각하고, 세상의 허물이 곧 나의 허물이며, 세상의 죄악이 곧 나의 죄악이라고 여기며, 그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아브라함의 어린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단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교회가 왜 공공성을 가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며 교만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잘 말씀해 주셨다. 어느 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며 산 탕자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과거의 허물은 하나도 묻지 않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던 형은 동생의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동생보다 재물과 재산에 대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브로그만은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첫째 되는 가장 본질적 교의이다. 그것은 기독교계가 상실해버린 사회적 이상이기도 하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의 통제 원리로 삼지 않는 한 본래적 제자도의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¹⁸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begin) 나라이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현시(display) 된 나라이며, 예수님께서서

¹⁸⁴ Walter Rauschenbusch, *Christianizing the Social Orde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4), 49.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completion)된 나라이다.¹⁸⁵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realization)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예언을 철저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실현하신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될 수 없으며 연속성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연속성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수렴됨으로 종료되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¹⁸⁶ 그래서 제사장 나라 종료와 하나님 나라 출발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장 나라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종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봄으로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종료되며, 하나님 나라로 대체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가지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사복음서는 증거한다. 첫째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현상이다. 이는 마태와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마27:45, 막15:33, 눅23:44). 둘째는 지진이다. 골고다 주변에는 많은 무덤들이 있었을 것인데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함께 무덤들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다(마27:51~52). 셋째는 골고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다. 이는 마태와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마27:51, 막15:38, 눅23:45).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늘이 어두워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전 세 시간전부터 일어났고 뒤의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일어났다. 그리고 이 신비한 사건들을 십자가

¹⁸⁵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54.

¹⁸⁶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37.

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27:54)는 고백을 남긴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가지는 영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로마의 백부장도 이 세 가지 물리적 현상만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심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구약의 제사장 나라와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가진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종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셨음에 대한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첫번째 “지진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진이 있었고 지진과 함께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증언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태에게만 있는 기록이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으로 보고 읽을 때에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버릴 부분은 없다. 이 사건도 마태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본문이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는 것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터지고” (에스키스테인)라는 단어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에스키스테인)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며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어졌다.¹⁸⁷ 이는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일어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이어서 기록한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¹⁸⁷ WBC성경주석33 마태복음 하, 1272.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27:52~53) 무덤이 열린 이유는 “죽은 성도들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⁸⁸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당하고 사망이 극복되었으며 부활이 보증된다” 는 중요한 표적인 것이다.¹⁸⁹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이 “종말론적 현상” 혹은 “시대의 전환에 대한 기대의 실현”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다.¹⁹⁰ 이 사건은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12~14절의 말씀과 관련된다. 이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마른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의 말씀의 일부이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소망, 곧 자신들이 전혀 소망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적 변환이 일어날 것에 대한 희망의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과 같은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지진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시대적 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¹⁸⁸ 물론 이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전에 일어난 것인데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그들이 부활시에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체였는가? 아니면 나사로처럼 단순한 육체적 부활이였는가? 혹은 예수님의 부활후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다면 삼일동안 그들은 부활한 후 어디에 있었는가? 등 여러가지 난제에 부딪힌다. 지진으로 무덤이 열린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만 이후의 부활사건에 대한 보도는 마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삽입한 해석으로 보며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은 ‘목시적, 미래적’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bid., 1276.

¹⁸⁹ “예수의 죽음을 동반하는 사건들에서 이미 마태는 죽음 자체를 정복했다는 복된 소식과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실재를 예기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Ibid.

¹⁹⁰ “이 구절을 이사야 26:19과 다니엘 12:2 및 특히 에스겔 37:12~14과 같은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구약적 주제에 근거한 실현되고 역사화 된 목시의 한 단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마태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말세의 시작’임을 전하고 싶어했다고 말한 브라운(Death of the Messiah)의 결론은 올바른 것으로 생각된다 ~ 구원-역사적 전환점이 마태의 이야기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은 정확하다.” Ibid.

있는 것이다.

두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사건은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다. 공관복음의 세 기자는 모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성전의 휘장은 그 크기가 매우 커서 결코 쉽게 찢어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때 성막 안에 설치된 것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었다. 이 휘장은 길이와 너비가 정확하게 얼마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10규빗(4.5m), 세로 10규빗(4.5m)이었기 때문에 휘장의 크기도 아마 이것과 같았으리라 여겨진다(출26:16~23). 이러한 휘장이 낡아서 위에서 아래로 크게 찢어진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이 휘장을 기점으로 휘장 안쪽은 지성소가 되며 이 휘장의 바깥쪽은 성소가 된다(출26:33). 지성소는 법궤가 있으며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다(출26:34). 이 장소는 함부로 봐서는 안되는 장소이기에 휘장을 치게 하였다(레16:13, 민4:20). 또한 이 휘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히9:7).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한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다(레16:34). 이것은 죄인 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음을 상징한다(히9:8).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전에 걸려 있던 커다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다. 첫번째 해석은 휘장의 찢어짐을 하나님의 마음의 찢어짐으로 보는 해석이다. 마치 구약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자신의 옷을 찢듯이(사11:35, 삼하1:11, 왕하6:30)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었다는 해석이다. 두번째 해석은 휘장의 찢어짐을 하나님의 심판과 목시적 징표로서 보는 해석이다.¹⁹¹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에 분노하셨고 더 이상 성전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미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으로 이제 곧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목시적 종말의 예고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다. 세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짐으로 모든 종교적이며 제의적인 성전 기능이 종료되었다는 해석이다.¹⁹²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러한 막힘이 사라지게 되었고 성전의 기능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의와 제사장 제도까지 폐하여지게 됨을 상징하는 일이다(히10:9).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제사와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되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만인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조병호도 이러한 세번째 해석에 동의하며 성전 기능의 종료에 대하여 말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의 임무를 완성하시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는 아론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대제사장만이 누렸던 특권과 사명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 감당했던 제사장 나라의 완벽한 종료와 함께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인’ (sign)이었습니다.¹⁹³

¹⁹¹ "그러나 분명한 것은 휘장의 찢어짐이 일종의 목시적 상징으로, 한편으로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로와 심판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성전의 끝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Ibid. 1272.

¹⁹² "즉 예수의 희생적 죽음으로 예수께서는 희생 제사와 제사장직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R.E.Brown, *Death of the Messiah*, 1108-109.

¹⁹³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53.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일어난 “지진” 과 “성전 휘장의 찢어짐” 은 “역사적 대 전환” 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다.¹⁹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온전히 수렴하셨을 뿐 아니라 완성하심으로 종료시켰다. 옛 언약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성찬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이 바로 새 언약이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14:24)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직접 대체사장이 되어 그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히9:11)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¹⁹⁵

요한은 이러한 공관복음의 두 사건(지진과 성전의 찢어짐)에 대하여 전혀 보도하지 않지만 이 사건들이 가진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칠언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특별한 한 말씀을 기록해 준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19:30) 이 한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 는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마디라고 할 수 있다. 이 한마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33년 생애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제사장 나라의 1500년의 시간을 포함하여 옛 언약의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하신 사건이다. 심지어

¹⁹⁴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시대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수많은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특히 두 가지 사건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짐은, 비록 성전이 A.D 70년에 파괴되기까지(참조 23:38) 그 이후로 40년 동안 성전 제사가 계속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성전 희생 제사가 끝났음을 상징하고 예시하는 것이다. 성전 제의가 진실로 강조하는 죄사함의 최고의 희생 제사가 바쳐졌기 때문에, 성전 제의는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WBC 마태복음하 33*, 1278.

¹⁹⁵ 성전의 휘장의 찢어짐의 배경은 레위기 16장이며, 그 해석은 히브리서 3장부터 10장이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창3:15)의로서 역할까지 성취한 사건이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루었다” 는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시대는 완전히 전환되어 대 변화를 가지게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복음” 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와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짐을 지고 온 세상을 대신하여 그리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¹⁹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후 그렇게 기다려온 회복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고 완성되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갈2:21).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롬10:4).¹⁹⁷ 이제 성전 제의에 대한 의무에서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되었다(히8:5). 하나님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더 이상 동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안에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시작되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14:17)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의적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요약하여 “서로 사랑하라” 는 하나의 계명만을 주신다. 제사장 나라의 모든 복잡한 제도와 의식을

¹⁹⁶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6), 46-47.

¹⁹⁷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레위기 11장의 음식규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할례에서도 자유하게 되었다. 안식일도 주일로 바꾸어 지키게 된다. 그외 수없이 많은 율법의 짐들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 종료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많은 토론과 회의가 있게 된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와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적 역사속에서의 적용은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된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한 사랑의 법만 남겨 주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는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며(롬8:31~39)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히10:14).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언약에 대한 보증으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보내 주셨다(고후1:22, 5:5).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안에서 영원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성도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다른 존재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듯 예수님안에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시대적 대 전환은 교회의 공공성의 바탕이 된다. 과거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거룩이라는 껍질안에서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풍성함이 이제 온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뻗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과거 제사장 나라에서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그릇(말)안에 암전하게 모셔 두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그릇을 치우신다. 이제 빛은 막힘이 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 나간다(마5:1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 온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 공적 사명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6)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속에서 일어난 변화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성전의 모든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 “교회”로 옮겨지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장자(제사장)의 모든 기능과 역할과 사명도 “제자들”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점이다.¹⁹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시대적 대 변환이 일어났지만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였다. 제자들의 눈에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다 뿔뿔이 흩어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다행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삼일로 짧았다는 점이다. 어쩌면 그 기간이 더 길었으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지 삼일만에 부활하게 된다(막8:31).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뿌리기 위하여 무덤에 찾아 갔다(눅24:1).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져 있고 굴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눅24:3). 낙심한 여인들은 망연자실하여 울고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신다(마28:9). 이 모습을 본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된다(눅24:12). 그리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다(요20:19~28). 제자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게 되고

¹⁹⁸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55-60.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된다(행1:4).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십일이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행2:1~4).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달라지게 된다. 성령이 불과 바람처럼 제자들을 뜨겁게 만들었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었으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 베드로는 이것을 선지자 요엘의 예언 성취라고 해석하였다(행2:16~21). 이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제자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고전6:19) 성전 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다(행5:11). 성령의 임함과 함께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행2:41~47).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격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세상을 격변시킬만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며, 하나는 성령의 임하심이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 성전에서 교회로, 제사장에서 제자로 모든 기능과 역할과 사명이 옮겨지게 된다.

먼저, 부활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네 가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이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신 모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다(눅24:44).¹⁹⁹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제자들이 가지게 된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사건이

¹⁹⁹ “부활은 예수님이 옳았다는 선포이다, 동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선포이다.”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45-48.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으며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눅24:46).

셋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게 된다(요20:28).

넷째, 부활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새로운 특권과 소명과 사명이 주어짐을 알게 된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눅24:47~48). 또한 세상으로 나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마28:19~20).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16:15)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요21:15)고 말씀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16:17~18)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사명과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베드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벧전2:9~10).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러한 표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제사장 나라 언약에서 주어진 말씀들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옛언약의 사명과 특권이 그대로 신약의 제자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모든 특권과 권세를 넘겨주신 이유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이후로 그들 속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있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며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책임을 자신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행1:6)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계획이 없으셨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1:7~9).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그 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실현되었지만 그러한 시대적 대 전환은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계됨으로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종료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체제가 시작된다. 예수님의 승천 후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게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이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하였던 “오순절” (칠칠절)이라는 것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진다. 출애굽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온전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이 지나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오심이 오순절까지 늦어졌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물론 이 새언약의 체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피를 가지고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언약이 체결된 순간은 오순절이다. 이 새언약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성도” (데전3:13)라고 부르게 되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 (갈1:2)라고 부르게 된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탄생은 이렇게 함께 시작된다.

두번째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성전과 제사장이 탄생한다. 성령이 오순절에 각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제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성령)은 제자들에게 임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성전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성령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다. 각 개인이 어디에 있든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요4:21~22)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세번째,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선지자가 탄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역할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옮겨진다. 구약에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여호와와 영”이 임하였다.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이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되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였고 예수님이 보내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2:17~18, 33).

이렇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역사적 대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제자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며,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의 의미를 제자들이 바로 깨닫게 된 것은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영적인 모든 비밀과 성령 안에서 일어난 모든 비밀을 제자들은 다 깨달을 수가 없었다. 분명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적으로 경험했지만 이것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다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성전을 출입하며 기도하였고 성전 제의와 성전 예식들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였다.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방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단지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과 구세주 되심에 대해서만 강하게 증거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더욱 필요하였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이러한 깊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성령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며(요16:12~13),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롬8:26),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시며(롬8:27), 죄를 이기게 하시고(롬8:13), 연약함을 도와주시고(롬8:26),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롬8:24),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나가시고(갈5:22~23), 성령의 은사를 주사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전12:8~10), 또한 생명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분이시다(롬8:11).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자들은
 성령의 동행과 성령 충만으로 차츰 진리와 은혜위에 바르게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일어난 비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바울은 특별히 이러한 진리를 깊이 있게 깨닫고 교회의 영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큰 특권을 주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큰
 사명도 주셨다. 그런데 교회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불러 주신
 그 이유와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기록의 껍질에 갇혀 버린다면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구약의 교회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신약의 교회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안다면 교회는 더욱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열심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단순히 교회를 천국의 지점으로
 여기고 안주해 버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 받았음을
 잊어버린다면 교회는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진리의 빛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와 충만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되고 완성되었고 교회와 제자들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교회와 제자들에 의하여 증거되고 전파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바울은 이것을 “복음”²⁰⁰이라 표현하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였다. 김세윤은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²⁰¹ 첫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둘째, 우리를 의인이라 선언하며 의인이 되게 하셨다. 셋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넷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섯째, 사탄의 세력을 무찌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남긴 신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들이 복음만 가르치고 증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많은 서신서들의 구조는 먼저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이어서 이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복음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준 것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안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이처럼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믿음의

²⁰⁰ 롬1:2, 1:17, 갈1:7, 막1:1, 엡1:13

²⁰¹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51-200.

대상이 되는 예수님과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고 가르쳐야 한다.

조병호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가르침의 온전함을 위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공생애 삼 년 동안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 하나 하나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²⁰²

조병호는 예수님의 삼 년 공생애의 가르침과 사역을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말한다. 하나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며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영혼 사랑”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한다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 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이야기는 복음서에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난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귀신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죄인들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삼 년 동안 계시면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대부분 낮고 천하고 세상의 아무 관심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다닌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무실 시간도 부족해서 배의 뒤편 고물에서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을

²⁰²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통독원, 2004), 428.

찾아 다니신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가신 이야기이다(눅8:1~39).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직접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그 날도 늦은 시간동안 가르침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그 날은 그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멀리 이방땅으로 건너 가자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 그 밤에 배를 타고 이방땅으로 가기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뒤편에서 주무신다. 그런데 이때 큰 풍량이 일게 되고 제자들은 광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운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몇 마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큰 경외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말씀으로 제어하신 기적이 아니라 죽을 위험을 각오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이다. 참된 기적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역사이다.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은 공동묘지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미친 사람을 찾아 가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악한 귀신으로부터 놓임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결한 짐승의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한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그 불쌍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가치한 한 귀신들린 광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의 나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도 않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도 않는다. 광인의 몸에서 나온 귀신들이 이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사하게 되자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동네를 떠나 줄 것을 요청한다. 그들에게는 한 영혼보다 이천 마리의 돼지떼가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을 물질과 돈으로 평가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가치의 전도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의 계산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러한 가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 많이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하셨고(마13:31)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고 하셨다(마13:33). 이 겨자씨와 누룩은 너무나 미약한 것들이지만 이 미약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하는 나라인 것이다. 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다.

하루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비난한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다.

첫번째 비유는 양 백마리에 대한 이야기이다(눅15:1~7).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 이 사람은 양 아흔아홉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친구들과 나누었다.

두번째 이야기 열 드라크마 이야기이다(눅15:8~9). 한 여인이 결혼 예물로 받은 열 드라크마 몽치가 있었는데 그만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또 찾아내고는 기뻐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

세번째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이다(눅15:10~32).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지만 큰 아들은 그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며, “그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며, “그것을 찾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며, “찾은 후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나라이다. 과거 제사장 나라는 성과 속을 철저히 구별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요3:15)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떠한 작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관심밖에 두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은 결코 “한정된 사람들” 혹은 “예정된 사람들” 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다.²⁰³ 만일

²⁰³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민족의 역사와 그들의 경전인 성경에 배경을 둔 예수의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보편적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 속에 담긴 약속들을 성취한 예수의 사건이 참 신의 온 인류를 위한 종말론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의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47.

그러한 죽음이었다면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위한 죽음” 이라고 말했을 것이며 “사랑하는 자를 위한 죽음” 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셨을 때에도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눅7:34)라고 하셨다. 어린 아이와 소자를 앞에 두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 함이요” (막9:37)라고 말씀하셨다. 철저히 세상의 약자들과 가난한자들과 고통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마10:6, 15:24)안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삶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스라엘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 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성경의 한 두 구절로 성경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자 하는 편협한 해석이다.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를 초월하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로 오신 분이며, “마지막 아담” (고전15:45, 롬5:14)으로 오신 분이며, “만왕의 왕” (딤후1:1), “만유의 주” (계19:16)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든 시간과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서는 위대한 진리이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다.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싸매고, 축귀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바울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날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13:8~13).

몰트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신학이 교회 공공성의 기초이며 공공성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기독교의 모든 하나님 나라 신학은 그리스도를 위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슬퍼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의 해방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하나님 나라 신학은 그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공공성에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저변의 변두리로 혹은 사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공공성의 빛으로 데려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신학은 도래하는 구원의 종말론적 빛을 공공성 안으로 가져오며 구원에 대한 인간의 간절한 바람을 밝히 드러내야 할 것이다.²⁰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조병호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라고 말한다.²⁰⁵ 전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에 대한 집약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되는 특별한 관계에 대한 집약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회복된 나라이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다(요1:12).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²⁰⁴ Moltmann,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354.

²⁰⁵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37-45.

살펴볼 때 엄청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타락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저주와 징벌과 단절과 소외가 있게 된다.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나아가더라도 죄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가능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인간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는가?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 대한 해답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먼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증거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증언하신 기록이 복음서에 두 번 기록되어 있다. 첫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마3:1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이다(막9:7).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여 주셨다.

둘째,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예수님이 열 두 살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의 말씀에 빠져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 모든 예식을 끝내고 돌아가다가 아이가 없어진 사실을 삼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예수님의 부모는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화가난 부모는 예수님을 책망하지만 오히려 아이는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눅2:49)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스스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다(마10:33, 막14:36, 요10:29, 14:10).

셋째, 귀신들과 천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전 광야에서 사십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말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4:3) 거라사의 광인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인 것이나이가.” (막5:7)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귀신들이 나가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눅4:41).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눅1:32)

넷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물위를 걸어서 배위에 오르시는 기적을 행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14:33) 시몬 베드로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다(마16:16). 나dana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립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 고백했다(요1:49).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다(마27:54).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증거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이 매우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요10:30~33).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용어였다. 당시 이 용어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혹 있었다면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라 부르는 것도 용납되지 않았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이를 엄격히 금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5:11)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제사장 나라안에 있었던 일반적인 신학적 이해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에 과감히 도전하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라 부르도록 가르치고 교육하셨다.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6:9)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6:32)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전승이 자리 잡게 된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4:6)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8:15)

이 말씀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충격적인 말씀들이며 가르침이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혁명적 가르침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은 더욱 놀라운 가르침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대 반전이 일어난 나라임을 이 하나의 용어가 잘 보여준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전이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가능해졌다.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단절과 소외가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극복되어진다. 이제 다시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만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칭호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가 있으며 영원한 나라의 시민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며 현실 세계에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권능도 부여되며 병을 고칠수도 있는 능력도 부여되기 때문이다(막16:17~18). 이것은 태초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 창조”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변화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소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가 된다. 여기에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며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공공성의 근거가 있다. 톰 라이트(N. T. Wright)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통찰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⁰⁶

정말로 중요한 점은 인류 구원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더 큰 목적의 일부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파선된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뒤로 물러나 편하게 앉아서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개인적 신앙 차원만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만족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참된 의미는 더 포괄적이고 더 넓은 가족 개념이며 공동체 개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안에서 어떻게 나만 하나님 아버지를 독점할 수 있겠는가?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어떠한 차별적 조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를 좌절시킬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진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안에서 전형적인 세 가지의 차별이 철폐되었다고 말한다.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다. 둘째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다. 셋째는 “상전과 노예의

²⁰⁶ N. T. Wright, *톰라이트, 쉼의를 말하다*, 최현만 역 (평택: 에클레시아북스, 2011), 30.

구분” 이라고 말했다(갈3:28).²⁰⁷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부장적 리더십이 무너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높아지고, 반상이 폐지되고, 기복신앙이 무너지고, 평등과 평화가 나타난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고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교회 공공성의 근거가 된다.

²⁰⁷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14.

제 V 장

교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설교

설교와 공공성

찰스 캠벨은 설교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해야 함에 대하여 강조한 설교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박사 논문의 주제였던 한스 프라이의 신학과 설교를 재정리하여 「프리칭 예수」(Preaching Jesus)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하여 설교의 공동체적이며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는 과거 전통적인 설교의 인지적이며 명제적인 설교 형태를 비판하며 새롭게 제시된 “신설교학”(New Homiletics)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며 탈자유주의적 설교학(Postliberal Homiletics)을 제시한다. 신설교학은 설교의 서사적 이야기를 영상적이며 체험적이며 참여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청중들이 설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청중들이 스스로 결론을 끌어내도록 하는 민주적인 성격을 띤 설교이다.²⁰⁸ 그러나 이러한 신설교학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인간의 실존적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가 매우 인간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이 된다. 설교가 실존의 문제에 대한 참나적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나 재미난 이야기를 동원하여 청중으로 하여금 종교적 체험을 주려고 한다면 그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²⁰⁸ Campbell, *프리칭 예수*, 12.

말씀과 관련이 없는 설교가 된다. 캠벨은 성경이 기록된 본래적 목적을 살리는 설교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설교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펴기 위하여 한스 프라이의 설교학이 가진 다섯가지 특징들을 제시한다. 첫째, 성경이 문화-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설교도 문화-언어적 특징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⁰⁹ 한스 프라이가 주장하는 문화-언어란 다름 아닌 신앙의 공동체의 전승안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인간의 실존적인 도덕이나 윤리 경험, 관념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언어가 성경의 언어가 아니며, 문학적 이론을 통해 연구된 언어들이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성경의 언어는 그 공동체안에서 계승되어지는 언어이며 성경본문들 상호간의 내향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언어이다. 그래서 설교가 성경본문이 가진 신학적인 독특성을 소홀히 하면서 지엽적인 한 두 단어 안에서 보편성을 찾아내는 그러한 설교가 되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안에 내포된 언어 이해와 신학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본문 해석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프라이는 「성경의 서사성 상실」이라는 책에서 “기독교 해석 전통에 있어서 합의적인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말한다.²¹⁰ “역사비평이 부각되기 전인 18세기 이전의 시대에 서구의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사실주의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리적이고 교화적일 뿐만 아니라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읽었다”고 말한다.²¹¹ 여기에서 사실주의적 문자적 성경

²⁰⁹ Ibid., 114.

²¹⁰ Ibid., 64.

²¹¹ Ibid., 164.

읽기라는 것은 본문의 형식이나 구조에 대한 문학적인 혹은 분석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오랜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읽어온 방식을 말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철학적으로 혹은 기호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공동체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성경을 해석할 때 교회 공동체와 관계없이 해석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성경 본문이 지향하는 고유한 독특성을 해치게 된다.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가 가진 신학이며 신앙이다. 그래서 켈벨은 성경 해석에 대하여 공동체적인 이해와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니콜라스 레쉬(Nicholas Lash)를 소개한다. “어떤 대본에서는 실제로 배우가 해석적인 연기를 시연해 보임으로서 드디어 그 대본의 의미가 전달되기도 한다”²¹² 레쉬는 성경이 연극의 대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말씀 이해는 곧 말씀에 대한 공동체적 참여 혹은 실천이 있을때에 비로소 가장 잘 이해되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셋째, 프라이는 설교가 귀착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귀착적이라는 말은 성경 본문의 서사가 구성하는 모든 부분들이 한 지점, 혹은 한 사람, 한 주체로 초점이 모아진다는 말이다. 복음서의 예를 든다면 서사의 귀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²¹³ 그래서 프라이는 설교의 중심은 플롯이나 예화나 좋은 비유가 아니라 등장인물이라고 말한다.²¹⁴ 엘링센 역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플롯이 아니라 등장인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야 말로 설교에서 고려되어야 할

²¹² Ibid., 172.

²¹³ Ibid., 298.

²¹⁴ Ibid., 269.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²¹⁵

설교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결국 구약의 족장들이나 예수보다는 다른 인물이 드러나게 된다. 설교에서 단순히 세속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에는 성경의 서사적인 묘사에 내포된 독특한 문학적 특성에 근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간과된다.

프라이는 설교에서 등장인물,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에 귀착되지 않는 비유적 설교가 가진 한계를 지적한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더 커다란 서사의 틀을 벗어나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사의 틀과 무관하게 이해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²¹⁶ 또한 프라이는 이야기식 설교의 한계에 대하여서도 말한다. 이야기식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플롯이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여겨서 이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보다 이야기 설교의 핵심은 등장인물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로날드 알렌은 주객이 전도된 설교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설교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행위” 라고 말하였다.²¹⁷

넷째, 프라이는 설교가 모형론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한스 프라이가 말하는 모형론은 “성경을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여러 가지 삽화들의 집합체로 보면서 해석하도록 하기보다는 성경을 하나의 일관성을 지닌 총체적인 서사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²¹⁸ 이러한 모형론은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읽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성경의

²¹⁵ Ellingsen Mark,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79. Ibid, 271에서 재인용.

²¹⁶ Ibid., 297.

²¹⁷ Ibid., 20.

²¹⁸ Hans W. Frei, *성경의 서사성 상실*, 이종록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4-15.

이야기를 통합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찰스 캠벨은 한스 프라이가 주장하는 “언어-문화적 설교”, “공동체적 해석의 설교”, “귀착적 설교”, “모형론적 설교”를 통해 설교는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신앙공동체가 믿음으로 고백한 언어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이 나타나게 하는 설교라고 말한다. 캠벨은 결론적으로 설교는 “예수 선포하기”이며 “교회 세워가기”라고 말한다.

설교의 역할은 청중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서 그 문제에 대한 그럴듯한 해답으로 하나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단지 영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이고 공적인 형태의 사회단체나 또는 고대의 도시국가 형태와 같은 사회정치적 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²¹⁹

또한 캠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듣는 청중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한다. 말씀의 실천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 준다. 말씀과 실천은 별개일 수 없다는 통찰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교회는 또 그러한 사람을 실천적인 사람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²²⁰

통설교 방법론

²¹⁹ Campbell, *프리칭 예수*, 346, 349.

²²⁰ Ibid., 380.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도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한다(딤후3:16).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성경” 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이 언급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다. 바울에게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인 것이다. 또한 바울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 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든 성경의 저자가 “한 분 하나님” 이라는 말이며,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었기에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서로 “통”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목회자는 설교할 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전달할 때 몇몇 책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목회를 하는 동안 한번도 설교하지 않는 책도 있다. 조병호는 특별히 구약성경의 오바다서에 대하여 말한다. 오바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이지만 목회자들이 거의 설교하지 않는 책이다. 설교자들은 이 책의 말씀들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²²¹

조병호는 이렇게 모든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 잘못된 설교의 형태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비판한다. 하나는 “예화주의” 이며 또 하나는 “요절주의” 이다.²²² 조병호는 예화는 좋은 것이나 예화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화는 은유와 비유를 포함한 메타포로서 진리를 전달하는 귀중한 수단이 되며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²²¹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28

²²² 조병호는 예화주의를 “불량식품”에 비유하고, 요절주의는 “편식”에 비유하고 모든 성경에 집중하는 통성경을 “집밥”에 비유한다. Ibid., 1-24.

예화주의가 되면 문제가 된다. 예화주의는 예화가 설교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설교 형태를 말한다. 예화는 성경 본문을 지지하는 보조적 수단일 뿐이지 결코 성경 본문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예화는 식전에 간단히 먹는 에피타이저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에피타이저가 메인 음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화주의가 바로 이러한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병호는 예화주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한다.²²³

성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설교자의 설교를 수천 시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10%~15% 정도만 겨우 아는 이유는 일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화를 훨씬 더 많이 그것도 너무 많이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요절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조병호는 욥기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8:7)라는 말씀을 들어 설명한다.²²⁴ 이 욥기의 말씀은 욥이 한 말도 아니며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귀중한 “축복의 말씀”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 욥의 친구중의 한 사람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로서 축복의 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며 조금은 상대를 비꼬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듣기에 좋다고 하여 이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렇듯 요절주의는 성경 전체에서 요절만 쏙 빼어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련없는 말씀을 전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단들이 바로 이러한 요절주의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집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과 배경

²²³ Ibid., 12.

²²⁴ Ibid., 19.

이야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맥과는 전혀 관련없이 가위로 요절을 오려내게 되면 그 요절은 본래적인 말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 되어 버리고 만다.²²⁵ 이러한 편식과도 같은 요절주의로 성도들에게 설교한다면 이러한 설교는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오히려 가로막고 설교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사상이나 이단 사설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교자는 이러한 편식적인 설교를 주의해야 한다. 편식은 성도들의 건강을 해치게 한다. 조병호는 “모든 성경”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며 “통설교”라고 말한다.²²⁶

하나님 나라 52주 통설교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찰스 켈벨의 설교론과 조병호의 통설교는 서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긴다. 둘 다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둘 다 성경 전체 맥락안에서의 서사성을 강조하며, 둘 다 성경의 통일성과 본문 내향성을 강조한다. 둘 다 말씀을 해석할 때 설교의 형식이나 인간론에 치우친 접근보다는 신앙적이며 공동체적이며 실천적인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설교론에 근거하여 조병호의 통성경을 통해 제시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을 목회에 적용하고자 한다.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은 하나님 나라 말씀 교육이라고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 설교를 구성하여 청년들에게 설교하였다. 이 52주 설교는 한꺼번에 구상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다. 2018년 여름 수련회때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확장된 것들이다.

필자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계획하면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²²⁵ Ibid., 23.

²²⁶ Ibid., 15, 24.

나라”의 주제로 살피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창세기의 천지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창조까지 통으로 살피는 구성으로 계획하였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의하여 통일성을 가진다.

둘째, 이 설교 본문 구성의 특이한 점은 하나의 본문만을 선택하여 설교를 하는게 아니라 구약본문(제사장 나라)과 신약본문(하나님 나라)을 함께 세트로 구성하여 설교 본문을 삼았다는 점이다. 이렇게 구성하게 된 이유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모형론적 유비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 전체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시도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history)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시대까지 구원사적으로 연속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이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일치성을 보이는 많은 소재²²⁷와 주제들이 함께 등장한다. 이렇게 두 나라를 묶어 서로 비교하며 비추어보며 이해하게 될 때에 두 나라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다.

셋째, “주별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의 선정은 조병호가 그의 책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시한 소재목을 많이 참고하였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수렴되는 관점”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다 설명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에 관련된 주제와 “제사장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까지 함께 구성하여 52주 설교를 구성하였다.

²²⁷ 어린양, 유월절, 대제사장, 성전, 언약, 예언, 기적, 메시아 등.

넷째, 본 설교의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은 “교회 공공성 회복”이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갖는 여타의 다른 속성들보다 공적인 부분과 선교적인 목적,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구성되었다.

다섯째, 52주 설교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교회안에서 적용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52주를 연속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필자도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한꺼번에 기획하고 연속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다. 단지 52주를 1년이라는 상징성에 맞춘 것이다. 교회에 적용할 때에 필자가 크게 네개의 대 주제로 나누어 놓은 것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긴다. 아래의 도표는 52주 설교 본문 구성표이다.

<표1> 하나님나라 52주 통설교

주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 (1주~5주)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와 완성	창1:26~2:3	계21:1~7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사탄의 세력	창3:1~19	마16:7~28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	창3:15	마1:18~25
	육신의 나라 영의 나라	창6:1~13	행2:1~36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 (6주~22주)	갈수 없는 생명의 나라 가야만 하는 생명의 나라	창3:21~24	계20:7~15
	모든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꿈	창12:1~3	마28:18~20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출19:1~6	막1:1
	제사장 나라의 수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렘31:31~34	마27:50~51
	유월절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양	출12:1~14	요1:29~36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출12:21~28	막14:22~25
	마지막 무교절 첫 번째 부활	레23:5~14	마28:1~6
	마지막 칠칠절 첫 번째 교회	레23:15~21	행2:1~4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추수	레23:34~44	계14:14~20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출40:18~38	히9:1~28	
법궤안 십계명과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신10:1~5	요1:14~18	

	법궤안 만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출16:31~35	요6:32~39
	법궤안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부활	민17:1~11	요11:23~26
	대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예수	레9:7~24	히5:1~10
	대속죄일과 영원한 제사	레16:29~34	히10:1~14
	용서가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레7:37~38	롬3:19~26
	이웃과의 나눔과 사랑이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레23:22	눅6:36~40
	나라와 나라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민20:14~21	엡2:10~18
제사장 나라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23주~33주)	제사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레4:27~35	눅5:17~26
	제사장의 권세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민16:1~40	요2:13~22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출21:12~14	마5:20~26
	장로들의 전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레11:24~45	막7:1~16
	안식일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출20:8~11	마12:1~8
	이스라엘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백성	욘3:1~4:4	마18:21~35
	택하신 곳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배	신12:5~14	요4:19~26
	할례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교회	창17:10~14	갈5:1~15
	음식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교회	레11:1~23	딤후4:1~5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	창18:23~33	눅8:26~39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신5:11	갈4:1~7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 (34주~52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노아	창6:1~22, 히11:7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아브라함	창13:1~18, 14:14~24, 18:23~3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이삭	창22:1~13, 26:14~3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야곱	창5:27~34, 31:36~42, 33:1~11, 35:1~15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요셉	창39:1~23, 50:15~2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모세	출4:1~17, 32:11~35, 민12:1~16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여호수아	민14:1~10, 수24:1~3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보아스	룻2:1~16, 4:1~13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사무엘	삼상7:1~12, 15:1~3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다윗	삼하6:1~23, 24:1~12, 대상28:1~10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다니엘	단1:5~16, 6:5~10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에스라	스7:6~10, 9:5~15, 느8:8~18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느헤미야	느1:1~11, 5:6~14, 13:6~31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세례 요한	마3:1~17, 요3:22~30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예수	막3:31~35, 막5:1~20, 마26:36~45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베드로	마16:13~20, 행3:1~10, 뱀전2:3~9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스테반	행6:1~15, 6:54~60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바울	행9:1~9, 20:17~24, 28:23 뱀후4:1~8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요한	요19:26-27, 요약3:16-23, 계:1-11
--------------------	------------------------------

52주 통설교의 형성 과정

필자는 본 설교를 2018년 7월 수련회때부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이러한 52주 설교 전체를 구상하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수련회의 주제 말씀을 구상하던 중 평소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던 “하나님 나라” 를 주제로 정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2018년 7월 29일(주일)~31일(화)까지 2박 3일의 시간동안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 라는 주제로 먼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주제는 위의 도표의 첫번째 대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총 다섯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교는 중심적인 강조점은 “이 땅위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진행하였다.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말이다. 또한 성경적 천국관과는 무관한 우리 나라의 토속적 천국관에 의해 하나님 나라 개념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 세계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고 비관적 종말론을 가지게 하며 신앙의 피안화를 초래했다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음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표2> 1-5주차 설교의 기획 -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

일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7/29(저녁)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와 완성	창1:26~2:3	계21:1~7
7/30일(아침)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사탄의 세력	창3:1-19	마16:7~28
7/30일(저녁)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	창3:15	마1:18~25
7/31일(아침)	육신의 나라 영의 나라	창6:1~13	행2:1~36

7/31일(오후)	갈수 없는 생명의 나라 가야만 하는 생명의 나라	창3:21~24	계20:7~15
-----------	----------------------------	----------	----------

<표3> 1-5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일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7/29(저녁)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창조와 완성	창1:26~2:3	계2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 주제의 전체적 개요 설명 - 하나님 나라 주제는 성경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주제 - 우주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 -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의 주관자 되심 - 하나님은 처음 시작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종말에 회복시켜 주실 것임 -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위임을 인간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 			
7/30(아침)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는 사탄의 세력	창3:1~19	마16: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 사탄, 사탄에 대한 정의 -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유혹 -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동참하는 아담과 하와 -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가장 절정의 순간에 있을 때 찾아온 사탄 - 사탄의 목적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못하게 함 - 오늘날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있다 - 사탄의 대적하는 방법(예수님의 시험 이기는 방법) 			
7/30(저녁)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	창3:15	마1: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저주받는 인간과 온 피조세계 - 하나님께 저주받은 또 다른 이유(전가, 회피) -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 이사야의 예언 - 마태복음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의미와 14대의 의미 -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성취됨 -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시작, 두번째 아담 예수 			
7/31(아침)	육신의 나라 영의 나라	창6:1~13	행2:1~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타락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 후예의 두 가지 부류 -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 - 온 세상의 타락 경향성, 육신의 나라와 영의 나라의 대립 - 네피림 후손과 의로운 노아의 대립 - 다시 시작된 영의 나라, 우리 몸이 성령의 전 -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으로 육의 나라를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7/31(오후)	갈수 없는 생명의 나라 가야만 하는 생명의 나라	창3:21~24	계20: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타락으로 주어진 가장 비참한 결과 죽음 - 지혜는 있으나 생명은 잃어버린 인간과 피조세계 - 하나님 나라와 두 나무가 가진 의미 -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정 생명의 나무를 향한 여정/ 천로역정 			

- 요한이 본 마지막 환상, 에덴동산의 회복의 환상,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

6-22주차 설교의 기획 -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수련회 이후 필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주제를 더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교제로 하여 설교의 틀을 짜고 설교를 진행하게 된다.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통찰은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수렴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또한 구약과 신약을 모형론적으로 매우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성경 해석이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적 측면이 중심으로 다루어 지고 있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다. 또한 다른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보다 성경 중심적 접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해석을 제공하는 교제이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17주간의 설교를 구성하였다. 네 달에 해당하는 설교 분량이다. 전체적인 관점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교 대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며 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임받았음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표4> 6-22주차 설교의 기획 -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일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8/26	모든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꿈	창12:1~3	마28:18~20
9/2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출19:1~6	막1:1
9/9	제사장 나라의 수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렘31:31~34	마27:50~51
9/16	유월절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양	출12:1~14	요1:29~36
9/23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출12:21~28	막14:22~25
9/30	마지막 무교절 첫 번째 부활	레23:5~14	마28:1~6
10/7	마지막 칠칠절 첫 번째 교회	레23:15~21	행2:1~4

10/14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추수	레23:34~44	계14:14~20
10/21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출40:18~38	히9:1~28
10/28	법궤안 십계명과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신10:1~5	요1:14~18
11/4	법궤안 만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출16:31~35	요6:32~39
11/11	법궤안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부활	민17:1~11	요11:23~26
11/18	대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예수	레9:7~24	히5:1~10
11/25	대속죄일과 영원한 제사	레16:29~34	히10:1~14
12/2	용서와 화해가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레7:37~38	롬3:19~26
12/9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레23:22	눅6:36~40
12/16	나라와나라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민20:14~21	엡2:10~18

<표5> 6-22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일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8/26	모든 민족을 향하는 하나님의 꿈	창12:1~3	마28:1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아 홍수 후 세상에 수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세워짐 - 언어가 달라진 바벨탑 사건 이후 각 민족간 깊은 단절 - 새로운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 왜 가나안인가? 가나안과 제단의 의미 -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 -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 명령하심 -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9/2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출19:1~6	막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 과정,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 70명이 200만으로 - 나라의 삼요소와 제사장 나라의 구성, 백성, 주권, 땅의 의미 - 제사장 나라 호칭과 제사장 나라의 존재 목적,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 사사기부터 말라까지 제사장 나라의 불순종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 - 메시아 예언 중 하나님 아들과 인자 관련 예언 -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 관계 - 이 땅에 오신 왕자와 하나님 나라의 시작 			
9/9	제사장 나라의 수렴 하나님 나라의 시작	렘31:31~34	마27:5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 위기때 등장한 선지자를 통한 메시아 예언 - 메시아 예언 중 새 언약에 대한 예언(예레미야) - 제사장 나라의 언약들과 그 의미 - 새언약과 예견된 제사장 나라의 종료 - 새 언약을 위한 예수님의 성찬식과 십자가의 죽음 - 새 언약으로 종료되는 성전의 휘장의 찢어짐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 			
9/16	유월절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양	출12:1~14	요1:29~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을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라 함 - 이 의미를 예표하는 3가지 그림 (아브라함의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 이사야의 어린양) - 하나님의 어린양이 십자가에서 수렴한 구약 어린양의 모습들 (유월절의 낱짜와 시간, 뼈를 꺾지 않음, 고난의 죽음, 여호와이레의 죽음) - 세상죄를 지고감으로 열방을 향한 구원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냄 			
9/23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출12:21~28	막14:22~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은 왜 유월절 퍼포먼스를 그런 방식으로 계획하셨나? - 애굽 장자의 죽음과 이스라엘 장자의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결정됨 - 유월절 식사는 어린양을 먹는 날, 이후로 유월절이 지켜진 역사 -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심,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 화체설, 공채설, 임재설보다 중요한 나처럼 너희도 너희몸을 나누라 -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나 성찬식은 예수를 믿는자 누구나 			
9/30	마지막 무교절 첫 번째 부활	레23:5~14	마2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가? - 무교절의 초실절에 대하여 들어 보았는가? - 무교절의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안식일 전에 내려져 무덤에 갇힘 - 안식일 다음날 첫 보리 이삭을 제단에 흔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심 -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성도들의 소망의 실체가 되는 첫 열매 -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성도 			
10/7	마지막 칠칠절 첫 번째 교회	레23:15~21	행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칠절은 어떤 절기인가? - 칠칠절과 무교절의 관계 왜 50일인가? 첫 밀로 만든 떡 두덩이를 드림 - 칠칠절의 또 다른 기원 시내산 언약의 날(율법 받은 날) -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0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 성령의 임하심과 새로운 언약 백성, 교회의 탄생 - 성전 개념의 변화,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산도 아닌 영으로 예배하는 시대 - 교회는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 			
10/14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추수	레23:34~44	계14:1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 초막절과 유월절과 칠칠절의 관계에서 알게 되는 마지막 추수의 때 - 초막절의 두번째 의미 초막절 마지막날 성전에 물을 부음의 의미 -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이 두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 예수님은 초막절의 영생하는 물이 되심 -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 회복 환상에 영생의 물이 다시 등장 - 교회는 영생의 물을 나눔으로 지금 추수의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10/21	손으로 지은 성전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출40:18~38	히9: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성전 - 성막의 구조와 지성소의 의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 - 에덴동산의 생명나무같이 그룹이 지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 - 대속죄일과 지성소, 제사장도 성전도 제도 자체가 아닌 거룩성 - 성막 성전의 역사, 그러나 성전주의를 비판한 선지자들 -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하심, 삼일만에 일으키리라, 하나님 중심성 - 제사장 나라 성전이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없어짐 - 내가 하나님의 전, 두 세 사람이 모인곳, 교회가 성전, 온 세상이 성전 			
10/28	법궤안 십계명과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신10:1~5	요1:1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전안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법궤안의 십계명을 보관케 하신 하나님 - 십계명은 곧 하나님 자신과 같은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 율법 613개 - 십계명 요약하면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 요한 예수님을 말씀의 육화라고 말함, 과거 이 말씀의 뜻 헬라철학 로고스 - 지금은 유대적 의미, 창조때 함께한 말씀, 잠언, 전도서의 지혜말씀전승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 십계명 돌판을 지성소에 둔 이유 - 말씀을 듣기만 하는자가 아니라 육화시키는 자, 세상에 육화시키는 자 			
11/4	법궤안 만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출16:31~35	요6:3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성소 법궤안 만나 항아리 - 만나 이야기와 먹이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은 만나 -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침, 만나는 은혜로 사는 삶을 상징함 -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만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있음 - 예수님은 자신 생명의 떡이라고 함, 떡과 관련된 기적을 일으키심, 떡 시험 -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 예수님이 성전됨의 증거 -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먼저 의를 구하자 			
11/11	법궤안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부활	민17:1~11	요11:23~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궤안의 아론의 싹난 지팡이 -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 얽힌 이야기, 아론만 제사장? 반역의 사람들 - 살구나무 이야기,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징조를 보이는 나무, 깨어 있음 - 그 지팡이는 법궤안에 두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부활 - 예수님이 부활로 그것이 법궤에 있는 이유 드러남, 아들의 순종과 부활 - 첫열매 징조가 됨, 부활로 증명된 일들, 예수님 옳았다, 예수님 메시야였다 			
11/18	대제사장 아론과 대제사장 예수	레9:7~24	히5: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제사장으로 이끄는 나라 -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보자, 제사장은 기록해야 한다, - 완벽한 제사장이 존재하는가? 제사장의 타락 (사사기, 엘리, 제2성전 제사장들, 3성전 제사장들) - 델기세택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한 기대 - 예수님 대제사장이 됨, 영원한 속죄,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휘장을 찢음 - 성도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보의 모델이 되야함 			
11/25	대속죄일과 영원한 제사	레16:29~34	히1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라엘 3대 명절외에 가장 중요했던 대속죄일 - 왜 대속죄일이 필요했는가? 항상 죄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 죄는 무엇인가? 원죄와 자범죄, 자범죄를 제사로 씻지만 원죄는 못씻음 -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대속의 4가지 의미 (제사, 화해, 법정, 새언약) - 단번에, 대신해서, 대표해서 죽으심의 의미 - 성도는 세상을 품고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12/2	용서가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레7:37~38	롬3: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의 특징 용서, 5대 제사와 용서 -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영원한 용서, 모든 인류와 우주적 용서 -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가 무료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한번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 은혜로 얻은 용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빛진자 비유, 70번 용서 - 용서를 경험한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된다 			
12/9	이웃과의 나눔과 있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레23:22	눅6:3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의 십계명은 절반이 이웃 사랑, 화목제도 나눔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치되지 않는다, 하나님 속성 사랑이다 - 레위기도 거룩법전 후에 성경법전이 있다 거룩이 나눔으로 이어질 때 온전 - 롯과 보아스 이야기 - 약 1장 27절 경건의 양면성, 거룩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 이웃 사랑은 성도의 선택이 아닌 필수, 교회가 해야할 나눔의 노력 			
12/16	나라와나라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제사장나라 하나님 나라	민20:14~21	엡2:10~18

- 제사장 나라는 평화를 만드는 나라, 가나안 가는 길 전쟁하지 않음
- 가장 번성한 다윗 제국으로 나가가지 않음(인구조와 전염병)
- 요나의 앓수르 전도, 이방나라도 사랑
- 예수님 베드로가 자른 종의 귀를 붙여 줌, 칼은 칼로 망한다
- 예수님의 죽음은 이방인과 유대인 둘 다를 위한 죽음
- 제사장 나라 선민의식 세상을 적대시함, 교회도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됨
- 교회가 해야 할 평화의 노력

23-33주차 설교의 기획 - 제사장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수렴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계속 마음에 드는 의문은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기도 하지만 초월하기도 하는 나라라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를 완벽히 성취하시며 혹은 순응하시며 수렴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반-성전적이며, 반-율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제사장 나라가 자라고 성숙해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여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메시아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이며 더욱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주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모습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는 경건을 제도주의로 환원하는 종교적인 형태에 대한 비판으로 작용하고 교회로 하여금 무엇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구성하게 되었다. 총 11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 달에 해당하는 설교이다.

<표6> 23-33주차 설교의 기획 - 제사장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일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1/6	제사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레4:27~35	눅5:17~26

1/13	제사장의 권세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민16:1~40	요2:13~22
1/20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출21:12~14	마5:20~26
1/27	장로들의 전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레11:24~45	막7:1~16
2/10	안식일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출20:8~11	마12:1~8
2/17	이스라엘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백성	욘3:1~4:4	마18:21~28
2/24	택하신 곳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배	신12:5~14	요4:19~26
3/3	할례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교회	창17:10~14	갈5:1~15
3/10	음식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교회	레11:1~23	딤후4:1~5
3/17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	창18:23~33	눅8:26~39
3/24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신5:11	갈4:1~7

<표7> 23-33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일시	제목	구약본문	신약본문
1/6	제사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레4:27~35	눅5:17~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 당시 제사장 나라는 활발했다, 제사, 성전, 제사장, 율법, - 예수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다(8일 정결례, 매유월절마다 성전방문, 나병환자 치료후 제사장에게 보냄, 성전세 내심) - 그러나 반-제사장나라적 모습도 보임, 대표적인 사건 중풍병자 치유사건 - 죄 사함의 절차를 초월함, 죄 사함의 권세를 침범함 -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 하나님 나라 동사의 의미, 임한다, 주신다, 받는다는 수동적, 초월적 의미 - 오늘날 성도는 제사없는 용서와 구원받음,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 			
1/13	제사장의 권세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민16:1~40	요2:13~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법, 제사장의 영역 불가침의 영역 - 민16장의 반역사건에 진노하심, 사울의 제사장권 침범 벌하심 - 웃시야의 제사장권 침범 벌하심, 왕권과 제사장의 분리가 원칙 - 바울도 대제사장 모욕한 일 사과함, 그러나 예수님 성전 정결 사건 일으킴 - 성전정화와 제사장과의 관련성, 무슨 권세? 성전 헐라, 삼일만 세운다 - 메시아로서의 제사장 권세의 초월성을 드러냄, 목회자 존경과 우상화 문제 - 오늘날 교회는 신앙을 상업화하지 않는가? 			
1/20	모세의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출21:12~14	마5: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서기관적 율법주의 - 율법의 일점일획도 중요하다는 서기관의 정신과 예수님의 충들의 의미 - 산상수훈의 6대 반대 명제의 의미, 마태복음 구성은 예수님이 모세와 비교 - 모세보다 위대함을 보이는 것, 예수님의 초월의 모습 -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신약의 성도와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 폐쇄성에 갇힘 			
1/27	장로들의 전통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레11:24~45	막7: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전 율법의 등장, 탈무드, 바리새적(하시딤) 경건주의의 역사 -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전통 손씻기를 초월한 모습 -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충돌 - 산상수훈의 구제, 기도, 금식, 경건의 축복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약 2장, 외식함의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라 			
2/10	안식일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수	출20:8~11	마1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 가장 중요했던 율법 안식일, 천지 창조와 안식일 - 모세 율법 받기 전부터 훈련되어진 안식일, 만나 이야기 - 깨어진 안식일 규정의 역사, 에스라의 회복, 그러나 율법주의로 형식화 - 예수님 당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제도, 어떻게 지키는 안식일이 참된가? -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속에 담긴 예수님의 초월성 -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예수부활일, 성령강림일) - 오늘날 주일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가? 			
2/17	이스라엘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백성	은3:1~4:4	마18:2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선민의식, 왜 제사장 나라로 불렸는가? -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의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듦의 부작용 - 요나와 니느웨, 온 세상 백성 사랑의 마음을 아느냐? -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차별이 없는 나라임을 가장 많이 증거함 - 용서받은 종이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 오늘날 성도도 선민의식에만 빠져 있지 않은가? 			
2/24	택하신 곳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예배	신12:5~14	요4: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하는 성막시대, 택하신 곳 성전 시대, 성전 장소 어떻게 선택되었나? - 모리아산, 다윗 오르난 타작마당, 예루살렘 성전 -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여로보암의 반성전 정책, 북이스라엘의 원죄 - 1년 3번 항상 택하신 곳으로, 예수님도 지키심 -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성전 기능 종료 -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타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의 시작 - 교회는 어디에나 세울수 있다, 교회의 본질은 장소가 아닌 영적 예배 			
3/3	할례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교회	창17:10~14	갈5: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에서 백성은 할례가 필수, 아브라함부터 시작됨, 할례의 의미 -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 언약의 할례 - 그러나 할례의 본질은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 예수님 난지 8일만에 할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례, 바울 세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 - 할례가 세례로 대체됨 - 성도의 인침은 예수의 피와 성령, 바울 할례로 돌아감 십자가의 무효화 -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3/10	음식 규정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교회	레11:1~23	딤후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 음식을 통한 거룩의 문화, 음식 규정을 주신 이유? - 레위기 음식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음식이 거룩하게 하는 것인가? - 말씀 지키는 다니엘을 전통 지키는 다니엘로 해석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 - 예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님 -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세상의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케 한다 			
3/17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	창18:23~33	눅8:26~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 가장 큰 특징 한 영혼 사랑의 나라, 경제적 가치로 인간 판단 - 예수님은 왜 인간이 되었고 왜 십자가를 졌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본성 사랑, 예수님 한 영혼 찾아 이방땅 가심 - 예수님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 비유속 하나님 마음 - 아브라함과 그 마음 나누는 하나님 - 교회가 회복해야 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3/24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나라	신5:11	갈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 인간 타락이후 불가능 -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사건들(세례, 변화산, 아버지집, 사탄과 천사의 증언들, 로마인 백부장의 증언, 제자들의 증언) -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르치심, 더욱 친근한 단어 아빠 - 하나님이 아버지가 됨으로 모두 인류가 하나님 자녀 됨 - 신분, 인종, 남녀 차별이 철폐됨, 하나님 아들과 하나님 백성 연결된다 - 교회가 회복해야 할 정의의 하나님 나라 			

34-52주차 설교의 기획 -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설교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좀 더 설교가 실천적 동기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 삶에서 실천되는 부분에 대한 설교가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설교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작업이 되어야 하기에 더욱 실천적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중심된 인물들을 선정하여 설교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설교는 인물 중심적 설교의 기획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몇 주차만 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설교를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52주로 기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총 19주차, 다섯 달 분량으로 구성하여 52주 설교 본문을 완성하게 된다. 인물에 대한 설교는 대부분의 설교자라면 익숙하게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래의 간추린 설교 포인트는 참고만 하면 될 것이다. 이 인물 설교의 초점은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의 모습을 통해 청중들에게 실천적 삶에 도전을 주는데 있다.

<표8> 34-52주차 설교의 기획 -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

일시	제목	본문
3/3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노아	창6:1~22, 히11:7
4/7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아브라함	창13:1~18, 14:14~24, 18:23~32
4/14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이삭	창22:1~13, 26:14~31
4/2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야곱	창25:27~34, 31:36~42, 33:1~11, 35:1~15
4/28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요셉	창39:1~23, 50:15~21
5/5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모세	출4:1~17, 32:11~35, 민12:1~16
5/1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여호수아	민14:1~10, 수24:1~31
5/19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보아스	룻2:1~16, 4:1~13
5/26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사무엘	삼상7:1~12, 15:1~31
6/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다윗	삼하6:1~23, 24:1~12, 대상28:1~10
6/9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다니엘	단1:5~16, 6:5~10
6/16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에스라	스7:6~10, 9:5~15, 느8:8~18
6/23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느헤미야	느1:1~11, 5:6~14, 13:6~31
6/30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세례 요한	마3:1~17, 요3:22~30
7/7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예수	막3:31~35, 5:1~20, 마26:36~45

7/14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베드로	마16:13-20, 행3:1~10, 벧전2:3-9
7/21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스테반	행6:1~15, 6:54~60
7/28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바울	행9:1-9, 20:17~24, 28:23, 딤후4:1~8
8/4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요한	요19:26~27, 요일3:16~23, 계1:1~11

<표9> 34-52주차 설교의 간추린 포인트

일시	제목	본문
3/3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노아	창6:1~22, 히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인류의 번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타락, 말씀 아닌 자기 의도대로 - 아담, 하와 선악과 취함과 같은 죄의 반복(좋아서 취함) - 영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됨, 죄악 세상에 가득함, 모든 계획이 악함 - 땅이 부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함 - 하나님의 진노,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 땅과 함께 멸하리라(심판 예정), 노아 홍수 전체 이야기는 심판이 주제다 -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기준 -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다 -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 - 의를 따르고, 온전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4/7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아브라함	창13:1~18, 14:14~24, 18:2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번째 인류 나라와 민족의 기원, 인류의 번성 국가가 탄생 -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인가? - 탑의 나라, 탑의 목적(인간의 제국), 바벨탑, 피라미드 -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 아브라함을 부름, 본토 친척집 나라를 떠남 - 단을 쌓는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는 단의 나라, 민족과 땅에 대한 언약 - 내 안의 악함의 극복, 온 세상의 하나님 - 경제적 민족적 충돌과 하나님나라, 심판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긍휼과 중보
4/14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이삭	창22:1~13, 26:14~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 나라, 모리아산의 번제와 순종 - 청소년기의 이삭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함 -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 세상앞에 성실, 돈(전쟁, 막벨라굴), 결혼문제 아버지를 통해 배움 - 나쁜것도 배움, 인간의 나쁜 본성은 내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흉년) - 하나님이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 다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4/21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야곱	창25:27-34, 31:36~42, 33:1~11, 35: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전한 사람(조용한 사람)의 계보를 잇는 야곱(노아, 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 장자되기를 사모한 사람, 하나님 나라 상속 은혜로(바울) - 세상앞에서 야곱의 성실, 14년의 봉사, 낮, 밤, 추위, 더위 안가리고 일함 - 하나님의 백성 다운 아름다운 화해를 위한 몸부림 -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다시 벨엘) -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전능자이심을 믿음
4/28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요셉	창39:1~23, 50:1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빅 피쳐를 위한 선택 요셉(애굽에서 400년을 위해) - 왜 요셉일까? (정직한 사람, 구원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앞의 사람) - 정직으로 고난의 길을 걸음, 구원의 꿈 이루는 과정 아픔, 고난, 시련 -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다 - 400년 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요셉(가나안갈때 해골 가져가라 유언)
5/5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모세	출4:1~17, 32:11~35, 민12: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애굽 400년후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애굽을 떠날 수 없는 이스라엘 -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작전, 모세의 부름과 믿음의 시험 - 거대한 제국앞에 선 나약한 모세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위에선 모세 - 모세의 중보,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적 모습, 하나님의 마음 가지기 - 모세의 온유함(나의 종, 순종, 충성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성품
5/1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여호수아	민14:1~10, 수24: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세 수종 여호수아, 정탐꾼 여호수아, 정복자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 첫번째,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 - 두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앞에선 긍정과 열심의 사람 - 세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 - 네번째, 가나안의 문화와 싸워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독려했던 사람
5/19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보아스	룻2:1~16, 4: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오미의 가정 이야기, 모압으로 떠남, 거기서 한 며느리와만 귀국 - 나오미와 룻을 보살피는 보아스,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를 행하다 - 레위기 안에 나타나는 결혼법, 기업 무르는 법을 따르는 보아스의 모습 - 그의 가정에서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아니다
5/26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사무엘	삼상7:1~12, 15: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 지파 고라 자손 사람 사무엘의 탄생이야기 - 선지자로 세움 입은 사무엘, 실로의 파괴후에 미스바 광장 기도 - 형식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는 사무엘 - 왕을 요구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하는 사무엘 -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순종이 제사보다 마음을 알아야 한다 - 제도나 형식의 이상화를 경계, 정치 체제나 제도 보다 말씀 순종 강조
6/2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다윗	삼하6:1~23, 24:1~12, 대상28: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 두번째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다윗인가? - 첫째, 그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셋째, 하나님앞에 회개와 겸손함을 끝까지 가졌기 때문 - 넷째, 제사장 나라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 - 다섯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6/9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다니엘	단1:5~16, 6: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절망이 가득한 시대의 다니엘 -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사람 다니엘 - 바벨론 제국의 인재 교육을 받던 중 다니엘에게 닥친 신앙 정체성의 문제 -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함,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 - 말씀에 기초한 삶, 성실과 청빈의 삶, 고발할 아무 근거, 아무 흠도 없음 - 바벨론제국(사자의 굴)안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 -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니엘
6/16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에스라	스7:6~10, 9:5~15, 느8:8~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르시아 아닥사스다왕의 통치 2차 귀환, 페르시아 왕국 기도 요청 - 왕후 에스더의 영향력 - 돌아온 에스라, 예루살렘의 남은자들의 삶에 거룩함이 무너지짐 - 이방인과 구별됨 없는 삶, 유다 자손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 회개 - 몇명의 반대자 외에 모두 이혼하고 여자들을 돌려보냄 -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기 위하여 왔을때 함께 영적 회복을 이끔 - 예루살렘 성전 성벽 회복, 제사 회복, 율법과 말씀 모름 - 말씀 사경회를 열고 초막절을 지킴,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복 - 성전을 비워두지 않기로 하고 제비뽑아 10분의 1 성에 거주 - 성전세, 십일조를 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머뭇, 안식일도 지킴 -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구별됨에서 시작된다.
6/23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느헤미야	느1:1~11, 5:6~14, 13:6~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방여인 돌려보낸 문제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음 - 느헤미야 이 소식 듣고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함 -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옴 - 52일만의 성벽 재건 성공(6월), 산발랏과 도비야의 끈질긴 방해를 이겨냄 - 7월에 말씀사경회도 성공적으로 치름, 멋진 성벽준공식을 드림 - 그러나 돌아간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좋지 못하였다 - 다시 느헤미야 돌아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옴 - 안식일을 지킴, 모국어 가르침, 이방인과 분리 - 모든 사회적 억압과 압제 철폐, 사회적 개혁, 청빈함의 근거(6장) -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없다. 끝없는 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짐
6/30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세레 요한	마3:1~17, 요3:2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나라 예비했던 사람, 역사 인식 분명, 하나님의 나라 기다림 -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명,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 물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을 기다렸음 - 예수님이 찾아오셨을때 메시아이심을 알게 됨 - 자신을 높이는 많은 사람들앞에서도 자신보다 메시아를 높임

- 메시야를 증거,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헌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		
7/7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예수	막3:31~35, 5:1~20, 마26:3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예수님의 모습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있다 -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고 그 나라 백성 다운 삶 강조했다 - 첫째,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교육, 육체의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의 개념 - 둘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를 교육, 거라사 광인 찾아가심 - 셋째,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가르쳤다. 		
7/14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베드로	마16:13~20, 행3:1~10, 벘전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부 베드로 사람납는 어부로 부름,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예수님 사랑 -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먼저 믿었다 -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현실자각, 다시 어부로 돌아간다 - 처음 예수 만났던 상황 그대로 부활 예수 만나 첫 사랑과 첫 사명 회복 -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체험한 후, 았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다 - 하나님 나라를 증거, 모든 성도가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가르침 		
7/21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스테반	행6:1~15, 6:5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교회 집사 선출된 스테반, 디아스포 헬라파 유대인 스테반 -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성, 지성, 관계성의 모델 - 표적과 기사도 행한 스테반, 회당에서 모함을 받아 공회앞에 서게 된다 - 하나님 말씀을 통으로 전부를 알고 있던 사람 -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말했던 사람 		
7/28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바울	행9:1~9, 20:17~24, 28:23, 담후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반을 돌로 치는일에 앞장섰던 바울, 기독교를 이단이라 여기고 박해함 -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야인줄 알게 됨 -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한 사람, 아라비아에서 3년 -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친교, 사도 만난 후 고향 10년, 준비기간 13년 - 12년의 전도사역,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김 - 하나님 나라 땅 끝 증거 위해 로마로 감, 나라를 증거하라고 권면 		
8/4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 요한	요19:26~27, 요일3:16~23, 계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의 사촌, 어부, 예수님의 부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 -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면 그 중의 높은 한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 -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십자가까지 함께한 유일 제자 - 어머니를 부탁받았던 사람,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표현 -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 실망하여 갈릴리 어부로 돌아감 - 부활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물고기와 떡을 먹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옴 -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이해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 - 계시록을 통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위로한 사람 -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와 우주의 알파와 오메가임을 증거함 		

필자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총 52주 설교를 제안한다. 1년을 큰 틀에서 같은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경 전체안에서 이러한 큰 주제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제를 따라 설교를 구성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제시하는 52주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리라 기대된다. 하나님 나라 52주 설교를 필자가 진행한 것과 같이 큰 주제별로 진행해도 되지만 네가지 대 주제를 섞어서 구성하는 것도 좀 더 색다른 하나님 나라 설교 구성이 될 수 있다. 중첩이 되거나 너무 세부적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은 빼고 몇 가지만으로 구성해도 충분히 좋은 하나님 나라 설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설교 인터뷰와 평가

일산소망교회 청년부의 상황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는 일산에서 개척한지 14년된 정도된 교회이다. 전체 등록 교인수는 100여명이 된다. 필자가 맡고 있는 부서는 청년부이다. 청년부의 수는 전체적으로 10여명 정도이지만 청년부 예배에 출석하는 청년의 수는 5명 정도이다. 이렇게 청년부나 교회학교의 수가 적은 이유는 일산소망교회의 개척의 특이성 때문이다. 일산소망교회는 서울에 있는 초대형교회인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던 담임목사님이 일산에 개척을 하게 됨으로 시작된 교회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교회 개척 초기부터 소망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게 되신 원로목사님이 설교자로 함께 개척에 참여하여 주셨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많은 장년들이 원로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찾아오게 되었고, 교회는 작은 상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금세 장년수가 200명이 넘는 교회로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교회의 위치를 옮기게 되고 원로목사님도 더 이상 설교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로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찾아왔던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교인수는 1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개척 초기부터 장년 위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기에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장년이 주축이 된 교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개척 시작부터 함께 한 교인들은 소망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분들에게 일산소망교회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의 일산 지부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산소망교회는 지역 교회로 출발하지 못하였고 지역 교회로 자리를 잡아 가지도 못하였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교회학교와 청년부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부는 주일 오후 2시부터 예배와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2018년 1월에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청년부의 상황은 시각장애인 여자 청년 한 명에, 지적장애인 남자 청년 한 명이 있었고, 한 명은 청년부 여자 회장이었다. 청년부 회장은 시각장애인 청년과 함께 주일 대예배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각장애인 청년을 돌보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었다. 점심식사도 함께 하면서 옆에서 일일이 식사를 챙겨주어야 했다. 젊은 청년의 수가 적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적다 보니 청년회장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었다. 중고등부 교사에 이어서 성가대 봉사까지 해야 했다. 일부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주일 아르바이트나 주일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주일 대예배에만 참석하고 오후에까지 교회에 있지 못하였다. 혹은 멀리 지방의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방학에만 잠시 교회에 오게 되고 정기적으로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청년부는 연합의 힘을 잃어 갔고 결국 서울에서 멀리 일산까지 나오던 시각장애인 청년도 교회를

웁기게 되었고 회장마저 곧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일과 신앙을 병행하는데 지쳐갔고 결국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지적 장애인 한명만이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청년들이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작은 교회는 봉사할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심인 청년 한 두명에게 과도한 봉사가 주어지게 마련이다. 과도한 봉사는 신앙의 성장보다는 탈진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함께 모이는 청년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모임이 주는 힘과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실망과 패배의식에 사로 잡히게 된다. 모이는 수가 적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쉽게 빠질 수도 없다. 만일 내 자리가 비게 되면 공동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속에서 결혼과 직장과 학교의 예기치 않은 이동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구실로 교회를 빠져나가려는 성향이 남으려는 성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 결국 작은 교회가 줄 수 없는 영적, 물질적 한계가 작은 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교회가 가지는 공동체성은 개인주의가 심한 현대 사회가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으며 친밀함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 준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게 몇 명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셨다. 현재는 5섯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본인에게 맡겨진 5명은 결코 적은 수라고 여기지 않는다.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로 출발한다. 그러나 생명을 잘 품어 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한 영혼이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필자는 부임 초기에 세 명의 청년들이 모두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지쳐 있다는 판단하에 청년부 모임시에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친교적 나눔의 시간만을 가졌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것이 매우 큰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배가 없는 모임은 구속력이 강하지 못하였다. 청년들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오후에도 교회에 남아 청년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단순히 친교적 나눔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 예배만으로 청년들이 충분히 말씀의 양육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청년의 시기에 필요한 말씀의 영역은 따로 있었고 그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 적용되어지는 과정속에서의 양육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다. 말씀이 약해지면 당연히 삶도, 신앙도 약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필자는 예배와 말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온 청년들은 모두 오후에만 교회에 나와 청년부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이었기에 청년부 예배는 필수가 되었다.

필자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의 가장 큰 핵심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와 교육의 주제로 선정하고 말씀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먼저 수련회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확장하여 진행된 것이다. 또한 설교 외에도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인 “통성경 성경듣기” 도 함께 병행하였다. 조병호가 개발한 “365일 역사순 성경 듣기” 앱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핸드폰에 이 어플을 깔게 하고 매주일 성경을 얼마나 듣고 읽었는지를 체크하였다.

인터뷰와 평가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은 5섯명이다. 1명은 지적 장애자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고 1명은 교회 출석율이 저조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 두 사람을 대신하여 청년부 교사로 수고하시는 여집사님 한 분과 여권사님 한 분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다. 인터뷰에 참여한 인원의 연령은 50대 1명, 40대 1명, 20대가 3명이다. 성별은 남성이 1명 여성이 4명이다. 거주 지역은 교회 근처 일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는 기재하지 않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인터뷰 질문 내용

- 1) 기본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나이? 전체 신앙연수? 최종 학력은?
-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3)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
- 4)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5)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은 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6)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사례

인터뷰 사례1

1) 기본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나이? 전체 신앙연수? 최종 학력은?

- 홍00, 여성 20세, 모태신앙, 고등학교졸업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은 규칙적으로 읽는 편이지만 어떤 방면에서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를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성경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하는지? 이해하는 방법과 각 장마다의 연결성,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방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뜻하시는 방향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

- 네. 저는 다양한 큰 교회부터 개척교회까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안에서 집단간의 이기적 다툼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이

커지면서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가지게 되었고,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비전이 무엇일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도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워져야 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 나아가야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4)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설교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수를 준다면 35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주일성수를 잘하며,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였고, 전도를 함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었고, 하루하루 신경 쓰며 이번주에는 그 친구가 교회를 올 수 있나? 하며 조마조마 하는 제 모습과, 매일 전도한 친구에게 신경을 써야하는 귀찮음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5)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들은 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저는 설교를 들은 후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점수를 준다면 50점을 주고 싶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임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보다 긍정적이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삶의 성공을 1순위로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를 1순위에 둬으로써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 공적으로 성장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결심을 통해 저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전도를 할 때에도 지치더라도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하나님 나라 설교” 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한국교회 비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모름에도 모르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한국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설교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표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같은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사례2

1) 기본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나이? 전체 신앙연수? 최종 학력은?

- 문00, 여성 20세, 모태신앙, 고등학교 졸업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저는 사실 성경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한번도 완독을 한적이 없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는데 목사님 말씀 덕분에 전체적인 큰 틀을 알고 그에 대한 설명을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신약과 구약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3)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

- 저는 제 스스로의 의지로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야 한다기에 갔었고, 크고 난 후에는 친구들을 보러 가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다니기 위하여 집중을 하였습니다. 친구와 부모님께 이끌려 가려졌던 마음을 예수님께로 집중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중인 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회가 물론 좋은 모습도 있지만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본질이 다르게 변해가고, 그 변질된 집단적 모습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올바른 말씀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만의 거룩안에만 있고 전도만 하기보다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말씀을 듣기 전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2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매일 기도하는 습관도 없었고, 성경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앙도 그렇치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점수는 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20점은 제가 매주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에 점수를 주었습니다.

5)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들은 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설교를 들은 후, 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40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무언가를 위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유기견 봉사에 참여하여서 직접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기견 봉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동물들을 위해 제 에너지를 나눠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 해야겠다는 생각과 앞으로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백성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 40점만 주었습니다.

6) “하나님 나라 설교” 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중 일부는 타락한 교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타락,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올바른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례3

1) 기본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나이? 전체 신앙연수? 최종 학력은?

- 김00, 남성, 29세, 모태신앙, 대학졸업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예 저는 성경을 자주 읽는 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도 못했고 성경 전체가 어떠한 뜻과 의미를 가지는지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

-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는 제가 사는 금촌 지역의 교회를 다녔고 중학생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옮겨서 이곳 소망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학교가 지방이기도 했지만 웬지 교회에 대한 나쁜 편견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여깁니다. 특별히 교회가 제사장 나라와 같은 모습만 가져서는 안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나라도 필요하지만요, 저는 설교를 통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게 본질과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설교를 듣기 전, 저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수는 3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도 개인적인 신앙적인 모습은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잘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줄만 한 점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동생을 데려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찮기도 했었고 매번 그렇게 챙기는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고 제 믿음도 부족해서 말해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하지 않았습니다.

5)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들은 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말씀을 들은 후, 저의 하나님 나라 백성 점수는 55점을 주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지 모를 세상에 대한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정정당당히 말하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천하는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말씀처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명확하게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더 부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례4

1) 기본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나이? 전체 신앙연수? 최종 학력은?

- 이00, 여성 43세, 천주교 신자였는데 기독교인이 된 지 13년, 대졸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천주교 신자 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성경의 내용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자연스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면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언어 해석과 지식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 자체보다 믿는 마음과 섬기는 봉사에 더 집중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자연히 생겼다. 그런데 주일 설교만으로는 말씀을 알아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너무 부분적인 성경의 몇 줄의 말씀으로 구성된 설교는 뭔가 아쉬웠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로 성경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 청년부를 통해 하나님 나라 주제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관성을 알게 되었고,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두신 것이 너무 큰 위로가 되었고,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 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하나님 나라 설교” 를 통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
 - 네 도움이 되었고 격려와 위로도 되었습니다. 제 믿음의 시작이 된 미국의 작은 시골마을 한인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말로 전도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그들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많은 유학생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여 그들과 함께 봉사와 섬김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정말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 힘들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미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와 있었고 실제로 섬기는 교회를 만날 때까지 만난 여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방법으로 전도하는 모습에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묵묵히 실천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회복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과 주제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부터 다시 회복하여야 사회도 나라도 회복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점수 받고 싶습니다. 주일성수, 교회봉사, 사회봉사 등등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도 주고, 또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고, 또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5)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들은 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설교 말씀을 들은 후, 저에게는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기간 내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과거의 저도 그랬고 또 여전히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까지도 천국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믿는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천국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6)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터뷰 사례5

1) 기본인적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이름? 나이? 전체 신앙연수? 최종 학력은?

- 구00, 여성 57세, 신앙연수 42년, 박사수료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특별히 성경의 전체적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대부분의 설교가 부분적인 설교가 많은데 이렇게 크게 여러 관점에서 성경 자체만의 말씀을 들으니 성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말씀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 좋았다.

3) “하나님 나라 설교” 를 통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나?

-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믿는 사람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 이고 심지어 피조물과 우주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 곧 사랑, 용서, 나눔, 평화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듣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설교를 듣기 전,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6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부분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일성수를 잘하고 있었고, 교회 봉사에도 여러 가지로 잘 참여하고 있었고, 하루에 한번은 꼭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일주일에 한 장은 성경을 읽었고, 자기 전에 기도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외적인 부분에서도 잘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 전도를 하였고, 기부를 하기도 했고, 사회공공기관의 봉사를 하러 다니기도 했고,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보호에 앞장서기도 하였고, 사회적 법과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수가 60점인 것은 아직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미워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5) “하나님 나라 설교” 를 들은 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100점 중 몇 점을 주고 싶나요? 그렇게 평가한 이유는?

- 설교를 들은 후,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수는 70점입니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관계가 좋지 못하고 저를 음해함으로 미워하던 분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저의 집에 어느 날 찾아온 청개구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은 고양이 한 마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온 피조물까지도 사랑하심의 죽음이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저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6)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모두 다 좋지만 그래도 무언가 이렇게 좀 더 교회의 본래적 모습에 관심하는 설교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현재 한국교회가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통한 하나님 나라 설교 평가

1.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 이해에 미친 영향

인터뷰에 응했던 다섯명의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자신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 오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성경이 마치 한권의 책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경 전체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기존의 주일 주제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거나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는 주일 주제 설교는 매주 다른 주제로 다른 본문안에서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성이 없기도 하거니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설교 후에 본문이나 성경 말씀보다는 예화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말을 한다. 현대의 도시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 성경공부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부분 주일 설교에만 의지하여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상황속에서 하나님 나라 설교는 이러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말씀으로의 양육이라는 두 가지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설교라는 평가이다.

2. 하나님 나라 설교가 교회 이해에 미친 영향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 설교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했다는 응답이었다. 지금껏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교회가 구약의 제도에서 어떻게 신약의 제도로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설교는 이러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껏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찾아가야 하는 곳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나라 설교 후에는 교회가 세상으로 찾아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방향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데 하나님 나라 통설교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회의 본질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의 예배와 기도와 친교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의 전도와 선교와 봉사와 섬김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교회가 잃어버린 공공성을 깨닫게 하는데 매우 유용했다는 평가이다.

3. 하나님 나라 설교가 나의 삶에 미친 영향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은 후 개인적인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성도들은 대부분 공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한 청년은 설교를 들은 후 봉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기견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청년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고 포기했었는데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은 후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어떤 집사님에게는 자신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정말 미워하던 원수 같은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자연까지도 사랑하는 실천적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하나님 나라 설교가 성도들의 삶을 공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공적인 삶으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삶을 좀 더 공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다. 또한 삶과 신앙의 목표가 세속적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있다는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세속화를 이겨내는 모습도 나타났고 신앙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추상화시키고 내재화시키고 피안화 시키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한 집사님의 응답처럼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설교의 영향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드러난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용이 부족하였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의와 평화와 같은 공적 영역의 적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년들이 아직 어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적용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필자가 구성한 하나님 나라 설교의 전체적인 면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교리에 가까운 설교이다 보니, 좀 더 다양한 공적 영역을 다루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 예화나 예시가 설교의 본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도가 세상에 말씀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적당한 선에서 보완적으로 사용되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실천적 도전을 주는 인물들이 현재의 시대로부터 2000년 이상의 시간차를 보이는 성경 속 인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직접적인 도전을 주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의 보완을 위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적으로 살아간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4. 하나님 나라 설교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 이유

응답자의 100%가 하나님 나라 설교는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의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만은 자신들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주변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부터 받았던 반응에 기인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 양태는 지나치게 내재화, 피안화 되어 있기에 세상과 소통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응답자들이 말하는 교회 개혁의 초점은 내부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점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혹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 혹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말들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교회가 외적인 공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인 교회다움의 회복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응답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필자도 논문 전체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바이다. 그래서 어떤 실천적 운동을 일으키기 보다는 먼저 말씀과 설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한 것이다.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떤 것 인지를 아는 인식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게 만들어 준다.

제 VI 장

결 론

요약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서는 어떤 실천적인 운동을 제시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것 보다 먼저 왜 교회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교회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다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세지향적 종교는 공공성에 관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교 자체가 개인의 복과 영적인 만족과 저 하늘의 안식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내세 지향적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I 장에서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개인화, 세속화, 내세 지향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교회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자신들만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게 만든다. 필자는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 신학과 가르침의 부족이라고 판단하였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교회가 관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를 수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쉽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론을 연구한 것이 이 논문의 목적임을

제시하였다.

II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공공성에 있다는 것을 교회론의 변천사를 통하여 드러내며, 교회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공적신학이 무엇이며 공적신학이 교회와 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이어주고 있는지를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네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다. 첫째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과 본질이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제도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교회론을 가졌고 이러한 이해는 교회안에만 구원이 머물게 만들었다. 둘째로 종교개혁 교회의 교회론과 본질이다. 종교개혁 교회는 교회란 제도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며,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믿음이라고 보았다. 참된 믿음의 강조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분리시켰고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하는 믿음이 강조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교회의 구원을 세상밖으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였다. 셋째는 자유교회의 교회론이다. 자유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친교라고 하였다. 자유교회는 친교에 기초한 나눔과 평화의 공공성을 많이 보여주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상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교회의 실천적인 공공성이 강조되지는 못하였다. 넷째는 WCC의 교회론이다. WCC의 교회들은 교회가 다양한 교리와 신학적인 차이에 집중하다 보니 심한 분열과 갈등의 시대만을 가져왔음을 반성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정통성만을 따지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본적 신학 토대위에서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공적책임과 공공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교회론이다. WCC의 교회론을 통하여 교회는 서서히 공공성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어서 필자는 이러한 교회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등장한 공적 교회라는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공적교회와 공공성이라는 말은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을 마틴 마티가 총칭하여 부른 말로부터 시작되었고, 공적신학은 종교를 사회적 삶과 유리된 개인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반대하여 세상에 대한 종교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역설하는 신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신학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의 재발견으로 등장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신학이 세상과 관계하는 모습은 네 가지 모델로 나타난다. 첫째는 변증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공공성이며, 둘째는 사회 변혁적 측면으로 나타나는 공공성이며, 셋째는 기독교적 정체성에 기반한 공공성이며, 넷째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공공성임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러한 다양한 공공공의 외적인 형태 중에서 기독교적 정체성에 기반한 공공성의 입장에서 설교를 통한 교육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필자는 말씀과 교리가 공공성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서 로마 제국하의 교회와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폈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이러한 설교의 주제가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보여주며, 공공성을 함께 드러내는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신학과 성경해석 방법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Ⅲ장에서 통으로 보는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만 한정하여 나타나는 주제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는 여호와와 그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개념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증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들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제사장이 통치하고 다스리며 제사 제도가 중심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유형적 제도가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다. 이때의 의미는 제사장 나라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중보적 나라로 세워졌다는 의미이다. 이 두가지 해석 모두 다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의 제도와 관련된 측면에 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한다.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이며,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라고 말한다. 조병호가 유월절 어린양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신약의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어린양의 대속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제도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세워지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제사장이 이끌어 가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와 제자들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의 전환의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성전과 장자가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제도나 사람이 왕이나 주권자가 되어 통치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임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으며 모두 다 제사장 나라안에서 동등됨을 가지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제도이다. 필자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의 제도를 살핌으로 제사장 나라가 보여주는 중요한 공공성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두번째로 조병호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강조한다. 제사장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이며,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이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조병호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개인, 가정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나라의 이야기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공적책임을 본질로 하는 나라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제사장 나라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제사장 나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내적 지향성이며 하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외적 지향성이다. 이 둘은 서로 상보적 관계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스라엘 초기와 왕정시대의 이야기에서는 이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됨을 보여준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제사장 나라의 제도만을 지키는 내적 지향성을 강조하는 나라가 되면서 서서히 신앙을 내면화하고 개인화하고 집단화 함으로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에 빠져들게 됨을 보여준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였던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병호의 이러한 제사장 나라 이해는 필자가 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 교육에 매우 유의미한 신학을 제공해 주었다.

IV장에서는 통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조병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시작된 나라라고 말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하여 시작된 나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존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에 대하여 순응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모습도 보이신다. 그런데 이러한 순응이나 반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수준과는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비범함은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행하심 모든면에서 나타나서 곧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라고 여기게 되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실을 크게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어야 할 일은 정반대였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열방 중에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분이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제사장 나라를 종료시키기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를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예수님에 의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제사장 나라를 포함하는 역사상 모든 하나님 나라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치신 몇 가지 비유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서는 안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삶 전체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까지 함께 통으로 보아야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실현된 나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장 나라는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어떤 제약도 없어졌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백성이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계3:7) 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며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 문이 닫힌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복음과 언약이 체결되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성전이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교회와 제자들이다. 교회는 이제 이 명료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할 사명을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요약적인 언급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높게 여기신다는 의미이다. 곧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가지는 가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돼지를 키우는 이방 땅, 그곳의 한 미친 사람, 사슬에 매여 무덤에서 사는 사람, 군대 귀신 아래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라는 의미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철폐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사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다. 이 표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단절과 절망이 회복된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수 있는 나라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우주적 가족으로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안에서 일어났기에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하여 온 땅과 온 세상에 대하여 공적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을 향한 사랑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나라이다. 필자는 이러한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교회에 접목하고자 했다.

V장에서는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론을 찰스 켈벨의 공적인 설교와 조병호의 통설교 방법론에 비추어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제시하고 필자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찰스 켈벨은 설교는 기교나 기술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매우 실천적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성경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이며 그것은 공동체안에서 형성된 언어이기에 이것을 일반적인 언어체계나 문학적인 언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설교는 공동체적 해석의 설교여야 하며 그 본문이 중심하는 인물이나 사건에게 집중하는 귀착적 설교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본문과는 다른 해석으로 흘러 나가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설교는 모형론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모형론은 단순한 비유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경 전체안에서의 관계를 살핌으로 그 본래적 의미를 잘 찾아서 전달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다. 조병호의 통성경에 기반한 통설교와 찰스 켈벨의 설교와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성경 전체에 기반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점과, 성경의 통일성과 공동체성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지도록 설교해야 한다는 점과 설교가 가진 실천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교론에 입각하여 필자는 하나님 나라 52주 설교를 구약과 신약 본문을 함께 살피는 통설교로 구성하여 제시하였고 필자가 시무 하는 교회의 청년부에서 이 설교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인터뷰와 그 인터뷰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평가

첫째, 하나님 나라 설교 프로젝트의 성과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청중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청중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내세화 하거나 교회와 동일시하는 세속화의 극단적 인식을 수정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실현되고 완성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도 아니하며, 여러 가지 제도와 율법 아래에 묶여 있지도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적인 놀라운 권세를 소유한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권세와 함께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교회가 사회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둘째, 하나님 나라 설교 프로젝트의 성과는 하나님 나라를 성경 전체안에서 통전적으로 살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의 길은 멀어진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일 뿐 아니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하나님 나라 연구나 접근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한정되어서 연구되거나, 신학자들의 논쟁으로만 여겨지거나, 혹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론이라고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에서만 접근되어졌다. 이것은 한국적 정서 안에서 유독 강하다. 그러나 조병호가 제시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연결하였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며, 또한 구약과 신약 관계 안에서 모형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관계 구조가 쉽게 이해되어지고 유월절이나 어린양과 같이 스토리 중심적이며 상징적 그림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접근하는 용이성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성경 전체의 모형론적이고 비유적인 하나님 나라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접근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 설교 프로젝트의 장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성경의 이야기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생태와 우주적인 부분까지 다양한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설교가 행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주일에 행해지는 설교들은 대부분 개인과 가정에 관련된 설교가 많다. 성경의 인물에 집중하거나 혹은 사건에 집중함으로써 그 인물이나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청중들 개인이나 가족의 경험과 이야기에 적용하는 설교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설교를 통하여 사회나

세상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설교는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다. 하나님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설교가 다른 설교들과 가지는 차별성이다. 하나님 나라 설교를 통해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교회론이 잘 정립되게 되면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게 될 때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며,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며, 교회안의 모든 차별과 파벌주의, 분파주의, 지역주의를 넘어서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하나님 나라 설교 프로젝트의 장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적, 정치적, 생태적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그 세상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 모든 사회적 영역과 모든 정치적 영역과 모든 생태적 영역에까지 하나님 나라는 관여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교육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사회적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진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적인 영역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실천이 용서나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사회적 정의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나타난다. 차별이나 불평등, 정치적 억압이나 부패와 부정의 등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실천적 행동을 하게 만든다. 또한 생태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에덴동산의 회복과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땅에 대한 관심을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의 구원이 자연과 만물까지 포함하는 우주적 죽음이었을 뿐 아니라 그 종말론적 회복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이며,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태적 영역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 정치, 생태적 영역에까지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바라보게 하는 장점이 하나님 나라 설교에 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 설교 프로젝트의 성과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세상을 향한 공공성을 자각하게 되고 실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나님 나라 설교의 최종적 목적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공공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세상을 향한 공공성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설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 교회안에 매우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하나님 나라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함으로 교회가 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준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설교를 들은 후 청중들은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유기견을 돌보는 봉사를 시작하였다는 성도도 있었고, 전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성도도 있었고,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실천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나님 나라 설교는 교회의 공공성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몰트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이다”²²⁸라고 말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있다는 말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누룩(외식)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았던 구약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선민 의식에 빠져 부패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떠할까? 현재의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다. 내가 속한 이 땅의 나라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증거한 하나님 나라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개인화-기복화-피안화 되고, 교회가 개교회주의-교파주의-국가주의에 함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는 더 이상 공공성을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현 상황속에서 하나님 나라 교육은 매우 절실하다.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듯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교육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러한 때에 조병호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는데 매우 유익한 교제로 활용될 수 있다. 성경은 이제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주신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주신 말씀의 책으로 읽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성경을 하나님 나라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를 위하여 필자는 우선 설교에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²²⁸ J. Moltmann,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광혜원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24.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른 나라의 성도들보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도 많으며,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고, 각 종 신앙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도시의 교회들은 이제 잘 모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 버렸다. 이제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지나친 헌신의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벽기도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몇 분만이 지키고 있고, 수요일 예배는 직분자들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성경공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주일 공예배의 설교이다. 그래도 이 주일 공예배의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52 주간의 설교를 구상하고 실천해 보았다. 이에 필자는 하나님 나라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며 양육하기에 매우 유익한 설교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설교는 성경을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며, 지식에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

이에 필자는 하나님 나라 설교를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바이다. 특별히 교회를 선교 지향적이며, 사회 지향적이며, 세상 지향적인 역동적인 교회로의 변화를 기대하는 교역자들에게 이 설교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또한 교회의 다음 세대를 형성하게 될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 설교를 적용할 것을 권유한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성장하고 준비되어 진다면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목숨 다하여 가르치고 증거하시고 이루어 내신 하나님 나라를 설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할 때 교회안에 많은 유의미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며 본 논문을 마친다.

참고문헌

외국어서적

- J. Moltmann. *"Theology for Christ's Church and Kingdom of God in Modern Society." A Passion for God's Reig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8.
- Martin Marty. *The Public Church: Mainline-Evangelical-catholic.* New York: Crossroads, 1981.
- Matthew Lamb. *Solidarity with Victims: Towards a Theology of social Transformation.* New York: Crossroads, 1982.
- Ronald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1.
- C.F. Keil and F. Delitsch. *Commentary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Eerdmans, 1973.
- Walter Rauschenbusch. *Christianizing the Social Order.*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14.
- Ellingsen Mark. *The Integrity of Biblical Narrative: Story in Theology and Procla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Gregory J. Polan. "The Rituals of Leviticus 16 and 23." BT 36, 1998.

번역서적

- A. B. Rhodes. *통독을 위한 성서 해설.* 문희석 외 1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 Alister McGrath. *기독교 교리이해.* 정진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Bernard W. Anderson. *구약성서 이해*. 강성열 외 1인 역.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Charles L Campbell. *프리칭 예수*.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0.
- C. J. H. Wright.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정옥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9.
- Donald A. Hagner. *WBC성경주석33 마태복음 하*.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11.
- Eugene H. Merrill. *제사장 나라*, 광철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 Geerhardus Vos. *하나님의 나라*. 정정숙 역. 서울: 개혁출판사, 2017.
- G. E. Ladd.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신성수 역. 서울: 개혁출판사, 2017.
- George R, Beasley-Murray. *WBC성경주석36 요한복음*.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2011.
- Hans W. Frei. *성경의 서사성 상실*. 이종록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Hermann Ridderbos. *하나님 나라*. 오광만 역. 서울: 솔로몬, 2008.
- J. Bright. *하나님 나라*. 김철손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5.
- J.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 나라*.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11.
- J. Moltmann.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 J. Moltmann.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규진 외 1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J. Moltmann.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이다*. 광혜원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 J.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John E. Hartley, *WBC성경주석4 레위기*, 김경렬 역. 서울: 솔로몬, 2011.
- John I. Durham. *WBC성경주석3 출애굽기*. 손석태 외 1인 역. 서울: 솔로몬, 2011.
- Ku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87.

- 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 외 1인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0.
- Norman Perrin. *예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훈영 외 1인 역. 서울: 솔로몬, 1992.
- N. T. Wright.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IVP, 310.
- N. T. Wright. *툼라이트, 창의를 말하다*. 최현만 역. 평택: 에클레시아박스, 2011.
- Paul Johnson.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파주: 살림출판사, 2005.
- R. de Vaux.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양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 Rodney Stark. *기독교의 부흥*. 손현선 역. 서울: 좋은씨앗, 2016.
- W. Willis. *하나님의 나라: 20세기의 주요해석*. 박태규 외 1인 역. 서울: 솔로몬, 2004.
- Walter C. Kaiser. *구약 성경 신학*. 최종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Walter Brueggemann. *구약성서 중심사상*. 문희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7.
- Walter Brueggemann. *성서로 본 땅*. 강성렬 역. 서울: 나눔사, 1992.
- Walter Zimmerli. *세계 기독교 사상 대전집10*. 문희석 역. 서울: 신태양사, 1977.
- 한국어서적**
- 김승태, 박혜진. *내한선교사 총람 1884~1984*.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6.
-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9.
- 김세윤. *하나님 나라 복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3.
-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이덕주. *초기 한국기독교사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이형기 외 8명. *공적신학과 공적교회*. 경기도: 킹덤북스, 2010.

조병호. *7가지 질문*. 서울: 통독원, 2016.

조병호.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1.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15.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조병호. *성경통독 이렇게 하라*.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4.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통하는 레위기*.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8.

한성천, 김시열.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출애굽기 2*. 서울: 제자원, 2006.

논문

김호관. “구약의 속죄에 대한 개념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대학원, 2009.

김희권. “제사장나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0.

윤효심. “마태복음의 인자 메시아 표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3.

장미옥. “오경에 나타나는 땅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대학원, 2009.

잡지, 기타 간행물

Charles A. Clack. “Fifty Yeares of Mission Organization, Principles and

Pracitice.” in Rhodes and Baird.

G. von Rad. “The Theology of Israel's Historical Traditions.” Old Testament Theology, vol. I .

J. Moltmann. “종말론 지구촌화 그리고 테러리즘.” 광미숙 역. 기독교사상 522호, 2002.

강응섭. “한국 개신교회의 ‘개교회화’ 에 관한 소고.” 한국조직신학논총 제50집, 2018.

김성수. “구약의 하나님 나라.” 신학정론 제21권, 1993.

김인서. “농촌부폐지론.” 신앙생활 제4권 1호, 1935.

왕대일. “땅에 대한 구약 성서적 이해.” 기독교사상 520호, 1984.

주진오. “독립협회의 대외인식의 구조와 전제.” 학림 8 연세대사학연구소, 1986.

차정식. “하나님 나라의 다층적 함의와 역동적 맥락.” 그 말씀 통권 288호, 2013.

독립신문 1896년 11월 24일.

웹사이트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4293>.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9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42591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6306&cid=42140&categoryId=4214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7450&cid=62097&categoryId=62097&expCategoryId=62097>.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Myungchul Kim

Place and Date of Birth: Yangsan, South Korea, April.9, 1976

Parent`s Names: Younglyun Park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Kyungnam Foreignlanguage High School 388, usilro, Yangsan-si, Gyeongsangnam-do, Korea	Diploma	Feb. 13, 1995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B.A	Feb. 7, 2002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M.Div.	Feb. 9, 2006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Korea	TH.M.in Min.	Feb. 12, 2015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김 명철

Signature

Myungchul Kim

Name typed

March 15. 2020

Date